6.15주간

주체91(2002)년

6.15Weekly

제43호 (4월 12일~4월18일)



김일성동지의 위업을 계승완성하자!

6.15주간 편집부

6.15주간

6.15WEEK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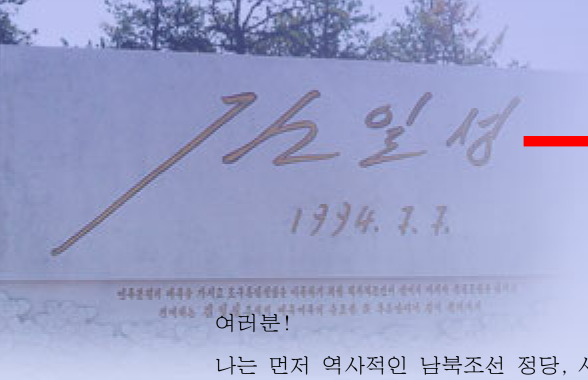
제43호 (4.12~4.18)



남북연석회의의 성과적 보장을 위하여

남북조선정당, 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 예비회의에서 한 연설

1948년 4월 19일



여러분!

나는 먼저 역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내외반동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평양에 온 남조선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여러분들을 열렬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오늘 남북조선의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뜻깊은 남북연석회의에 상정할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완전한 견해일치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의의 깊은 사변이며 매우 기쁜 일입니다.

오늘 예비회의의 성과는 역사적인 남북연석회의의 성공을 확고히 담보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남북조선의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여러분들이 오늘 예비회의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전체 조선인민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서 개최되는 남북연석회의가 빛나는 결실을 맺도록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이승만 도당의 매국배족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는 국토분단과 민족분열의 엄중한 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나라에 조성된 국토분단과 민족분열의 위기를 타개하자면 남북의 제 정당, 사회단체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구국대책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구국대책을 협의할 것을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들이 우리의 협상제의를 지지하여 나섬으로써 드디어 남북연석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비회의에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에서 토의 결정할 문제들에 대하여 합의를 보았으므로 여러분들이 다른 의견이 없다면 오늘 오후 6시부터 남북연석회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김구, 김규식 선생들이 아직 평양에 도착하지 못하였는데 그들은 이미 남북연석회의소집에 찬의를 표시하고 이 회의에 참석할 결심을 표명한 것만큼 자기들이 도착하기 전에 연석회의를 시작하는데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남북연석회의에서 미제와 그 주구 이승만 도당에 의하여 조성된 우리 나라의 정치정세를 토의하고 민족분열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자주적인 구국대책을 공동으로 세워야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나아가서 북조선과 아시아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군사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갖은 음모와 술책을 다 꾸미고 있습니다. ≪해방자≫, ≪원조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국주의자들은 인민들의 창의에 의하여 수립된 인민위원회들을 강제로 해산하였으며 민주주의와 자주독립을 요구하는 애국적인 정당, 단체들과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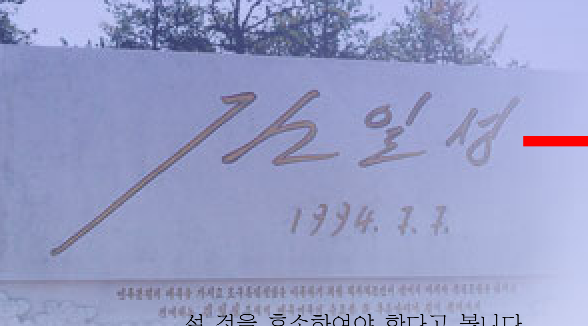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건립할 것을 예견한 모스크바3국외상회의 결정집행을 전면반대하고 소미공동위원회 사업을 고의적으로 파탄시켰으며 38도선을 국경처럼 만들어 놓고 남조선에서 파쑈적인 군사통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소미 양국 군대를 동시에 철거시키고 조선인민 자신의 손으로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우리 인민의 일치한 의사와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에 끌고 가 저들의 거수 기를 발동하여 소위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의 ≪감시≫하에 남조선에서 단독선거를 실시할 데 대한 부당한 결정을 채택하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오늘 우리 나라에 완전한 통일독립국가를 건립하는데서 기본장애로 되는 것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의 통일독립을 바라는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은 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예속화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남북연석회의에서 소미 양국 군대를 철거시키고 조선문제를 조선사람의 손에 맡길 데 대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요구를 견결히 주장하며 이 문제를 소미 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강력히 제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또한 남북연석회의에서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은 조선문제를 해결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허수아비기구로서 다만 미제의 조선침략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내외에 폭로하여야 하며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이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실시하려는 단독선거를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이번 남북연석회의가 수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규탄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서 괴뢰정부를 조작하기 위한 단독선거를 실시하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북연석회의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의 ≪단선단정≫조작음모를 반대 규탄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남북조선 인민들이 전민족적인 공동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



설 것을 호소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남북연석회의에서는 민주주의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토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일반적, 직접적, 평등적 원칙에서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전국적인 선거를 실시하여 전조선 최고입법기관을 구성하고 나라의 융성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통일정부를 수립할 것을 주장합니다.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은 우리의 제의에 대하여 심중히 토론하고 연석회의에서 민주주의적 통일정부수립을 추진할 수 있는 고견들을 제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선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따라서 조선문제는 어디까지나 단결된 조선인민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역사가 남긴 심각한 교훈입니다. 우리 인민은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였을 때에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쉬임없이 전개하여 왔으나 애국역량의 단결을 도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패와 우여곡절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해방직후 남조선에서 조성된 유리한 정세를 옳게 이용하지 못한 것도 민주역량이 단결되지 못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때 남조선에서 민주역량을 굳게 단결시켰더라면 우리 나라가 오늘과 같이 분열될 위기에까지는 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고 남북조선 각계각층 애국역량의 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오늘 남북조선의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앉은 것도 결국 전 민족을 굳게 단결시켜 옳은 구국대책을 세우고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하자는 데 있습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사람은 단결력이 없고 자기의 힘으로 나라를 세울 수도 관리할 수도 없는 무능력한 민족이라고 떠벌리고 있는데 이것은 조선민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입니다.

우리 민족은 원래 단결력이 강하고 슬기로운 민족입니다. 이것은 해방 후 2년 남짓한 기간에 북조선에서 달성한 민주건설의 성과가 뚜렷이 실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해방 후 북조선 인민들은 민주주의 깃발아래 굳게 뭉쳐 자기 손으로 인민정권을 세우고 제반 민주개혁을 성과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경제를 복구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남조선에서 온 대표 여러분들은 그 동안 북조선의 각지를 참관하면서 우리 인민의 단결된 힘이 얼마나 위력한가 하는 것을 목격하였을 것입니다.

조선민족이 자치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민을 예속시키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음흉한 목적에서 나온 궤변에 불과합니다.

남북조선의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은 모든 애국역량을 굳게 단결시켜 남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민족분열책동을 저지 파탄시켜야 할 것입니다.

민족의 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야 합니다. 남북조선의 각 당, 각파, 각계 인사들이 자기의 사상과 주의주장만 내세우고 고집한다면 단결할 수 없으며 결국 남조선인민들을 망국노의 운명에서 건져낼 수 없고 민족지상의 과업인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남북조선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먼저 생각하고 각계각층 애국역량의 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그 어떤 주의주장을 가진 사람이건 나라를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불문하고 통일적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굳게 단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번 역사적인 남북연석회의에서 남북조선의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여러분들이 단결의 입장에 철저히 서서 토의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완전한 견해일치를 봄으로써 민족분열의 위기를 막고 통일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인민들의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남북연석회의의 개회선언과 관련하여 한가지 의견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의의 깊은 회합인 것만큼 연석회의의 개회선언은 일제의 조선강점 초기부터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장기간 굴함 없이 싸웠으며 연석회의에 참가하는 대표들 중에서 연세가 제일 많은 김월송 선생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남북조선의 각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여러분들이 오늘 예비회의에서 합의된 내용들을 자기 대표들에게 알려주고 모든 대표들이 남북연석회의에서 일치한 보조를 취하도록 하여줄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6. 애국지주 김정부 - 2

≪세기와 더불어≫ 제5권 13장 백두산으로



…

나는 유격대 대장으로서 김정부와 그 일행에게 우리 사람들의 과실에 대하여 사과하지 않을 수 없는 딱한 처지에 빠지였다.

소부대책임자는 나의 명령이 떨어지기 바쁘게 대기하고 있던 김정부 일행을 내 방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 사람들이 밤중에 갑자기 무례하게 데려오게 되어 안되었다고 심심히 사과하였다.

김정부는 아무 응대도 하지 않고 적의와 불안이 엇갈리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다른 사람들의 표정도 마찬가지였다. 아마 모두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여 속을 조이는 모양이었다. 그들에게 좀더 살뜰하게 말을 하고 싶었으나 교감이 잘되지 않았다. 그처럼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는 도저히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없었다.

≪어떤 군대어른들인지는 모르겠으나 독립군이면 요구되는 군자금 액수나 대주고 호적이면 방표값이나 말해주시오.≫

얼음장같은 공기속에서 맨처음으로 울린 것은 김정부의 가시돋친 목소리였다. 그 말은 방안의 긴장된 공기를 더욱 팽팽하게 하였다. 김정부와 그 일행은 분명 우리를 독립군이나 호적으로 보는 모양이었다.

방표란 호적이나 반일부대들이 흔히 쓰는 인질전술을 말하며 방표값이란 인질을 놓아줄 때 그 대가로 받는 돈을 의미한다. 김정부 자신도 호적들한테 인질로 두세번 잡혀가 모진 곤욕을 치른 사람이었다.

지주일행은 숨소리를 죽이고 나를 지켜보았다. 방표값을 엄청나게 부를까봐 속이 떨리는 모양이었다.

그때 소부대 책임자가 담배 10갑을 들고 내앞에 다시 나타나 지양개 마을의 가게방 주인에게 값을 치르지 못하고 돌아온 데 대하여 보고하면서 주인이 너무도 사양하기에 그만 담배값을 물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나는 지주일행을 향해 우리 소부대 책임자에게 10갑의 담배를 돈을 안받고 준 지양개의 가게방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고 물었다.

≪그 김세일이란 양반은 마음씨가 고운 사람입니다. 당자는 몸이 불구이고 아내가 삯방아를 찧어 그럭저럭 연명을 해가는 집안입지요. 정상이 하도 가긍하길래 돈 얼마간을 주면서 잡화상이라도 해보라고 했더니 그 돈으로 구멍가게를 차리지 않았겠습니까.≫

김만두가 일행을 대표해서 하는 말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소부대 책임자를 책망하였다.

≪궁상스럽게 사는 집안인데 동무가 처신을 잘하지 못한 것 같소. 주인이 사양한다고 값을 치르지 않고 덜렁덜렁 돌아왔으니 그게 어디 인사가 됐소?≫

이런 말이 오간 다음 놀랍게도 방안의 분위기는 일변하였다.

지주들은 무슨 충격을 받았던지 서로 의미심장한 시선들을 주고받으며 귓속말로 수군거리었다. 나의 책망이 지나치다고 나무람하는 것 같았다. 다시 말을 걸기에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

≪이 스산한 날씨에 노인님들이 밤길을 걷게 해서 죄송합니다. 파악이 없는 고장들을 돌아다니다보니 더러 이런 실수도 하게 됩니다. 우리 동무들이 좀 공손치 못하게 굴었다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이런 말로 재삼 사과를 하자 지주일행은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럼 이 부대는 무슨 부대인지? 차림새를 보면 호적 같지도 않고 또 왕년의 독립군 복장도 아닌데 ≫

김정부도 호기심을 가지고 나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우리는 조선독립을 위해 싸우는 조선인민혁명군입니다.≫

우리는 그 대답으로써 장백의 유지들과 첫 통성을 하게 된 셈이었다.

≪인민혁명군이라니! 일전에 무송에서 왜놈들을 혼쌀냈다는 그 **김일성**장군 부대란 말이요?≫

≪네, 그 부대입니다.≫

≪**김일성**장군은 지금도 무송에 계시는가요?≫

≪아닙니다. 김선생, 인사가 늦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바로 **김일성**입니다.≫

김정부는 반신반의의 눈길로 나를 바라보다가 쓴입을 다시었다.

≪70이 넘은 늙은이라고 얕잡아보지 마시오. 아무렴 축지법을 쓴다는 **김일성**장군이 그렇게 홍안일수야 있겠소. 김장군은 우리 속인들과는 다르우다. 그분은 이빨까지도 쌍줄로 났다는 기인이지요.≫

그때 김주현이 대화에 끼어들어 바로 마주앉으신 분이 다름아닌 우리 **김일성**사령관이라고 말하였다.

그제야 김정부는 비로소 내가 **김일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가 미처 장군을 몰라보아 황송하다고 하면서 양해를 구하였다.

≪이왕이면 노장보다 약관의 장군이 더 좋지≫하고 그는 김하사를 향해 말하였다.

김하사도 나라를 찾는 싸움이 한두 해에 끝날 일이 아닌 것만큼 건강한 청년장군이 더 믿음직하다고 대답하였다.

우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계속하였다.

지주들은 그 날 나에게 많은 질문을 하였다. 지어 김만두는 김장군님이 ≪사흘천기≫를 내다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정말인가 하는 엉뚱한 질문까지 하여 나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엉터리없는 질문이었지만 나는 계면쩍은대로 어차피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사흘천기를 본다는 것은 허황한 소리입니다. 사흘천기를 미리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혁명군이 인민들과 연계를 가지고 좋은 정보들을 제때제때에 잡아쥐기 때문에 정세판단을 잘할 뿐입니다. 내가 보건대는 인민이 제갈량입니다. 인민의 지지와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장군이 백성들을 그렇게 하늘만치 쳐주니 송구스럽소이다. 우리도 장군의 대사를 도와주어야겠는데 무슨 일을 했으면 좋을지 방도나 가르쳐주시오.≫

≪사실은 우리도 장백으로 나오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면 그런 의논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장을 들고 만주광야에서 여러해 동안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기 위한 혈전을 벌려왔습니다. 맨주먹으로 시작한 싸움이였지만 인민혁명군은 지금 도처에서 적을 족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민이 우리를 도와주고 받들어주지 않았더라면 혁명군은 오늘과 같이 강대한 역량으로 자라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발톱까지 무장한 일본군대를 타승하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전민족이 일치단결하여 힘과 마음을 다 합쳐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지주건, 자본가건 다 동원되어 인민혁명군을 후원해야 합니다.≫

지주들은 나의 말에서 큰 힘을 얻은 것 같았다.

≪나라를 사랑하고 겨레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혁명을 지원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선생이 지양개 등판에다 수십만평의 화전을 일군 것은 돈과 쌀로 독립운동에 보탬을 주려는 것이 아니였습니까. 그래서 소작농들과 독립인사들이 뜻을 합쳐 선생의 송덕비까지 세우지 않았습니까!≫

≪실례이지만 장군은 이 졸부의 과거를 어쩌면 그렇게도 잘 알고계시오?≫

≪선생의 함자는 선친을 통해서도 듣고 오동진, 장철호, 강진건 선생들을 통해서도 익혀두었습니다.≫

≪선친의 성함이 무엇이기에?≫

≪김형직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팔도구와 무송에 계실 때 선생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런 변이라구야! ≫

김정부는 눈을 슴뻑거리며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았다.

≪김장군이 김형직의 자제분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다니 이 늙은게 몇해째 초야에 묻혀 속절없이 지냈더니 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모르는 속물이 되고 말았소이다. 이렇건 저렇건 장군의 선친과 나는 가까운 사이었지요. 오늘 선친이 밟고 다니던 땅에 군사를 이끌고 온 장군을 보니 그 감격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소이다.≫

≪나도 역시 선생과 같은 애국인사를 만나고보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무들이 깊은 속내도 모르고 선생을 연행해왔는데 나는 그들에게 김선생은 친일지주나 반동지주가 아니라 애국지주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선생을 위해 지양개 사람들처럼 비석을 해세우지는 못할망정 애국지주를 친일지주로 보는 허망한 실수야 하겠습니까. 선생은 독립운동을 위해 심신을 깡그리 바쳐온 자신의 지난날들을 자랑으로 여겨야 합니다.≫

김정부는 눈물을 흘리면서 거듭 사의를 표시하였다.

≪김장군이 나를 애국지주라고 하였으니 이 늙은 몸은 당장 흙이 된다고 해도 여한이 없소이다.≫

김만두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였다. 다른 지주들은 불안과 부러움이 엇갈리는 시선으로 김정부 부자를 바라보았다.

그 심정을 알아맞힌 김정부가 동행한 지주들을 가리키며 의젓이 말하였다.

≪장군, 사실은 저 사람들도 반동지주는 아니오. 내가 장군 앞에서 목숨을 걸고 보증하오. 장군이 만일 나를 신임한다면 저 사람들을 역적으로 보지 말아주었으면 합니다.≫

≪선생님이 보증하는 분들이라면야 왜 믿지 못하겠습니까. 친히 보증하신다면 나도 저분들을 나쁘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지주들은 그 말을 듣자 감사하다고 하며 연방 고개를 조아리었다.

첫 담화는 그것으로 끝났다. 그날의 담화가 지금도 내 기억속에 인상깊이 남아있다. 만일 그것이 친일분자들의 죄행을 조사하는 심문이었거나 그 어떤 죄상을 고발하는 성토모임 같은 것이었다면 나는 지금도 김정부 일행을 만나던 마가자의 임산 노동자합숙에서 비가 보슬보슬 내리던 그날밤 자정이 다될 때까지 계속된

지양개 유지들과의 담화를 이토록 즐거운 마음으로 회고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때 그들 중 누가 소작인들을 어떻게 착취하였고 일제의 식민지정책을 어느 정도로 협조하였으며 조국과 겨레앞에 떳떳치 못한 일을 얼마만큼 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캐여묻지 않았다. 오히려 그 지주들이 친일분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그들에 대한 신임까지 서슴없이 드러내놓았다. 그 신임때문에 지주들은 그날밤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되었다.

사실상 그날의 담화는 통성이나 하고 대문을 열어제낀데 불과하였다. 우리가 의논하고 싶었던 기본문제들은 죄다 앞에 놓여있었다. 우리의 목적은 우선 ≪조국광복회 창립선언≫ 정신에 맞게 지양개의 지주들을 사상적으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을 물질적으로 후원하게 하자는데 있었고 그들을 통하여 장백일대의 유지들을 혁명의 관조자, 방해자로부터 동정자, 지지자, 협조자로 만들자는데 있었다. 그러자면 아직도 그들과 많은 담화를 해야 하였다.

그러나 나는 김정부만은 인차 그의 아들과 함께 지양개로 돌려보내려 하였다.

그 다음날이었다. 내가 김정부 노인을 만나 마을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자 그는 펄쩍 뛰며 내 말을 막았다.

≪장군, 나는 간밤에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였소. 이번에 내가 장군을 만난 것은 정 말 천지신명의 도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소. 내가 일찍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보려고 여러모로 전력했지만 별로 해놓은 것이 없구려.

나도 이제는 늙었소. 기력도 쇠진했지만 덕행 하나만으로는 민족을 건질 수 없다 는 것을 깨달았소. 인생말년에 조국광복에 이바지할 길 바이없어 모대기던 차에 이렇게 장군을 만났으니 이것이야말로 천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소.

내가 여기에 있어야 우리 아들 만두가 지양개에 돌아가더라도 나를 코에 걸고 원호물자들을 보내줄 수 있소. 아버지를 데려오자면 유격대에 물자들을 보내주어야겠다, 내가 산에 식량이랑, 천이랑, 신발이랑 보낸다고 해도 당신들은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면 놈들도 할 말이 없지 않겠소.≫

나는 노인의 말에 저으기 감동을 받았다. 그 말마디들이 양심의 외침으로 폐부에 스며들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뜻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었다.

≪노인님 심정은 잘 알겠습니다. 그 고결하신 말씀만으로도 큰 힘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노인께서 계실만한 곳이 못됩니다. 처소라고 할만한 자리도 별로 없고 또 음식도 변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도 더욱 추워지고 일제놈들의 ≪토벌≫도 심해지겠는데 아무래도 집으로 돌아가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막무가내로 옹고집을 부리었다. 그는 자기가 유격대의 병정으로 싸우지는 못할망정 나라의 독립에 공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빼앗지 말아달라고 거듭 간청하였다. 나는 김정부노인을 얼마간 밀영에 머물러있게 하고 그의 아들만을 먼저 마을로 돌려보내였다.

우리는 밀영에 지양개의 유지들을 위한 거처를 특별히 따로 마련해놓고 있는 성의를 다하여 그들을 돌보아주었다.

아무것도 없는 산중생활이었으나 온 부대가 죽으로 끼니를 에울 때에도 지양개의 지주들에게만은 비상시에 쓰려고 저축해 두었던 흰쌀포대를 터쳐 밥을 지어주었다. 우리 대원들에게는 엽초를 공급하면서도 그들에게만은 특별히 가치담배를 대접하였다. 김정부는 그때 밀영에서 생일도 쇠고 1937년 설명절도 쇠었다.

그 노인의 생일이 아마 음력 12월 어느날이었던 것 같다. 그때까지도 김정부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지양개에서 아들이 마련해 보내기로 한 원호물자가 도착하기 전에는 밀영을 떠날 수 없다고 그는 고집하였다.

나는 김정부 자신은 물론, 그 일가 앞에서 죄를 짓는 것 같은 자책감을 느끼었다. 70고령의 노인을 집에도 보내지 않고 산중에서 생일을 맞게 한다면 이보다 더 몰인정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적구사업을 하는 공작원들에게 부탁하여 백미, 육류, 술 등의 식료품들을 마련해 놓았다가 노인의 생일날 전령병에게 지워가지고 그가 있는 밀영으로 찾아갔다. 진수성찬은 아니었지만 그때 우리가 김정부를 위해 차려준 생일상은 인민혁명군의 역사에서 거의 전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었다. 우리는 전우들의 결혼식을 축하해줄 때에도 그런 음식상을 차리지 못하였다. 그 당시 유격대원들의 결혼식이란 밥 한그릇에 국 한사발이면 고작이었다.

김정부는 생일상을 보자 눈이 휘둥그래서 물었다.

≪음력설도 멀었는데 이건 갑자기 무슨 성찬이요?≫

≪오늘은 선생의 생신날입니다. 인민혁명군의 이름으로 선생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나는 잔에 술을 가득 부어 노인에게 권하였다.

≪김선생, 이 엄동설한에 험한 산중에서 생일을 쇠게 해서 죄송합니다. 변변치 못한 생일상이지만 성의로 생각하고 많이 들어주십시오.≫

술잔을 받아쥔 김정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었다.

≪유격대원들이 통강냉이죽을 먹으며 나라를 찾으려고 신고하는걸 보니 이 늙은 것 은 하루 세끼씩 먹는 더운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소. 하물며 이 산중에서 나 같은 늙은이의 생일이 다 뭐요. 진정 장군의 은혜는 백골난망이웨다.≫

≪아무쪼록 나라가 독립될 때까지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같은 늙은이야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겠소. 그러나 장군만은 옥체건강해서 기어이 도탄에 빠진 민족을 구원해야 하오.≫

나는 그날 김정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심한 추위가 닥치고 산에 눈이 많이 내려쌓여 이번에는 우리가 김정부를 마을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노인이 심산의 눈길에서 무슨 변고라도 만날 것 같아 그런대로 밀영에서 겨울을 나게 하였던 것이다.

김정부는 넉달 남짓한 밀영생활에서 받은 인상을 솔직하게 고백하였다. 그것은 인민혁명군에 대한 종합적인 인상인 동시에 그가 오랜 세월을 두고 주시해온 조선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집약적인 평가이기도 하였다.

≪털어놓고 말해서 나는 지금까지 공산주의자들을 곱지 않은 눈으로 보아왔소이다. 그런데 김장군이 하는 공산주의는 판이하오. 같은 지주도 친일, 배일로 갈라서 친일만 치니 그런 공산주의를 누가 나쁘다고 하겠소. 왜놈들은 유격대를 ≪공비≫라고 하는데 그건 다 개수작이지.　　그동안 유격대의 밥을 먹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였소. 물론 결심도 새롭게 다졌구. 이제 내가 살면 몇해를 더 살겠소. 하지만 여생을 값있게 바치겠소. 죽어도 인민혁명군의 뒷시중을 하다가 죽을 작정이웨다. 이 김정부는 살아도 죽어도 김장군의 편이라는 것을 믿어 주시오.≫

김정부는 밀영에 와서 우리의 적극적인 동조자가 되었다.

우리가 교양대상, 경제모연공작대상으로 삼고 데려온 지주들중에는 농민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지주들도 있었다. 그런데 김정부가 그들을 보증해 나서고 좌상이 되어 꼼짝달싹 못하게 휘어잡았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반일애국의 길에 나서도록 좋은 영향을 주었다.

김정부는 인민혁명군의 후방사업을 도와 3,000여원에 달하는 많은 자금을 내놓았으며 천과 식량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물자들을 해결해주었다. 우리는 그가 사들인 천으로 부대의 모든 대원들에게 솜옷과 군복을 다 해입히었다.

김정부의 아들은 지양개로 돌아간 다음 우리 앞에서 결의한대

로 유격대에 대한 후원을 통이 크게 하였다. 그는 밀영에서 내려가자마자 관청에서 받아온 소중에서 10여마리를 팔아 많은 돈을 마련하였다. 그 당시 현당국에서는 지양개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킨다면서 황무지를 개간하라고 그에게 신용대부형태로 수십마리의 소를 내어주었다. 그후에도 그는 현청에 가서 보증서를 쓰고 좋은 소 20여마리를 집으로 끌고오다가 우리에게 넘겨주었으며 자기 집에 있던 재봉기까지 원호물자로 실어보냈다.

인민혁명군이 백두산 지구에 나온 후부터 적들은 장백인민들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강화하였다. 김정부의 집도 감시대상이 되었다.

어느날 김만두는 장백경찰서에 불리워가서 문초를 받았다.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당신이 **김일성**부대와의 연계밑에 그들에게 많은 물자들을 넘겨주고 있다는데 그들과 어떤 연계를 가지고 있으며 후방물자들로는 어떤 것을 얼마만큼 넘겨주었는지 솔직하게 말해보라.≫

김만두는 시치미를 뻑 따고 엄살부터 부리었다.

≪당신들은 마치 우리가 **김일성**부대와 무슨 내통이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데 그것은 오해이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연계라는 것은 있지도 않거니와 또 있을 수도 없다. 아무렴 공산군 부대가 우리와 같은 대지주를 끄나불로 쓰겠는가. 지금 우리 아버지가 공산군 밀영에 억류되어 있다는 것은 당신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 다. 아들로서 아버지를 구원하려고 그들에게 물건을 좀 가져갔는데 어쨌단 말인가. 나는 집재산을 다 들이밀어서라도 아버지를 구원하고 싶은 일념뿐이다. 당신들이 만일 그런 경우를 당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김만두의 말이 사리에 맞는다고 생각한 경찰은 그이상 더 심문하지 않고 그를 놓아주었다.

김정부 부자는 이처럼 혁명군을 원호하느라고 전답과 역축을 많이 팔았다.

김정부는 독립군에 식량과 자금을 대기 위해 황무지를 개간하여 지주가 되었는데 독립군을 위해 다 쓰지 못한 재력과 금력을 인민혁명군의 뒷시중을 하느라고 모조리 소비하였다. 지주, 자본가들에게 있어서 생명으로 되고 있는 치부 그 자체를 단념하고 그 치부를 끊임없이 뒷받침해주는 재산을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바친다는 것은 사실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바로 여기에 김정부의 애국심의 심도가 있고 항일혁명에 이바지한 공로의 높이가 있다. 나는 항일혁명 전기간 김정부와 같은 애국충정을 품고 그처럼 통이 크게 우리를 지원해 준 대지주를 별로 보지 못하였다.

훗날 밀영에 와서 그가 눈으로 보고 심장으로 느낀 것의 일부가 ≪삼천리≫라는 잡지에 나와서 회견기 형식으로 발표되었다.

그 회견기의 일부 대목을 아래에 그대로 소개하려고 한다.

≪ **김일성**≫이라 하면 국경일대에선 너머나 알니엇고 신문지나 본 사람은 누구나 기억하리라.

총사장이란 이름을 가지고 ×에 가까운 만인, 조선인 부하를 이리저리 통제해가며 습격싸홈. 완강히 군대와 저항해가며 산중소굴을 지휘해가는 그! 은근히 동의자를 규합하며 이일저일을 꿈꾸는 그! 그는 과연 어떤 인간인고?

김정부옹은 많은 흥미를 가지고 이 수수꺽기의 인간을 회견하였든 것이다.

후리후리한 키, 우락부락한 말소리 음성을 보아 고향은 평안도인 듯. 예상보다 연령은 너머나 젊은 혈기방장의 30미만의 청년. 그는 만주어에 정통, 어대까지 대장이란 표적이 없고 복장, 식음에까지 하졸과 한가지로 기거를 같이하며 감고를 같이하는데 그 감화력과 포용력이 잇는듯하게 보엇다.

≪노인님 추운데서 얼마나 걱정되십니까≫ 그는 이렇게 부드러운 인사를 들이고는

≪ 우리 젊은 몸이 따뜻한 자리 평안한 생활을 누가 싫여하겠오. 2~3끼씩 보리죽도 못얻어먹어가며 이 고생을 달게 하는 것은 다 그리되어 그리것이요. 나도 눈물도 있고 피도 있고 혼도 있는 인간이요. 그러나 이 추운 겨울을 우리는 이렇게 도라다니는구려.≫

그는 생각든바와는 좀 달느게 비적수괴답지 안케 음성도 조용하고 태도도 우락부락하지 안엇다.

그는 김옹을 여러 가지 말노 위무해가며 지금은 엄동이라 설중에 촌보를 옮길 수 없고 새봄에는 꼭 노인님을 환가시킬터이니 안심하라고 하고 부하간수에게 특별우대하기를 명하였다고 한다.

이 글은 혜산에 있던 박인진의 제자인 양일천이란 사람이 썼다. 김정부는 일본당국의 감시와 통제 속에 있는 언론 앞에서 자기의 진심을 비교적 솔직하고 대담하게 고백한 것 같다. 인민혁명군의 움직임에 대한 보도관제가 심한 때에 잡지 ≪삼천리≫가 이런 정도의 기사를 실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김정부는 나의 권고대로 왕청하마탕에 이주하여 살다가 거기서 해방의 날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김정부를 만날 때 20대이던 나도 이제는 어언 팔순이 넘었다. 그러니 김정부의 그 당시 나이보다 10년 정도 더 든 것으로 된다. 80고개에 오르고보니 유격대의 밀영지에서 그가 겪은 신고가 자기자신의 신고처럼 더 절실히 헤아려지게 된다. 있는 정성을 다하여 노인을 공대하느라고 하였지만 그 정성에도 빈 구석은 많았을 것이다. 그를 더 따뜻하고 푸짐하게 대접하지 못한 것이 지금도 마음에 걸린다.

나는 김정부 자신을 위해서는 천묘도 해주지 못하고 비석조차 세워주지 못하였다.

돌이켜보면 백두산에 처음 나왔을 때 우리 부대는 매우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었다. 돈이 있는가, 쌀이 있는가, 천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김정부가 많은 것을 해결해주었다. 그것은 독립운동의 선배로서 조선의 참된 아들딸들에게 바치는 일생일대의 선물이었다. 나는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다.

김정부와 같은 유산자, 대지주가 발휘한 양심과 애국적 장거, 그것은 일제를 반대하는 전민항쟁준비를 다그쳐가는데서 무시하지 못할 공헌으로 되었으며 우리의 위업에 대한 힘있는 지지로 되었다. 1920년대와는 달리 무력항쟁이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1930년대에 와서 지주나 자본가들이 우리를 물질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와준다는 것은 생명까지도 내대야 하는 모험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김정부는 그것을 해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김정부를 애국자로 보는 근거이며 수십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를 잊지 못하는 이유이다.

우리 나라의 절반땅에는 지금도 지주, 자본가들이 남아있다. 그들 중에는 억대의 자산가들도 있다고 한다. 반동적인 자산가들도 있겠지만 애국적인 자산가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통일된 연방국가에서 지주, 자본가들을 대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입장과 태도는 어떠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애국지주 김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어

기성철 / 구국전선 주체91, 4월 15일

민족의 어버이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 서거하신 후 이북은 준엄한 시련과 난관을 겪게 되었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보루인 이북을 고립압살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게다가 자연재해까지 계속 겹쳐 식량사정을 비롯한 나라의 경제상황도 매우 어려웠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버이주석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어 선군영도, 선군정치로 역사에 유례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빛나는 승리로 결속하시었다.

그리하여 장군님께서는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시고 강성대국건설의 토대를 마련하시는 민족사에 불멸할 업적을 쌓으시었다.

이 영광스러운 노정위에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었다.

수령의 영생위업은 건국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을 생존시나 다름없이 충성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고스란히 이어 나가는 중요하고도 성스러운 위업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주석님을 잃은 크나큰 상실과 절통한 비분으로 하여 피눈물을 뿌리며 모진 슬픔 속에 몸부림치고 있던 이북민중을 손잡아 일으키시어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주시었으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그 나날에 어버이주석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모실 숭고한 충정의 결심을 다지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주체83(1994)년 7월11일 어버이주석님을 생전의 모습그대로 금수산의사당에 정중히 모실 것을 발기하시었다.

금수산의사당은 이북민중의 한결같은 염원을 반영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삼가 지어 올리도록 하신 주석님의 집무처이며 주석님께서 오랜기간 계시면서 혁명과 건설, 세계자주화위업을 현명하게 이끌어 오신 창조의 전당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바로 이곳에 어버이주석님을 생전의 모습 그대로 정중하고 경건하게 모시어 주석님께서 민족사와 더불어 영생하시도록 하시었다.

이와 함께 장군님께서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리고 개관하며 그 주변을 보다 품위있게 꾸리기 위한 사업을 잘하도록 전군, 전민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었다.

장군님께서는 무려 30여차의 현지지도와 400여차의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숭엄하게 꾸리시고 어버이주석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높이 모시도록 하시기 위해 온갖 심혈과 노고를 기울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시도록 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장군님께서는 1994년 7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었다. 이 구호에는 천년만년세월이 흐르고 강산이 변한다 해도 주석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끝까지 따르려는 이북민중과 온 겨레의 드팀없는 신념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연호와 태양절을 제정하시어 어버이주석님의 영광찬란한 혁명역사가 영원히 빛나고 주석님의 혁명위업이 대를 이어 승계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97년 7월8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무원의 공동결정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일데 대하여≫를 채택하도록 하시었다. 결정서는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 오르신 1912년을 원년으로 하여 주체연호를 제정한다는 것과 주석님께서 탄생하신 민족최대의 축일인 4월15일을 태양절로 제정한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또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일성**헌법을 채택하여 어버이주석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도록 하시었다.

1998년 9월5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장군님께서는 새로 채택될 사회주의헌법 서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노동당의 영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라는 것을 성문화하도록 하시었다. 이와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주석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입법화한 **김일성**헌법으로 명명하도록 하시었다.

다음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주석님의 불멸의 사상과 업적을 굳건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조직영도하시었다.

장군님께서는 1994년 7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었다. 이 구호에는 주석님의 주체사상을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튼튼히 거머쥐고 그 기치밑에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이북국민의 신념과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장군님께서는 주석님의 유훈교시를 창조와 건설의 대강으로 여기시고 철저히 관철해 나가도록 이끄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해마다 첫 사업을 금수산기념궁전에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어버이주석님을 찾아뵙고 경건히 인사를 올리고 주석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맹세를 다지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시고 현지지도의 길위에서는 녹음으로 주석님의 교시를 들으시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할 방도를 구상하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주석님의 영도사적이 깃들어 있는 인민군부대들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을 쉬임없이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석님의 현지교시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이끄신다. 장군님께서는 당과 군대, 정권도 주석님의 생전의 뜻대로 강화시키시고 경제, 문화건설도 주석님의 유훈대로 진행해 나가고 계신다.

실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수령영생위업을 가장 빛나고 완벽하게 실현하신 충성의 귀감이시며 주체위업계승완성의 찬란한 태양이시다.

지난 30년간 12억 4천여만명 만수대동상 찾아 경모의 정 표시

조선중앙통신 주체91, 4월 11일



만수대동상을 찾아 경모의 정을 표시하고 나오는 여러 나라 사람들

주체61(1972)년 4월 평양의 만수대언덕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동상을 높이 모신 때로부터 지난 30년간 12억 4,124만 7,600여명의 조선인민과 해외동포들, 외국의 벗들이 그이의 동상을 찾아 와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국가적명절들, 자기 단위 창립일 등 기념일들과 경사의 날들을 맞을 때마다 먼저 만수대언덕에 올라 수령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민족최대의 국상 후 주석의 동상을 찾는 사람들의 수는 전례없이 많아 졌다.

비보가 전해진 후 다음날 새벽 그 수는 30만명을 헤아리고 7월말에는 무려 1,000만명이상에 이르렀다.

력사의 언덕에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피눈물을 뿌리며 **김일성**주석을 주체의 태양으로,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 따라 태양의 위업을 기어이 완성할 억척 같은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한 7만 1,500여명의 해외동포들도 만수대언덕에 올라 수령님의 동상에 향기 그윽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세계 각국에서 온 당 및 국가대표단들과 저명한 인사들, 국제회의와 예술축전 및 체육경기참가자들 등 외국의 벗들도 조선에 도착하여 **김일성**주석의 동상부터 찾고 있으며 그 수는 지금까지 17만 5,1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주석께서 찾으신 단위수 2만 600여개

연장거리 57만 8,000여키로메터

조선중앙통신 주체91, 4월 1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조국광복직후부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인민군부대들을 비롯하여 조국땅 방방곡곡을 찾으시였다.

그 단위수는 2만 600여개이고 날자수는 8,650여일에 달한다.

이 나날 그이께서 걷고 걸으신 현지지도로정의 총 연장거리는 무려 57만 8,000여키로메터로서 지구를 14바퀴반이나 돈것과 맞먹는 거리이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하나의 로선을 세우고 정책을 작성하시여도 집무실에서가 아니라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였다. 그 과정에 인민들의 의사를 알아 보시고 그들의 요구와 리익, 념원을 정확히 반영하시는것을 철칙으로 삼으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광복후 54차에 685일간에 걸쳐 연 87개 나라를 방문하시였다. 그 로정의 연장거리는 52만 2,460여키로메터에 달한다.

참으로 **김일성**주석은 력사에 없었던 현지지도라는 대중령도의 새로운 방식으로 당과 국가, 무력건설과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김일성주석께 드린 선물 16만 5,839점

조선중앙통신 주체91, 4월 13일

세계 5대륙의 진보적인민들은 인류의 자주위업실현에 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며 지성어린 선물들을 드리고 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김일성**주석을 끝없이 흠모하여 세계 169개 나라의 당 및 국가, 정부수반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인사들, 국제기구들, 해외동포들 그리고 남조선인민들이 그이께 조국광복직후부터 올해 3월까지 드린 선물은 2만 6,960회에 걸쳐 16만 5,839점에 달한다.

그중에는 이전 쏘련의 쓰딸린, 중국의 모택동주석과 꾸바공화국 내각수상 피델 까스뜨로 루쓰, 에짚트아랍공화국 대통령 무함마드 후쓰니 무바라크, 캄보쟈왕국 국왕 노로돔 시하누크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의 국가수반들이 574회에 걸쳐 보내 온 2,668점의 선물이 들어 있다.

또한 에스빠냐공산당 총비서, 뽀르뚜갈공산당 총비서, 네데를란드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아일랜드로동당 총비서를 비롯하여 각국 정당수반들이 보내 온 836점의 선물, 레바논, 이란, 예멘, 중앙아프리카, 알제리, 스웨리예, 스위스, 칠레 등 많은 나라의 정부수반들이 드린 548점의 선물이 있다.

경애하는 그이께 국제기구와 단체들, 여러 나라의 저명한 정계, 사회계 인사들과 실업계 및 개별적인사들도 7만 1,301점의 각종 선물들을 보내여 왔다.

또한 해외동포들과 남조선인민들도 1만 1,283회에 걸쳐 9만 4,935점의 선물을 그이께 삼가 드리였다.

선물들가운데는 **김일성**주석의 존귀하신 영상을 형상한 미술작품들과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된 그이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위인칭송의 송가들, 가구비품들, 금, 은 세공품들을 비롯한 공예품들과 각종 귀중품들, 여러가지 동물박제품, 특이한 동식물 등이 있다.

기념주화 ≪영원한 우리의 태양 김일성동지≫를 발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기념주화 ≪영원한 우리의 태양 **김일성**동지≫를 발행함에 대하여

우리 인민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혁명적대진군을 힘 있게 다그치고 있는 장엄한 시기에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을 기념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은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을 힘차게 전진시켜 수령님의 유훈의 뜻이 꽃 펴 나는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속에 수령님의 력사가 끝없이 흐르게 하려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철석 같은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는 뜻 깊은 계기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70여성상의 장구한 기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인민의 행복과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였으며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 올리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심으로써 오랜 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혁명의 새 시대를 맞이할수 있었으며 자기 운명을 자신의 손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적인 인민으로, 백전백승의 당과 혁명무력을 가진 긍지 높은 인민으로 되여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온 세상에 떨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영원히 빛날것이며 새 세기에도 우리 인민과 세계진보적인민들의 투쟁을 힘 있게 고무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한평생 온갖 로고를 다 바치시여 개척하시고 승리적으로 이끌어 오신 주체혁명위업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하고 있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 어버이수령님의 뜻과 위업을 세기를 이어 고수하고 훌륭히 실현하려는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안고 우리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수령님의 탄생 90돐을 강성대국건설의 자랑찬 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충성의 전투를 힘차게 벌리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당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며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반드시 실현하려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한결 같은 념원과 의지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을 맞으며 기념주화 ≪영원한 우리의 태양 **김일성**동지≫를 발행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은 기념주화를 금화와 은화로 발행할것이다.

2. 기념주화 ≪영원한 우리의 태양 **김일성**동지≫의 규격과 그림풀이, 조성을 승인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주체91(2002)년 4월 3일
평 양

기념주화의 규격과 그림풀이 및 조성

1. 금화 : 금화의 앞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웃부분 둘레에 ≪영원한 우리의 태양 **김일성**동지≫이라는 글자를, 아래부분 둘레에 조선의 국화 목란꽃을 형상하였다. 금화의 뒤면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을, 웃부분 둘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이라는 글자를, 아래부분에 금화의 무게와 순도, 액면, ≪주체91(2002)년≫이라는 글자를 새겼다. 금화의 크기는 직경 35미리메터이며 액면은 700원이다. 금화는 순금이다.

2. 은화 : 은화의 그림풀이는 금화와 같다. 은화의 크기는 직경 40미리메터이며 액면은 10원이다. 은화는 순은이다.

김일성주석 탄생 90돐 즈음해 공화국정부에서 연회

조선중앙통신 주체91, 4월 1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서는 11일 저녁 인민문화궁전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조선주재 외교대표들과 대사관성원들, 국제기구대표들과 대표부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부위원장과 백남순외무상, 강능수문화상,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문재철위원장대리 등 관계부문 일군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양형섭은 연설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특출한 공적을 쌓아 올리신데 대하여 언급하고 사상과 령도, 덕망의 위대성으로 하여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의와 승리의 상징으로, 인류의 태양으로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영원히 계실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탁월한 정치원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 따라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여 조국땅우에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외교단 단장인 팔레스티나국가 대사 샤히르 무함마드 아브둘라흐는 연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을 이끄시여 조선인민에게 광복된 조국을 안겨주시고 밝은 미래를 펼쳐 주시였으며 강력한 국가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쳐 오시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친선적인 조선인민이 더 큰 번영을 이룩하며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리라는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하였다.

문헌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업을 계승완성할데 대하여≫ 출판

조선중앙통신 주체91, 4월 12일

최근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문헌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업을 계승완성할데 대하여≫를 출판하였다.

문헌집에는 **김정일**령도자께서 주체83(1994)년 7월부터 주체88(1999)년 7월까지의 기간에 발표하신 담화와 론문 등 12건의 로작들이 수록되여 있다.

문헌집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뜻밖에 서거하신 후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며 선대수령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최상의 높이에서 발현할데 대한 사상을 밝힌 로작들이 편집되여 있다.

또한 숭고한 도덕관을 지니시고 수령님의 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워 **김일성**조선의 존엄을 더욱 떨쳐 나가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석의 신념을 담은 로작들도 수록되여 있다.

문헌집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필생의 위업이였으며 념원이였던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실현할데 대한 내용을 담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작들이 수록되여 있다.

조선인민군 륙해공군장병들의 례식

조선중앙통신 주체91, 4월 1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며 어버이수령님께와 경애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께 충성을 맹세하는 조선인민군 륙해공군장병들의 례식이 12일 금수산기념궁전광장에서 엄숙히 거행되였다.

조선인민군 조명록총정치국장, 김영춘총참모장, 김일철인민무력부장과 조선인민군 군종, 병종 사령관들, 장령, 군관, 군인들이 례식에 참가하였다.

조명록은 연설에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생애는 불세출의 위인, 현대사의 가장 걸출한 수령의 력사로 찬연히 빛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인민군장병들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군건설과 군사활동을 철두철미 수령님식대로 해나갈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인민군장병들은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해 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륙해공군장병들은 연설에 화답합창하며 총대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보위하고 끝까지 완성해 나갈것을 엄숙히 맹세하였다.

조선인민군 륙해공군장병들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기념 중앙보고대회 김정일총비서 참석

조선중앙통신 주체91, 4월 1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기념 중앙보고대회가 14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였다.

대회에는 김영남, 조명록, 홍성남을 비롯한 당과 국가지도간부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주재 외교대표들과 외국손님들, 해외동포들이 또한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김일성**주석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조국광복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80고령에 이르는 기간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일신의 모든것을 바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인류력사발전의 새 시대, 주체시대를 개척하시였다.

력사상 처음으로 선군혁명의 시원을 열어 놓으시고 강력한 혁명무력을 건설하시여 조선인민의 반제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으며 주체형의 혁명적당과 국가정권을 건설하시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주석이시야말로 민족적독립과 번영의 상징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그이의 어버이사랑은 남녘의 인민들과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만리이역에 사는 모든 해외동포들에게도 뜨겁게 미치여 그들이 참다운 애국애족의 길, 조국통일의 길에 힘 있게 떨쳐 나서게 하였다.

주석께서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불면불휴의 로고와 따뜻한 은정을 기울이신 그 숭고한 풍모는 오늘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여 세계원로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숭배심과 흠모심을 뜨겁게 자아 내고 있다.

주석께서 조국과 민족, 시대앞에 쌓아 올리신 업적중에서 특별히 귀중하고 심원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공적은 혁명위업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여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결정적담보를 마련하신것이다.

주석의 혁명위업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있으며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조선로동당의 위업과 더불어 변함없이 줄기차게 흐르고 있다.

김정일령도자께서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계시여 주체혁명위업은 종국적완성에로 승승장구할것이며 **김일성**주석은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영생하실것이다.

보고자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미국의 호전세력들이 반공화국압살기도를 보다 로골화하면서 조선반도를 새 전쟁의 참화속에 몰아 넣으려고 극히 무모하게 책동하고 있는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높은 혁명적경각성과 고도의 전투동원태세를 견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만약 적들이 감히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무자비한 보복타격으로 침략의 무리들을 격멸소탕하고야 말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재일본조선인대표단 단장인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서만술의장이 연설하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
조선인민군 지휘 성원들과 함께
김일성주석께 경의 표시

조선중앙통신 주체91, 4월 15일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15일 0시에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 **김일성**주석의 립상이 모셔 져 있는 홀에 들어 서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조명록 총정치국장, 부위원장들인 김영춘총참모장, 김일철인민무력부장 등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이 동행하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김일성**주석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주석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모셔 져 있는 홀에 들어 서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김일성**주석께 가장 경건한 심정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여러 나라 당대표단과 대표들을 위하여 연회 마련

조선중앙통신 주체91, 4월 1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조선을 방문하고 있는 여러 나라 당대표단과 대표들을 위하여 14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최태복비서는 연설에서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 주시였으며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자주시대를 개척하시였다고 말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반제자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 정당들과의 친선과 단결을 더욱 강화해 나갈것이며 자주적이며 정의로운 새 세계 건설을 위한 공동의 위업에 적극 이바지해 갈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수리아아랍사회부흥당 및 민족진보전선대표단 단장인 아랍사회부흥당 민족 및 지역지도부 성원, 부대통령 무함마드 주헤르 마샤리까는 연설에서 하페즈 알 아싸드각하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 주신 수리아와 조선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존경하는 바샤르 알 아싸드각하와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더욱 강화발전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단마르크공산당(맑스-레닌주의)대표단 단장인 위원장 욘 피터슨은 연설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진정한 국제주의자로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류의 자주위업과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고 말하였다.

연회에서는 예술인들의 공연이 있었다.

김일성화 김정일화전시관 개관, 제4차 김일성화전시회 개막

조선중앙통신 주체91, 4월 15일

14일 평양에서는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 개관 및 제4차 **김일성**화전시회 개막식이 진행되였다.



대동강반에 1만 2,000여의 건축면적을 가지고 독특한 형식으로 일떠선 전시관은 국내전시회는 물론 국제적인 화초박람회도 진행할수 있게 현대적으로 꾸려 졌다.

제4차 **김일성**화전시회장에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인민군군인들, 청소년학생들이 활짝 피워 내놓은 **김일성**화 5,500여상과 **김정일**화 그리고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전시되여 있다.

또한 외국에서와 조선주재 여러 나라 대사관에서 보내여 온 **김일성**화들이 전시되여 있다.

김영남, 조명록, 홍성남을 비롯한 당 및 국가지도 간부들과 관계부문 일군들이 개관 및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또한 태양절에 즈음하여 사회주의조국에 온 재일본조선인대표단, 범민련공동사무국대표단,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 재미동포대표단을 비롯한 해외동포들과 제4차 **김일성**화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온 여러 나라 대표단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조선주재 인도네시아공화국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 외국손님들이 개관 및 개막식에 초대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하철비서의 개막사에 이어 인도네시아 문화 및 관광성 부상 스리 하스딴또가 축하연설을 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 보았다.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기념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진행

조선중앙통신 주체91, 4월 1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을 기념하여 10만명이 출연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14일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되였다.

경기장은 **김일성**화, **김정일**화를 형상한 가장물과 ≪90돐≫이라는 글발, 여러가지 전광장치들로 화려하게 장식되여 있었다.

김영남, 홍성남을 비롯한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과 당, 무력기관, 정권기관, 성, 중앙기관, 사회단체 일군들,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0돐에 즈음하여 온 재일본조선인대표단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해외동포대표단들과 교포인사들이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보았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조선을 방문하고 있는 여러 나라 당대표단과 대표들, 주체사상연구조직 및 친선단체대표단과 대표들, 국제기구대표들, 조선주재 외교대표들과 대사관 성원들, 외국손님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배경대에 **김일성**화와 ≪영생≫, **김정일**화와 ≪영광≫, ≪축하≫라는 글발이 련이어 새겨 지고 축포가 터져 올랐으며 찬란한 태양이 누리를 밝히며 솟아 오르고 경기장바닥에는 춤바다가 펼쳐 졌다.

21세기의 대기념비적걸작으로 창작완성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아리랑민족≫, ≪선군아리랑≫, ≪아리랑무지개≫, ≪통일아리랑≫ 등 여러 장으로 구성되여 진행되였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이 끝나자 축포가 또다시 터져 오르고 춤바다, 꽃바다가 펼쳐 졌다.







친선 및 련대성단체, 국제기구대표들 김일성주석께 경의 표시

조선중앙통신 주체91, 4월 15일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14일 조선을 방문하고 있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국제기구대표들이 경애하는 수령님께 경의를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다함 없는 경모의 마음 안고 생전의 모습 그대로이신 **김일성**주석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앞에서 결의모임을 가지였다.

모임에서는 일조학술교육교류협회 사무국장 요꼬보리 마사가즈, 에꽈도르 ≪볼룬따드≫출판사 사장 움베르또 오르띠스 플로레스, 벌가리아 ≪**김일성**도서실≫ 책임자 와씰까 니끼포로바가 발언하였다. 모임에서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국제기구대표들의 결의문이 랑독되였다.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국제기구대표들의 결의문

오늘 우리들은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하여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김일성**주석각하를 가장 경건하고 숭엄한 감정으로 뵈왔다.

주석각하께서 언제나 태양과도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들을 따뜻이 접견해 주시던 잊을수 없는 장소에서 붉은기에 휩싸여 계시는 그이를 뵈온 우리의 가슴에는 희세의 위인에 대한 한없이 절절한 신뢰와 경모의 정이 가득차 있다.

김일성주석각하는 정의와 진리를 모색하며 방황하던 우리들에게 주체의 빛발로 앞길을 밝혀 주시고 뜨거운 열과 정으로 참다운 삶의 보람을 안겨 주시여 우리 모두가 태양처럼 우러러 흠모하며 따르던 분이시였다.

김일성주석각하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천재적인 사상리론적예지와 탁월한 령도력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이시였으며 자애로 충만된 인품과 가장 숭고한 인덕으로 만사람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주신 성인중의 대성인이시였다.

력사는 **김일성**주석과 같이 위인으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완전무결하게 지니시고 당대에 하늘에 닿을 거대한 업적을 쌓으시였으며 만민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으시며 우뢰와 같은 명성을 떨치신 그런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인간을 알지 못하고 있다.

태양의 빛발이 영원하듯이 **김일성**주석각하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사상리론적업적과 비상히 심오하고 다방면적인 경험들은 조선의 사회주의건설실천에서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되고 있으며 20세기에 이어 오늘에도 세계의 자주적인 발전에 거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김일성주석각하를 진보적인류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는것은 그이를 오래동안 숭배하여 온 우리 모두의 숭고한 본분이며 그이의 사상과 정치리념, 업적을 옹호하고 구현해 나가는 바로 여기에 인류의 밝은 미래가 있다.

우리들 세계각국의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들과 국제기구대표들은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가 20세기를 대표하는 절세의 영웅, 세계제일의 정치원로이신 **김일성**주석각하의 탄생 90돐을 인류공동의 기념일로 뜻 깊게 맞이하고 있는 시기에 **김일성**주석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그이를 인류의 위대한 태양으로 변함없이 열렬히 흠모하며 받들어 모실 굳은 결의를 다지게 된다.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공헌을 한 위인은 인류와 더불어 영생하는 법이다.

우리들은 **김일성**주석각하의 고귀한 생애와 업적을 세기를 이어 추억하고 길이 칭송할것이며 그이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지배와 예속, 침략과 전쟁이 종식된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백방으로 기울여 나갈것이다.

우리들은 **김일성**주석 그대로이신 존경하는 **김정일**각하를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그이의 사상과 령도를 모든 힘을 다하여 옹호하고 구현해 나갈것이다. **김정일**각하는 뛰여 난 사상리론적예지와 걸출하고 정력적인 령도로 **김일성**주석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 나가시는 또 한분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우리들은 지난 2월 백두산선언에서 천명된바와 같이 **김정일**각하를 새 세기를 이끄실 유일무이한 지도자로 높이 모시고 받들며 그이의 위대한 사상과 정치리념이 세계의 발전과 국제관계전반에 구현되여 나가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것이다.

우리들은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확고부동한 지지와 련대성을 보낼것이다. 조선의 평화와 사회주의,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위업은 위대한 태양에 의하여 개척되고 승리하여 온 지극히 정의로운 위업이다. 우리들은 조선인민의 위업을 인류의 정의와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인류공동의 위업으로 간주하고 전 세계적범위에서 조선지지활동을 힘차게 벌려 나갈것이며 우리의 이러한 지지와 련대성은 조선인민이 최후승리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영원히 함께 계실것이다.

주체91(2002)년 4월 14일
금수산기념궁전

해외동포대표단, 방문단 성원들이 결의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90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드리는 결의문

오늘 우리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90돐을 인류공동의 명절로 가장 성대히 기념하고 있습니다.

장구한 인류사에 일찌기 없었던 태양절을 사회주의조국에서 맞이하는 무한한 영광과 행운을 지닌 우리 해외동포대표단, 방문단 전체 성원들은 가슴속에 차 넘치는 다함 없는 경모와 뜨거운 감사의 정을 담아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건국의 위대한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 삼가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꿈결에도 그리던 조국의 거리마다 명절의 꽃바다 설레이고 온 세상 인류가 부르는 위인칭송의 노래가 화창한 4월의 봄 하늘가에 울려 퍼지는 현실을 보는 우리들의 가슴에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환하신 미소가 뜨겁게 어려 와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습니다.

돌이켜 보면 장장 80여성상에 이르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한평생은 일찌기 력사가 알지 못하는 애국, 애족, 애민의 위대한 한평생으로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세상 누구도 따를수 없는 가장 열렬한 조국애, 민족애를 지니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광복전의 진두에 나서신 때로부터 인간으로서 겪을수 있는 모든 고생과 아픔, 슬픔을 다 체험하시며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 주시고 언제나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시며 우리 조국을 인민대중의 존엄과 행복이 최상의 경지에서 꽃 펴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안겨 줄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시며 통일된 하나의 강토에서 만복을 누려갈 민족의 래일을 위해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다 바치시여 나라의 통일위업에 불멸할 위대한 업적을 쌓아 올리시였습니다.

한평생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심장을 불 태우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국땅에서 사는 해외동포들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세계적인 격변과 파동속에서도 우리들의 운명을 굳건히 지켜 주시였으며 한없는 도량과 무한대한 사랑의 한 품에 안아 애국애족의 보람찬 길로 이끌어 주시였습니다.

조국과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끝 없는 헌신의 길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가 나아 갈 앞길을 환히 밝혀 주시고 격동의 20세기를 위대한 **김일성**조선의 세기로 빛내여 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한평생 쌓아 올리신 애국애족의 위대한 업적은 오늘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여 세기와 더불어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비범한 예지와 무비의 담력, 특출한 정치실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조국의 정세가 가장 준엄하고 복잡했던 지난 7년간 세상에 전무후무한 탁월한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의 광풍을 쳐 몰아 내시며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였으며 주체조선의 대외적권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우시였습니다.

우리 해외동포들은 조국에 올 때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인민의 락원으로 더욱 아름답고 훌륭하게 변모되는 조국의 모습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애국위업의 빛나는 계승을 보고 있으며 장군님계시여 위대한 **김일성**태양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영원히 빛난다는 진리를 심장으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기에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이하는 이 시각 우리 해외동포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잘 받들어 주체위업과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이룩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간곡한 유훈을 심장에 새기고 일편단심 오로지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해외의 애국충신으로 튼튼히 준비해 나갈 불 타는 결의에 충만되여 있습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해외교포조직들을 신념의 애국대오로 더욱 튼튼히 꾸리고 더 많은 동포군중을 묶어 세워 좋은 날이나 어려운 날이나 조국과 운명을 끝까지 함께 하는 영원한 장군님의 해외교포조직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최대의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강성대국으로 튼튼히 다져 나가는 여기에 참다운 애국이 있다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힘 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며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 보다 특색 있게 기여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헌장과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 있게 벌려 위대한 장군님대에 조국통일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안녕과 건강은 **김일성**조선, **김일성**민족의 운명이고 미래이며 7천만 민족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우리 해외동포들의 다함 없는 경모와 열화 같은 흠모의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영생을 삼가 기원하면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와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21세기의 태양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90돐을
조국에서 기념하고 있는
해외동포대표단, 방문단 성원일동 삼가 드립니다
주체91(2002)년 4월 14일

비전향장기수들이 편지

조선중앙통신 주체91, 4월 16일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에 즈음하여 비전향장기수들이 편지를 드리였다.

편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드립니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의 마음의 기둥이시고 생의 은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온 나라가 경모의 꽃바다로 설레이고 태양찬가가 누리를 진감하는 뜻 깊은 이 아침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고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세계정치의 대원로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0돐을 력사에 일찌기 있어 본적 없는 민족최대의 명절로, 인류공동의 대축전으로 가장 성대히 기념하면서 위대한 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우리 비전향장기수 일동은 삼가 가장 열렬한 인사를 드립니다.

김일성민족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민족사에 금문자로 길이 빛날 4월의 대명절을 태양의 성지 평양에서 맞이하게 되는 저희들은 지금 무한한 감격과 흥분에 휩싸여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전 생애를 바쳐 오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다함 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숭엄한 마음으로 력사에 아로새겨 진 아흔돐기의 년륜을 감회깊이 돌이켜 봅니다.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시기 수난 많은 민족의 아드님으로 탄생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80고령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조국과 민족을 위해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로 영생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시였습니다.

력사에는 이름난 위인도 많았지만 10대에 벌써 인류의 앞길을 밝히는 탁월한 지도사상을 창시하시여 태양의 존함을 받으셨고 20대와 30대에 조국광복과 새 사회건설, 건당, 건국, 건군위업을 이룩하시고 두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하시였으며 한 생애에 두 단계의 사회혁명과 전인미답의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 오신 우리 주석님 같으신 위대한 수령,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을 알지 못합니다.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한몸에 안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여 가장 정확한 조국통일로선과 방략을 제시하시고 우리 겨레를 자주와 단합의 한길로 이끄시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여 주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 위대하시고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상과 로선이 정당하였으며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참으로 현명한것이였기에 우리 인민은 수령님께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지나온 세기의 곡절 많은 년대들을 오직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여 올수 있었으며 우리 겨레는 신심과 용기에 넘쳐 민족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 올수 있었습니다.

수십년 세월 남조선의 감옥에 갇히워 있던 저희들이였지만 수령님을 따르는 그 성스러운 대오의 일원이였기에 죽음이 엄습하는 모진 고통과 시련도 꿋꿋이 이겨 내고 그처럼 그립던 위대한 어머니당의 품으로 다시 돌아 올수 있었습니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 모두의 가슴에는 어버이수령님과 잇닿은 남다른 사연들이 소중히 간직되여 있습니다. 꿈에도 바랄수 없었던 행복을 넘치도록 안겨 주시고 광휘로운 인생길을 열어 주신 그 고마움을 눈에 흙이 들어 간대도 잊을수 없는 저희들이였기에 원쑤들의 고문장과 사형장에서도 가슴을 쭉 펴고 ≪**김일성**장군 만세≫를 소리 높이 웨치며 굴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우리 겨레가 반만년 민족사에 처음으로 높이 모신 만고절세의 위대한 태양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우리들의 심장속에 계시여 저희들은 언제나 신심과 용기 드높이 두려움을 모르고 굴함없이 싸워 파쑈교형리들을 전률케 하며 승리자의 생을 빛내일수 있었습니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의 대하가 물결쳐 흐르고 있는 이 시각 저희들의 가슴을 뜨겁게 적시는것은 수령님을 우리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이 땅에 수령님의 력사가 변함없이 영원히 흐르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없이 고결한 충정의 세계, 의리의 세계입니다.

생전에 우리 수령님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출중한 위인도 없지만 수령영생위업을 이룩하시고 인민을 변함없이 당과 수령에게 충성 다하도록 이끌어 주고 계시는 우리 장군님과 같은 위대한 후계자도 력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모시고 자신께서는 수령님을 받드시던 어제날의 그 자세로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 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영상은 오늘 인류가 따라 배워야 할 혁명적의리와 도덕의 최고화신으로 찬연히 빛나고 있습니다.

정녕 경애하는 장군님 계시여 수령님의 사상과 업적은 천추만대로 이어 지고 빛나며 태양절은 우리 민족과 인류의 영원한 봄명절로 환희로우며 우리 조국은 수령님의 존함과 함께 무궁번영할것입니다.

하기에 저희들은 뜻 깊은 이 아침 어버이수령님께 못다한 충성까지 합쳐 민족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시며 인류의 희망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더 잘 받들어 나갈 불 타는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집니다.

저희들은 비록 육체의 힘이 진한다 해도 심장의 피 한방울 남을 때까지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의도를 앞장서 받들며 장군님께서 그토록 심려하시는 통일성업을 이룩하기 위해 신념과 의지의 강행군을 계속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태양조국의 어제도 찬란했지만 장군님 존함과 더불어 길이 빛날 래일은 더욱 창창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녕과 건강은 장군님만을 하늘처럼 믿고 사는 온 나라 인민들과 더불어 저희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며 희망입니다.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빛나는 승리를 위하여, **김일성**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경의 표시

조선중앙통신 주체91, 4월 1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을 맞으며 15일 평양에서 그이께 경의를 표시하는 행사들이 있었다.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과 우당 위원장들, 당, 정권기관, 성, 중앙기관, 사회단체 책임일군들이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하였다.

주석의 립상앞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선률이 장중하게 울리는 가운데주석의 립상을 우러러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은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주석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홀에 들어 선 그들은 그이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은 주석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여해드린 훈장과 메달들, 울음홀에 모신 그이의 태양상과 동부각상들, 그이께서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시 리용하신 렬차와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리용하신 승용차를 돌아 보았다.

이날 항일혁명투사들과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 각급기관 일군들, 인민군군인들, 시내 각계층 인민들이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하였다.

또한 ≪한민전≫평양대표부 대표가 이곳을 방문하였다.

해외동포대표단과 방문단들, 재중항일혁명투사, 항일혁명투쟁 연고자가족일행들, 조선주재 외교단과 무관단, 여러 나라 당대표단과 대표들,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과 대표들도 궁전을 찾아 주석께 경의를 표시하였다.

평양시내 여러 곳과 각지에 모신 주석의 동상에 꽃바구니 진정

조선중앙통신 주체91, 4월 1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에 즈음하여 15일 조선인민군장병들과 각지 인민들,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 ≪한민전≫평양대표부 성원들은 그이의 동상을 찾아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

평양시내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동상을 찾았다.

동상앞에는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주석의 동상에 당, 무력기관,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각급 기관, 인민군부대, 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학교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과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였다.

또한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과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 해외동포대표단과 방문단, 조선주재 외교단, 무관단, 여러 나라 대사관 문화 및 친선관계 일군들,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참가자들, 조선을 방문하고 있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국제기구대표들의 꽃바구니들도 진정되였다.

이날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인민보안성, 조선예술영화촬영소, 평양학생소년궁전 등 평양시내 여러 곳과 각지에 모신 주석의 동상에도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였다.

한편 함경북도 청진시에 모신 주석의 동상에 30여개의 중국동북지방의 꽃바구니증정대표단들과 청진주재 중국총령사관 성원들이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김일성주석 탄생 90돐기념 청년학생들 야회

조선중앙통신 주체91, 4월 1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기념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야회가 15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였다.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인 김영남, 전병호, 최영림 등이 야회에 참가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고 있는 해외동포들, 조선에 온 여러 나라 대표단들과 대표들을 비롯한 외국손님들, 조선주재 각국 외교대표들과 대사관성원들이 야회에 초대되였다.

야회참가자들은 주석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한 없는 경모의 정을 담은 ≪태양절을 노래하세≫, ≪만경대의 노래≫ 등의 선률에 맞추어 춤바다를 펼쳤다.

이날 주체사상탑, 당창건기념탑, 4. 25문화회관 앞마당을 비롯한 수도의 여러 곳과 도, 시, 군들에서도 청년학생들의 야회가 있었다.

각지에서는 주석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대합창공연이 진행되였다.



김정일총비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공연 관람

조선중앙통신 주체91, 4월 17일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16일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국태, 정하철, 김기남, 김용순, 외무성 제1부상 강석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장성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부장 지재룡,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리명수, 현철해, 박재경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공연에는 **김정일**령도자의 초청에 의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로씨야련방 싼크뜨-뻬쩨르부르그시장 울라지미르 아나똘리예비치 야꼬블레브일행과 우리 나라주재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안드레이 겐나지예비치 까를로브를 비롯한 대사관의 공식외교관들이 초대되였다.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수여 받은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은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조선의 모습≫, ≪압록강 2천리≫를 비롯한 합창곡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공연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공연에 초대된 로씨야의 손님들은 뜻 깊은 명절에 훌륭한 공연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김정일**령도자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 예술인들이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첫 공연

조선중앙통신 주체91, 4월 17일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첫 공연이 16일 저녁 평양시내 여러 극장들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에 대한 다함 없는 흠모의 정을 안고 태양찬가, 위인송가를 힘차게 불렀으며 21세기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의 특출한 위인적풍모와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높이 칭송하였다.

또한 그들은 자주, 평화에 대한 지향이 담겨 지고 민족적색채가 짙은 예술종목들을 펼쳐 보임으로써 축전무대를 다채롭게 장식하였다.

교예배우들은 국제, 국내교예축전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작품들, 인간의 높은 창조력과 뛰여난 재능을 보여 주는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축전조직위원회 장철 위원장, 강능수문화상, 문일봉재정상, 리원일로동상, 축전조직위원회 부위원장들, 관계부문 일군들, 시내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또한 조선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대사관성원들과 외국손님들, 해외동포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태양절기념련환무대

조선중앙통신 주체91, 4월 1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에 즈음하여 조선을 방문한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국제기구대표들과의 태양절기념련환무대가 16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련환무대에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국제기구대표들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부위원장 등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련환무대에는 경애하는 수령님을 여러 차례 만나뵙고 크나큰 은정을 받아 안은 영광을 지닌 접견자들과 그 자녀들, 조선인민들과 친숙해 진 여러 나라 인사들을 비롯한 외국손님들, 우리 예술인들이 출연하였다.

세계인민들과의 련대성조선위원회 위원장인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문재철위원장대리가 환영연설을 하였다.

세계평화리사회 명예위원장 로메쉬 챤드라와 에꽈도르 ≪볼룬따드≫출판사 사장 움베르또 오르띠스 플로레스는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던 영광의 나날들을 회고하면서 그이께서는 생애의 전기간 조선혁명뿐아니라 세계평화와 자주화위업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고 말하였다.

수리아인사 나임 할디는 자기가 작사작곡한 노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네≫를 불러 참가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중국 길림육문중학교 교장 진지암, 일본 에히메현대조선문제연구소 대표 나다 다까시, 조선과의 친선을 위한 영국협회 부위원장 더모트 하드쓴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빛나게 계승해 나가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받드는 길에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가 있다고 말하였다.

로씨야작가동맹 제1비서 이고리 랴삔은 시 ≪**김정일**동지께서 오신 날≫을 읊어 참가자들을 감동시켰다.

우리 예술인들과 학생소년들이 여러 종목의 노래와 춤을 무대에 올리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회 집행위원회 제9차회의

조선중앙통신 주체91, 4월 17일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회 집행위원회 제9차회의가 16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회 집행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으며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명예리사장, 여러 나라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 조선사회과학자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비슈와나스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2001년 사업총화보고에서 지난해에 주체사상국제연구소가 리사회 집행위원회 제8차회의에서 토의채택한 사업계획과 특별결의를 원만히 집행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주체사상세계대회준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주체사상연구조직들과 신봉자들이 뜻 깊은 올해에 주체사상선전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 세계의 평화와 진보, 자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계속 앞장에 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주체사상국제연구소의 2002년도 사업계획을 토의하였다.

아프리카지역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 모하메드 디우에 포파나가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회의에서는 유럽지역주체사상연구회 리사장 에드몽 쥬브가 자주위업을 전진시키기 위한 결의를 랑독하였다.

결의에는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업적을 끊임없이 연구체득하고 자주위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하며 **김정일**총비서의 사상과 리론을 깊이 연구하고 널리 보급하며 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활동을 벌려 나갈것이라고 지적되여 있다.

또한 반제자주력량과의 지지와 련대성을 부단히 강화하며 ≪세계화≫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며 2003년 주체사상국제연구소창립 25돐을 뜻 깊게 맞이할것이라고 결의에는 지적되여 있다.

이어 결의에 대한 지지토론들이 있었다.

회의에서는 또한 주체사상세계대회조직과 관련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세계 여러 나라 정당들의 토론회 진행

조선중앙통신 주체91, 4월 17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와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 올리신 불멸의 업적에 대한 세계 여러 나라 정당들의 토론회가 16일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에 즈음하여 조선을 방문하고 있는 여러 나라 당대표단들과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영국신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앤디 브룩스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시대를 대표하는 위인으로서의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은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력사가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를 빛나게 해결하신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민족해방투쟁과 인류자주위업실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였으며 나라를 광복하신후 건당, 건국, 건군의 위업을 실현하신 비상히 풍부한 경험과 정치경력,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력을 지니신 정치가이시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는 문제,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하는 문제,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키고 건전한 국제관계를 수립하는 문제 등 자주화위업실현에서 나서는 전략전술적문제들을 밝혀 주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심으로써 인류의 자주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함께 20세기를 빛내이고 이끌어 오신 탁월한 정치가, 비범한 령도자이시며 21세기의 태양이시라고 지적하였다.

보고자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혁명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시여 제국주의자들과의 치렬한 정치, 군사적대결에서 승리하시였다고 하면서 위대한 선군정치로 사회주의를 고수하신것은 그이의 특출한 공적으로서 인류력사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최태복비서의 축하연설과 따쥐끼스딴공산당 위원장, 브라질10월8일혁명운동 총비서,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몰도바공화국공산주의자당 중앙위원회 비서 등 여러 나라 당대표들의 토론이 있었다.

토론회에서는 **김정일**령도자께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주체의 태양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업적 영원하리

구국전선 주체91, 4월 15일



올해 4월15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주년이다.

20세기가 낳은 만고절세의 위인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 민족의 태양으로, 인류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오르신 4월15일 태양절을 우리 7천만 겨레는 세계 진보적 인류와 함께 가장 뜻깊게 기념하고 있다.

인류공동의 대명절인 태양절을 맞는 온 겨레의 가슴가슴은 위대한 주석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으로 끝없이 설레이고 있으며 그분께서 민족과 인류 앞에 쌓아올리신 영구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 보며 영생을 기원하고 있다.

김일성주석님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광휘로운 빛발로 우리 민족과 세계 진보적 인류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주체의 태양이시다.

주석님께서는 우리 민족이 망국의 암흑 속에서 재생의 빛을 찾아 헤매이고 세계 피압박민중들이 자주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변혁의 길을 모색하고 있을 때 사람중심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그들이 운명을 빛나게 개척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올바른 투쟁의 길을 밝혀주시었다.

주체사상은 변혁실천에서 확증된 불패의 진리성과 활력으로 하여 오늘 우리 민중 뿐아니라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세계 진보적 민중들의 투쟁을 힘있게 떠밀어주는 추동력으로, 시대의 공인된 지도사상으로 찬란히 빛을 뿌리고 있다.

주석님께서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범한 사상이론활동으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자주시대의 불멸의 기

김일성동지의 위업을 계승완성하자!

치이며 완성된 변혁이론이다. 현시대뿐 아니라 미래에 살게 될 사람들의 사상정신적 풍모도, 자주화된 새 세계의 면모도 완벽하게 밝혀주신 주석님의 주체사상이야말로 인류지성과 예지의 최고정화이다.

주석님께서는 시대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20세기를 억압받고 천대받던 나라와 민중들이 세기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역사적인 새 시대, 자주의 세계로 되게 해주시었다.

20세기는 **김일성**주석님의 사상, 이론, 활동으로 개척되고 발전되어 온 자주의 새 시대이며 주석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열렬한 칭송의 세기였다.

20세기 역사발전의 주류를 이루는 운동들은 실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자주시대를 개척하시고 민중의 자주위업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김일성**주석님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영원히 **김일성**민족의 넋으로, 인류자주위업의 횃불로 활력을 발휘할 것이며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과 더불어 인류의 심장 속에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실 것이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은 민중의 자주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대성인이시며 혁명의 태양이시다.

주석님께서는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어 조국광복을 이룩하시었으며 광복이후 이북에서 새 조국건설을 위한 투쟁과 여러 단계의 사회변혁과 사회주의건설을 현명하게 영도하시어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우시었다. 주석님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80성상 순간의 휴식도 없이 오로지 민중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시었으며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운명을 지키고 빛내어주신 절세의 애국자, 인간사랑의 태양이시다.

주석님께서는 뜨거운 민족애와 사랑으로 온 겨레를 통일의 한길로 이끌어주신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다. 주석님은 하늘과 같은 덕망으로 정견과 신앙, 과거지사를 개의치 않으시고 인간적 의리와 민족적 양심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조국통일의 한길로 이끌어주시었다. 하기에 한평생 반공의 길을 걸은 우익정객들도 연공애국의 인생전환을 하였으며 곡절많은 인생길을 걸어온 사람들도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게 된 것이다.

오늘 7천만 겨레는 한결같이 주석님을 조국통일의 구성, 민족의 어버이로 끝없이 경모하면서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우러러 모실 한결같은 결의에 충만되어 있다.

김일성주석님은 자주시대의 위대한 수령으로서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밑에 세계 진보적 민중들을 자주위업에로 인도하시어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신 인류의 태양이시다.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등 세계 6대주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태양절 기념집회와 노작연구토론회, 사진전, 회고모임 등을 조직하여 태양절을 뜻깊게 기념하고 있으며 권위있는 신문, 통신, 방송들이 태양절을 계기로 특간호, 특집방송을 조직하여 주석님을 ≪20세기가 낳은 걸출한 사상이론가≫,≪자주시대를 개척하신 위대한 태양≫,≪세계혁명의 위대한 수령≫,≪인간사랑의 화신≫,≪창조와 건설의 영재≫로 높이 칭송하고 있다.

김일성주석님은 비록 서거하시었으나 태양의 존함과 거룩한 영상, 인류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어제도 오늘도 7천만 겨레와 인류의 심장 속에 영생하고 계신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은 사상과 업적의 계승으로 영생하며 빛난다. 어버이 **김일성**주석님의 영생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간직된 영생이 아니다.

위대한 **김정일**영수님께서는 우리 7천만 겨레와 세계 진보적 인류의 마음을 담아 **김일성**주석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금수산기념궁전에 높이 모시었다. 그리하여 주석님께서는 생존시처럼 많은 겨레와 해외인사들을 만나주시며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신다.

영수님께서는 우리는 수령님을 추모하고 은덕을 잊지 않고 기억해 두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모두가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 숨쉬고 업적을 이어 나가야 한다, 수령님의 영생은 사상과 업적의 계승에 있다고 뜨겁게 가르쳐주시었다.

영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라는 신념의 구호를 제시하시고 주석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을 받들어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대국의 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고 계신다.

영수님께서는 주체연호와 태양절을 제정해 주시었고 어버이 주석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고 그분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을 명기한 사회주의헌법을 채택케 하시었다.

영수님께서는 주체의 태양아래 열린 자주통일의 길로 온 겨레를 이끌고 계신다. 민족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 어버이주석님의 통일친필비를 세우도록 하시고 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의 3대헌장으로 정립하시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대헌장인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내놓으셨다.

주석님의 통일유훈을 기어이 실현하시려는 것은 영수님의 철의 의지이다.

문익환목사를 뜨겁게 포옹해 주신 주석님의 동포애의 그 정으로 남녘동포들이 다 온 것처럼 반갑다고 박용길장로의 손도 따뜻이 잡아주시고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을 만나시어 통일성업에 애국애족의 성의를 바칠 수 있도록 대해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신 **김정일**영수님이시다.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도 영수님의 대용단에 의해 마련된 것이다.

해외교포들 속에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겨레의 곁을 떠나지 않고 후대들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계신다. 주석의 사상과 업적, 미덕을 그대로 이어받은 **김정일**영수님 계시어 민족의 앞날은 창창하다≫고 격정을 터친 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충정의 화신이시며 숭고한 도덕의리의 체현자이신 **김정일**영수님 계시어 어버이 **김일성**주석님은 사상과 업적, 덕망으로 영생하신다.

태양이 영원하듯 절세의 위인 **김일성**주석님은 영원히 우리 7천만 겨레와 세계 진보적 인류와 함께 계신다.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오늘 우리들은 주체의 태양을 우러러 만민이 터치는 축원의 송가가 하늘땅을 진감하는 역사적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돌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가장 뜻깊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경사로운 태양절에 즈음하여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시며 21세기의 찬란한 태양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다함없는 경모와 열화와 같은 칭송의 한마음을 담아 삼가 인사를 드립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은 우리 겨레가 주체의 영원한 태양을 맞이한 민족최대의 행운이었으며 **김일성**민족의 번영과 자주시대의 여명이 밝아온 역사적 사변이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20세기를 영광스러운 **김일성**조국으로 찬란히 수놓아오신 위대한 혁명가, 걸출한 정치가, 불세출의 위인이셨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자주시대의 유일한 향도지침을 마련해주신 천재적인 사상이론가이시며 민족재생의 새봄을 안아오신 조국광복의 은인이시며 미일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는 신화적 기적을 창조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은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로 가장 존엄있고 위력한 주체형의 당과 국가, 군대를 창건하시고 그 어떤 시련과 광풍속에서도 흔들림없이 승리만을 이룩해가는 자주정치의 시원을 열어놓으셨으며 이북 땅위에 자주로 존엄높고 자립으로 위력하며 자위로 강력한 민중중심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주체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십니다.

경애하는 수령님은 한평생 민중행 열차를 타시고 숭고한 민중사랑의 서사시를 엮어가시며 수령과 민중의 혼연일체를 실현하신 사랑과 믿음의 위대한 정치가이십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천리혜안의 선견지명으로 혁명위업계승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어 주체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만년초석을 마련해주신 것은 조국과 민족, 시대와 역사앞에 쌓아올리신 공적중에서 가장 성스럽고 위대한 불멸의 대공적입니다.

외세에 의해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제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3대헌장을 제시하시고 민족자주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온 세계 자주화위업의 승리의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현명하게 영도하여 오시었기에 인류는 어버이수령님을 만민의 어버이, 혁명의 대성인으로 열렬히 흠모하며 우러러 따르고 있습니다.

진정 위대한 사상과 비범한 영도력, 숭고한 덕망으로 민족과 인류의 자주위업에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주체의 영원한 태양, 만민의 영원한 어버이로 천세만세 영생하실 것입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위업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어 세기를 이어 백두의 혈통으로 꿋꿋이 이어지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필승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장구한 기간 경애하는 수령님의 가장 친근한 동지, 충직한 전우가 되시어 민중을 위한 길에 언제나 함께 계시며 탁월한 사상이론과 정력적인 영도, 특출한 정치실력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청사에 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셨습니다.

만고절세의 위인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천출위인상은 특히 주체의 붉은기를 높이 드

시고 20세기 마지막 연대에 수놓으신 거룩한 혁명실록으로 찬연히 빛나고 있습니다.

고결한 충정의 화신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류사가 일찍이 알지 못하는 수령영생위업을 최상의 경지에서 실현하시어 우리 민족이 영원한 수령님식솔, 백두산식솔로 행복과 번영을 누려가도록 하시었습니다.

백두의 기상을 천품으로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독창적인 총대철학을 구현하시어 선군정치방식을 창시하시고 실현하시어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의 횡포한 도전과 강권행위를 짓부수고 조국과 민족, 주체사회주의의 운명을 구원하시었으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로 비약하는 경이적인 현실을 펼치고 계십니다.

희세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가 있기에 오늘 주체조선은 정치강국, 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위용 떨치고 이북 민중은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군대, 우리 제도제일주의 구호 드높이 동지애의 노래를 선군시대의 진군가로 더욱 높이 부르며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불사신마냥 일떠서 끊임없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대용단으로 민족자주의 원칙을 구현한 6.15공동선언을 마련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자주통일의 대문을 열어나가는 새 시대를 펼쳐주시었습니다.

비범한 지략과 천재적 영도실력, 투철한 혁명적 원칙성으로 세계정치를 주도해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셔 주체조선의 권위와 존엄은 하늘에 닿고 공화국은 사회주의의 보루, 평화의 성새로 세인을 끝없이 경탄시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수령과 그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 희세의 위인이시며 우리 민족과 인류에게 광명을 주시는 21세기의 찬란한 태양이십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며 세기를 이어 영수복, 장군복을 받아안은 행복과 자긍심에 넘쳐 있는 우리 남녘민중은 영토가 크고 인구수가 많아서 대국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을 모실 때 작은 나라도 대국으로, 강국으로 된다는 역사의 천리를 가슴 깊이 절감하고 있으며 장군님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여 통일강성대국을 안아오고야 말 드높은 결의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한민전과 변혁운동대오를 위대한 장군님세상에 절대적인 지지자, 관철자, 장군님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열혈투사들의 대오로 더욱 튼튼히 다지며 각계 민중속에 **김일성**, **김정일** 천출위인상을 더욱 깊이 심어주어 온 남녘땅에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숭배열기가 활화산처럼 터져오르게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걸맞게 대중적인 반미반전투쟁을 과감히 벌여 내외호전광들의 반북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며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는 자주통일구호를 더높이 치켜들고 민족공조와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가열찬 투쟁으로 올해 민족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마련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녕과 건강은 조국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결정적 담보이며 전인류의 한결같은 염원입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뜻깊은 태양절의 이 아침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일치한 소망을 담아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영생을 기원하며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부디 옥체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91 (2002)년 4월 15일
서울

어버이주석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주체의 태양을 우러르는 만민의 송가가 온 우주에 차 넘치는 가운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돌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는 우리 전사들과 각계민중은 어버이주석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주석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삼가 이 글을 올립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오늘은 일만년 민족사에 처음으로 위대한 태양이 솟아오른 7천만겨레의 대명절이며 영원무궁할 주체시대의 여명이 밝아온 역사적인 대축일입니다.

인류가 처음 맞이하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 평생은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영도, 숭고한 덕망으로 불멸의 금자탑을 쌓아올리시며 20세기를 빛내이신 찬란한 태양의 역사입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후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천재적 사상이론가이시고 총대로 조국을 찾아주신 광복의 은인이시며 미일침략자들을 타승하신 백두의 천출명장이십니다.

온 지구를 덮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오늘 진보적 인류에게 혁명승리의 향방을 밝혀주는 투쟁의 좌표,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의 무한한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주석님께서는 건당, 건군, 건국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고 여러 단계의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어 주체조선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온 인류가 경탄하며 부러워하는 이상국가로 건설하시었습니다.

이민위천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신 어버이주석님께서는 이북사회를 사랑과 믿음, 일심단결의 꽃이 활짝 피어난 주체의 대화원으로 가꾸시고 누구나 다 보람과 행복에 넘쳐 살아가는 민중복락의 지상낙원으로 펼쳐주시었습니다.

분단조국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신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략인 조국통일3대헌장을 마련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시었습니다.

주체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승리로 영도하시었기에 인류는 수령님을 세계정치의 대원로로, 영원한 스승으로 높이 우러르고 있습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 천리혜안의 예지로 주체혁명위업의 영도계승문제를 완전무결하게 해결하신 대위업은 시대가 흐를수록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릴 것입니다.

진정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영도, 불멸의 업적과 고매한 덕성으로 20세기 자주시대를 빛내이신 주체의 찬란한 태양, 영원한 태양이십니다.

우리 민중은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절세의 위인을 민족의 어버이로 모신 한없는 영예를 새삼 절감하면서 또 한 분의 태양을 민족의 영수로 모신 수령복, 장군복에 격정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위업완성을 필생의 사명으로 삼으시고 수십여성상 혁명청사 위에 불멸의 혁명실록을 아로새기시었습니다.

수령영생위업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나게 실현하신 위업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결한 충정과 도덕의리의 정화이며 혁명역사에 영원히 빛날 특출한 업적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총대중시사상을 계승발전시키신 독창적인 선군혁명사상으로 제국주의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었으며 주체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길 수 있는 필승불패의 전략을 밝혀주시었습니다.

주체사상에 선군혁명노선을 더한 21세기 **김정일**혁명사상은 오늘 이북사회에 구현되어 군사,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북민중은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군대, 우리 제도가 제일이라는 혁명적 구호를 높이 들고 연일 기적적 위훈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태양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주석님의 통일유훈을 구현하시어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발표하신 것은 조국통일사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획기적 사변으로 됩니다.

어버이수령님의 대를 이어 국제적인 수령으로 존경받는 위대한 장군님의 절대적 권위로 하여 오늘 주체조선의 자주적 존엄은 하늘에 닿고 21세기태양을 추앙하는 진보적 인류의 송가는 천지를 진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사상이론에서나 영도력에서나 풍모에서나 위대한 수령님 그대로이신 위인 중의 위인, 수령 중의 수령이십니다.

우리 청년투사들과 각계민중은 온 인류가 흠모하는 불세출의 영웅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통일혁명의 최고영도자로 모시는 한 조국통일은 확정적이라는 철석같은 신념으로 어버이주석님의 통일유훈을 관철하는 애국투쟁에 총분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단히 사상을 단련하여 엎어놓아도 매달아놓아도 수령만세, 장군만세를 부르는 2000년대의 열혈투사, 장군님의 향도따라 뜻과 운명을 같이하는 신념의 동지가 될 것입니다.

어버이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의 충직한 전사들인 우리들은 두 분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통일혁명위업을 널리 선전하여 각계민중의 숭배열기가 온 남녘땅에 대하로 굽이치게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장군님께서 마련하여 주시고 수령님의 통일유훈이 구현된 6.15공동선언을 결사관철하는 투쟁에서 선봉이 되고 주력이 되어 올해를 민족자주통일의 결정적 승리의 해로 빛내일 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건강과 안전은 수령님의 당부이며 인류의 염원입니다.

우리 청년전사들은 애국민중과 함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어버이주석님의 영생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행복을 삼가 축원합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영도따라
자주민주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청년주체주의자대오
통일여명편집국 백두산편집부
인터넷구국의소리편집인
주체 91(2002)년 4월 15일
서울

북남관계활성화로 일감 많아 지는것은 기쁜 일

평양시민들 합의 환영, 관계발전을 기대

김대중대통령의 특사인 림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이 3일부터 6일에 걸쳐 평양을 방문,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남측 특사와 일행을 접견하시고 김대중대통령의 친서를 전달 받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용순비서와 남측 특사사이의 협의가 있은 끝에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였다.

평양에서는 6일 11시의 방송보도시간에 공동보도문에 대한 첫 보도가 있은 다음 텔레비죤, 신문지상을 통하여서도 무게 있게 보도되였다. 7일부《로동신문》은 공동보도문을 1면 어깨에 취급하였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위기를 타개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북남관계를 원상회복하여 6.15공동선언리행의 새 전기를 마련한 공동보도문의 중요성을 짐작케 한다.

소식에 접한 시민들은 민족앞에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동결되고 있었던 북남관계가 회복된다고 기뻐하고 있다.



북남수뇌분들 뜻 꽃피워야

회담은 당초 일정을 연장하여 진행되였다.

상급회담을 비롯한 북남사이 여러 회담들도 일정을 연장하면서 진행된 일이 많다.

회담관계자들의 표정에서는 조성된 난국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풀어야 하며 풀어 나갈수 있다는 의지와 자신을 엿볼수 있었다.

물론 이번 회담에서도 합의를 이루어 내기까지에는 고충이 있었으나 그들의 얼굴에 애를 태우거나 비관적인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중에《걱정마시오. 앞으로 정세는 좋아 질것이요.》라고 하면서《(북남관계가 활성화되면) 여러분들도 바쁘게 된다.》라며 미소를 띄워 보였다.

쌍방은 조국통일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해야 함을 거듭 확인하였다.

5일 오후 3시 50분부터 시작된 오찬회 연설에서 당중앙위원회 림동옥1부부장은《공동선언을 탄생시키신 북남수뇌분들의 뜻을 훌륭히 꽃 피워야 할것입니다.》라고 말하였으며 림동원특사는《두분 정상의 뜻을 받들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6.15공동선언을 착실히 리행해 나가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실천이 더 중요하다

5일 저녁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아리랑》의 총시연회가 진행, 연습이 진행되고 있는 5월1일경기장은 관계자들이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있었던 시간에도 밝은 빛을 뿌리고 있었다.

지금 평양시민들의 최대의 관심사의 하나는《아리랑》공연이다. 공동보도문에 지적된대로 북남관계가 원상회복되면 여러 협력, 교류사업이 재개될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게 되면 남조선인민들이《아리랑》공연을 참관할 기회도 생길것이다.

저녁 8시의 보도시간에 공동보도문의 보도에 접한 박두선애국차봉사사업소의 60살 되는 운전수는 이런 상황을 념두에 두면서 북남관계가 활성화되여 일감이 많아 진다면 참으로 기쁜 일이라고 심정을 토로하였다.

또한 수많은 평양시민들은 이제까지 미국과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에 의해 북남사이 관계발전에 엄중한 사태가 빚어 지고 북남관계가 동결되군 하였는바 그 체험으로부터 합의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더 중요하고 실천을 위하여서는 민족끼리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동보도문을 보던 한 시민은 6.15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한 1항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 나갈데 대한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에 따라 그동안 일시 동결되였던 북남관계를 원상회복하기로 한 2항의 내용을 일일이 지적하였다.《통일은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이루어야 한다. 공동보도문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천이 더 중요하다. 반통일세력을 물리쳐 꼭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어조를 높이였다.

관계자들은 그 준비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태양절을 맞이하는 평양시내는 지금 밝은 분위기에 넘쳐 있다.

강이룩 기자
2002/04/10 조선신보

남북단체 공동성명

남과 북의 각계단체 대표들의 접촉이 4월 11일과 12일 금강산에서 있었다

남과 북의 각계단체들은 민족의 단합과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서 올해의 통일운동이 대단히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 한다



1. 남북 단체들은 지난 4월 5일 평양에서 쌍방 당국사이에 발표된 남북공동보도문을 적극 지지 환영하며 이를 힘있게 실천해 나갈 것이다

2. 남북단체들은 올해통일운동을 6.15공동선언에 따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외세에 의한 전쟁위험을 제거하며 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중심을 두고 진행해 나갈 것이다.

3. 남북단체들은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접촉과 대화를 더욱 발전시켜 올해 통일운동을 활성화 해 나갈 것이며 그 길에서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단체들과 함께 손잡고 나갈 것이다.

4. 남북단체들은 6.15민족통일대축전과 8.15민족공동통일행사, 그리고 남북여성통일대회, 남북청년학생 통일행사를 비롯한 각 부문별 통일행사들을 진행하며 이 통일행사들을 진행할 장소 등 구체적 문제들을 계속 협의 확정해 나갈 것이다.

5, 남북 단체들은 연대와 단합을 도모하고 협력과 교류를 더 활발히 진행해 나갈 것이다.

2002년 4월 12일 금강산

남북 금강산상봉 일부일정 합의

28일 방북단 100명 先금강산행



오는 28일 4차 이산가족 방북단 100명이 먼저 금 강산을 찾아 2박3일간 재북 가족 및 친척과 만나고, 이어 다음달 1일에는 북측 이산가족의 재남 가족 및 친척들이 방북하게 된다.

대한적십자사는 14일 남북 양측이 전날 오전 판문점의 연락관 접촉과 오후 전화통화 등을 통해 금강산 상봉 방안과 관련된 일부 사항을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달 1일 금강산에서 북측 이산가족과 상봉할 재남 가족 및 친척들은 북측 가족 1명 기준으로 한번에 재남 가족 5명까지 만났던 전례에 따라 500명의 방북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인원 문제가 아직 남북간에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또 상봉 장소나 횟수, 숙소 등에 대해 아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따라≪오는 18일께 의견 조율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한적은 전했다.

또 상봉 횟수나 장소, 숙소 등 세부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남측 답사팀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금강산 현지를 둘러보기로 하고 북측은 안내 등 편의를 제공하기 로 했다.

남북 적십자 양측은 또 건강이나 사망 등의 이유로 교체대상자를 각각 통보했다.

북측은 공훈예술가 황영준(82) 화백이 사망함에 따라 2차 방문단 후보명단에 포 함됐던 리은주(74)씨를 4차 상봉 대상자로 대신 선정했고, 남측은 건강이 악화된 신 용익(77씨를 박재례(64.여)씨로, 박분순(78.여)씨를 염경빈(남.66)씨로 각각 교체했다.

심규석 기자

2002/04/15 연합뉴스

40.6%, 아리랑 공연보러 평양 가고파

아리랑 축전에 대한 대학생 5백20명 여론

10만 명이 참가하는 아리랑 공연은 이번 달 29일부터 두 달간에 걸쳐 평양 5월 1일 경기장(15만명 수용)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아리랑 축전 기간동안 평양시와 묘향산을 비롯한 명승지를 개방할 것이라는 것도 또 다른 관심사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북은 아리랑 축전 관광객이 20만 명 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관광객 맞이 준비사업에 주력하고 있고 이미 아리랑 공연이 마지막 종합훈련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에 전대기련 부울지부에서는 부산, 김해지역 7개대학(경성대, 부산교대, 부산대, 부산외대, 신라대, 인제대, 해양대)생 5백2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1일(목)부터 12일(금)까지 이틀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해 아리랑 축전을 얼마나 알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설문조사는 남녀학년별 구분없이 무작위 추출로 질문지법으로 진행됐다.

20일도 채 남지 않은 아리랑 축전에 대해 부산, 김해지역 대학생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아리랑 축전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가에 대해≪들어본 적 없다≫(49.6%),≪몇 번 들어봤다(17.5%),≪자주 들어봤다≫(17.1%),≪한두 번 들어 봤다≫(15.8%)로 답해 50.4%가 들어본 적이 있는 반면 절반에 가까운 49.5%의 학생들에게는 아리랑 축전이 금시초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북의 아리랑 축전 준비가 완성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데 비해 아리랑 축전을 알고 있는 남측 대학생들은 그리 많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리랑 축전을 들어봤다는 학생들 중에서는 뉴스나 방송(30.9%)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선배, 친구, 가족 등 주위 사람(26.7%), 포스터(20.6%), 신문이나 잡지(15.6%)에도 고르게 응답했다.

일각에서는 아리랑 축전에 대해 월드컵 분위기를 흐리기 위한 맞불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리랑 축전 개최 목적에 대해≪남측의 월드컵 분위기를 흐리기 위해≫라고 답한 학생은 3.3%에 불과했고≪민족의 단합과 평화염원≫(46.5%)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응답했다. 이어≪관광사업을 통한 외화벌이≫(17.5%),≪국제사회를 향한 평화의 메시지 전달≫(15.4%),≪자국문화 우월 과시≫(11.3%)가 뒤따랐다.

아리랑 축전 성패의 관건이 되는 아리랑 공연 관람을 위한 북측 방문에 대해≪꼭 갈 것이다≫(2.1%),≪가능하면 가고싶다≫(38.5%)로 전체 응답자의 40.6%가 가고 싶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이 북에 가고 싶은 이유 1위는≫북의 현실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59.2%)였고≪남북통일에 조금이라도 밑거름이 되고싶다≫(27.5%)와≪10만이 참여하는 대집단체조를 직접 보고싶다≫에도 응답했다. 한편 가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굳이 가야할 이유를 모르겠다≫가 91.9%로 절대 다수를 차지해 아리랑 축전에 대한 무관심을 그대로 드러냈다.

아리랑 축전 관광을 위한 비용이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일반인들이 부담하기에는 다소 많은 액수가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41.7%의 학생들은≪금강산 관광보다 더 많은 통일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아리랑 축제에 정부는 당연히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에 답했고≪1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은 낭비이고 경비는 개인이 부담해야 할 몫이다≫(31.5%),≪정부보조금 유무는 상관없다≫(20%)라는 의견도 있었다.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했던 북녘 땅을 밟기 위해 어떤 이동수단과 경로로 갈 것인가는 북을 방문하는 사람에게는 큰 관심사일 것이다. 전체 응답자 중 61.5%는≪경의선 연결을 통한 철도편≫이라고 답해 남과 북을 잇는 경의선 복구에 대한 열망을 표했고 그 뒤로≪서울.평양 직항로를 통한 임시 비행기편≫(14%),≪금강산.원산.평양을 잇는 고속도로≫(13%),≪바닷길을 거쳐 배편으로 이동≫(8.8%)이 이어졌다.

관광지에서 새로운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관광객에게는 설렘의 대상이다. 더구나 분단의 아픔 아래 반세기 동안 손잡아 보지 못했던 한민족을 만난다는 것은 더 없는 감동으로 와 닿을 것이다.

대학생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대상은 북의 대학생(64%)이 단연 으뜸. 어딜 가나 또래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 듯 동시대를 살아가는 남북의 대학생들이 만난다면 정말로 하고픈 말들이 많을 것이다. 북의 대학생 다음으로는≪**김정일** 국방위원장≫(19%)을 꼽아 북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고≪공연 출연자≫(8%)와≪총연출 및 지휘자≫(5.4%)에 응답한 13.4%의 학생들은 아리랑 공연 관계자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북은 아리랑 축전 기간동안 평양을 중심으로 개성, 함흥 등의 도시와 백두산, 묘향산 등을 둘러 볼 수 있는 관광코스를 마련하면서 전례없는 문호개방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학생들은≪평양 시내나 거리≫(45%)를 선호했고≪역사유적지≫(22.1%)와≪북의 대학≫(19.2%),≪북의 명산≫(10%) 관광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남북 우호관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34%)와≪아리랑 축전기간에는 우호적이겠지만 축전 이후까지 지속되진 않을 것이다≫(44.2%)를 합친 78.2%의 대학생들은 아리랑 축전이 남북관계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측면의 구체적인 양상으로는≪육로, 항로, 해로가 전면적으로 개방됨으로써 남북문화교류의 활로를 열어줄 것이다≫(42.4%),≪대규모 관광단이 북을 방문하면서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고 한민족이라는 인식이 높아질 것이다≫(38.3%),≪교류와 협력, 단결과 화합의 기운이 높아지면서 6.15공동선언이행이 촉진될 것이다≫(19.3%)고 답했다.

한반도에서는 같은 기간에 두 가지 큰 행사를 치르게 되었다. 남녘에선 월드컵, 북녘에선 아리랑 축전. 이에 따라 두 행사를 잇따라 관람할 수 있는 코스 마련, 월드컵 문화행사와 아리랑 공연 일부 교차 등의 월드컵과 아리랑 축전 연계에 대한 이야기가 조심스레 오가고 있다.

이와 관련,≪두 행사를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이다≫(21.2%),≪일시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겠지만 기대만큼의 효과는 의심스럽다≫(15%),≪두 행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9%),≪모르겠다≫(3.8%)에 비해≪의도는 좋지만 우려되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51%)에 많은 학생들이 응답해 아리랑 축전과 월드컵 연계방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전대기련 부울지부

2002/04/15 유뉴스

거짓을 밝혀내는 6.15공동선언

통일연대, 6차 범국민행동의 날 열어



4월 15일 낮 12시, 탑골공원에서 ≪통일연대 6차 범국민행동의 날≫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반북친미의식이 연북반미의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6.15 공동선언은 과거의 모든 거짓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15일 낮 12시 탑골공원에서 열린≪통일연대 6차 범국민행동의 날≫에서 김규철 서울 통일연대상임대표는 6.15공동선언의 성과를 이렇게 강조했다.

김規철 상임대표는 대회사를 통해≪민주당 경선에서 보듯이 더 이상 색깔론에 국민들은 놀아나지 않는다≫며≪6.15공동선언은 지금까지 거짓에 속아왔던 우리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혀주고 있다≫고 6.15공동선언 이후의 국민의 의식변화를 설명했다.

김규철 상임대표는 또,≪10년 전 지금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 부시가 방문할 때 우리 국민들의 반대는 8%였지만, 아들 부시가 방문할 때는 83%가 반대했다≫며≪6.15공동선언으로 우리 국민들의 반미의식이 놀라울 정도로 성장한 것을 보여준다≫고 공동선언의 성과를 덧붙였다.

대회사에 이어 통일연대 김강현 대외협력국장이 지난 10-12일에 금강산에서 있었던 남북민간급 실무접촉 결과에 대해 보고하며≪올해 통일운동은 여성, 청년, 환경 등 부문행사를 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차원의 대화도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다음으로 이천재 서울연합 상임의장은≪6.15공동선언 위협하는 미국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정치연설을 통해≪일본에게 2차대전의 항복을 받으러 이땅에 들어온 미군이 아직 나가지 않고 있는 한반도는 아직 2차대전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50여년 간의 주한미군의 주둔을 비판했다.

이천재 상임의장은≪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는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며≪남북사이의 자유로운 교류, 협력을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천재 상임의장은≪지금 이 정권이 공기업을 헐값에 외국에 매각하여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평화를 팔아먹는 행위이며 미국의 무기를 사들이는 것은 냉전을 팔아먹는 범죄행위≫라 규정하고≪이러한 범죄행위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권력자들이 분단체제를 통해 모든 양심세력들을 탄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천재 상임의장은≪우리가 대통령도 있고, 국무총리도 있어서 식민지가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역사상 외국군대를 불러들이는 나라치고 식민지 아닌 나라 없었다≫며≪우리민족끼리 단합하여 통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며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연설을 마쳤다.

한편, 이날 범국민행동의 날은 집회 참가자가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이천재 상임의장의 정치연설 동안에 탑골공원 주위의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이 큰 관심을 보이며 집회 대열에 동참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통일연대 범국민행동의 날은 이번이 6번째로 6.15공동선언을 이행하자는 취지에서 매달 15일 탑골공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장동렬 기자
2002/04/15 통일뉴스

미국은 침략자, 약탈자, 전쟁의 화근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13일

우리 민중,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미국은 침략자, 약탈자, 전쟁의 화근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삼척동자에게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죠. 오직 이회창과 같은 극소수의 사대매국, 반통일분자들만이 우방이요 뭐요하며 미국을 할애비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미국은 침략자, 약탈자, 전쟁의 화근≫이라는데 관해 유진명씨 모시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유진명 :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 지금 각계 국민들속에서는 침략자이고 약탈자이며 전쟁의 화근인 미국을 저주규탄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데요. 이건 침략자, 약탈자, 전쟁의 화근인 미국에 대한 응분의 표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침략자, 약탈자, 전쟁의 화근인 미국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모셨는데요. 먼저 미국이 해방자, 원조자가 아니라 침략자라는데 대해서 얘기 주셨으면 합니다.
유진명 : ≪한국≫을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군사기지로 장악하고 이를 발판으로 해서 이북을 병탄하고 나아가서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려는 건 미국의 변함없는 야망이고 그런 전략인 겁니다. 미국은 바로 이러한 침략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8.15광복후 해방자의 탈을 쓰고 이 땅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면서 실제적 통치자로 행세해왔어요. 그건 1945년 9월 8일 인천상륙시에 미태평양육군총사령관 맥아더가 공포한 포고문에서 명백히 나타났죠.
맥아더는 ≪포고문≫ 제1호에서 ≪본관은 본관에게 부여된 태평양 미육군의 최고권한을 가지고 이로부터 북위38도 이남의 지역과 그 주민에 대한 모든 행정권을 당분간 본관의 권한하에서 시행함. 주민은 본관과 본관의 권한하에서 발표한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것. 점령군에 대하여 반항행위를 하거나 또 질서보안을 문란케 하는 자는 용서없이 엄벌에 처함.≫라고 선포했어요.
이렇게 군정을 선포한 미국은 곧 38선 이남지역에서 민중의 창의에 의해 설립된 인민위원회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그대신 친미친일세력들을 규합해서 식민지정권을 창출하고 식민지통치를 실시했고 각종 파쇼적인 악법들을 조작함으로써 식민지통치체계를 확립했죠. 이것은 미국이 해방자가 아니라 철두철미 침략자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자 : 그렇습니다. 미국이 침략자이고 미군이 침략군이라는 건 그들이 바로 6.25전쟁도발의 진범인이라는데서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보는데요.
유진명 : 그렇죠. 6.25전쟁은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에 의해 강행된 침략전쟁이었어요. 미국침략자들이 도발한 6.25전쟁은 이북을 요람기에 없애버리고 저들의 식민지를 한반도전역으로 확대해 이 땅을 저들의 대륙침략의 전략기지, 전초기지로 전변시키려고 획책한 침략전쟁이었죠. 미국은 이 전쟁에 저들의 최신군사장비로 무장한 육군의 3분의 1과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함대 대부분, 그리고 15개 추종국가 군대들과 국군을 비롯해 무려 570여만의 대병력을 동원했고 막대한 군사비와 군수물자를 탕진하면서 세계전쟁사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야수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썼어요. 이 전쟁에서 미국은 우리 겨레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가져다줌으로써 침략군대의 야수적 본성과 생리를 여지없이 드러내 놓았죠.
사회자 : 미국은 휴전후에도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이 땅을 계속 식민지군사기지로 거머쥐고 파쇼적인 식민지폭압통치와 북침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이지 않았습니까.
유진명 :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1954년 11월 군사경제원조에 관한 협정과 한미회담의사록을 조작하고 이를 통해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장악했고 이 땅을 미국의 극동침략전략의 전초기지로 꾸리기 위해 1957년 7월에는 주한미군의 핵무장화를 공개하고 도쿄에 있던 유엔군사령부를 이 땅에 옮겼어요. 또한 유엔군철수문제가 일정에 오르게 되자 이승만을 사주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게 하고 주한미군의 장기강점을 합리화했죠. 뿐만 아니라 미국은 식민지통치와 파쇼독재, 영구분열을 반대하는 우리 민중의 4.19민중봉기,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 5.18광주민중봉기 등을 가혹하게 탄압말살하도록 역대 ≪한국≫위정당국자들을 배후에서 조종했습니다.
사회자 : 미국은 침략자일뿐 아니라 가장 음흉하고 파렴치한 약탈자가 아닙니까. 그건 미국이 이 땅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이르는 곳마다에서 약탈행위를 일삼은 것만봐도 잘알 수 있잖아요.
유진명 : 미국은 우리 민족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일제재산을 우

리게게 돌려줄 대신 적산이라는 이름밑에 약탈해 저들의 것으로 만들었죠. 미국이 탈취한 재산에는 주식회사 총재산의 91%와 공익부문 총투자액의 94%에 해당하는 공기업체들을 비롯해 일본인이 점유하고 있던 철도, 선박, 체신시설, 금융기관 등 주요경제명맥과 토지가 속해 있어요. 이렇게 경제의 명맥을 일시에 탈취한 미국은 ≪한국≫경제의 실제적인 지배자로 등장했죠. 또한 미국은 이른바 원조라는 미명하에 퇴화된 잉여상품과 낡아빠진 무기를 판매처분함으로써 막대한 이윤을 짜냈고 민족경제를 파괴하고 이 땅을 잉여상품판매시장으로 전변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경제명맥을 장악하고 차관과 직접투자를 통해 ≪한국≫경제를 저들에게 철저히 의존해 연명하는 식민지하청경제로 만들어 놓았죠. 특히 80년대 들어와서는 노골적인 시장개방압력을 통해 ≪한국≫경제에 대한 지배와 약탈을 더욱 강화했죠. 미국이 1987년 7월 악명높은 미통상법301조를 발동해 강요한 시장개방요구는 그 수법과 약탈성에 있어서 유례없이 파렴치한 것이고 우리 국민들로부터 해마다 60여억달러를 빼앗아가는 약탈적인 것이었습니다.

사회자 : 미국의 약탈적 행위는 주한미군유지비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세계적으로 침략적인 외국군사기지철수는 시대적 요구로, 막을 수 없는 추세로 되고 있죠. 그러나 이 시대적 흐름과는 달리 이 땅에서만은 미국의 오만한 침략적, 약탈적 책동으로 해서 미군기지들이 철수되기는 고사하고 더욱 확대강화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피땀을 짜내는 악의 근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유진명 : 미국은 주한미군유지비를 계속 늘리면서 막대한 돈을 받아먹고 있어요. 1990년대중엽부터 3억달러를 넘어선 미군유지비가 1997년에는 3억6300만달러, 지난해에는 4억4000만달러에 달했고 올해는 5억8000만달러로 올리려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죠.

미국은 이 땅에 부동산을 사용료도 내지 않고 마음대로 이용하는 방법으로도 해마다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미군기지가 차지하고 있는 근1억평의 땅을 돈으로 계산하면 무려 12억9000만달러에 달해요. 또 미군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훈련장비용은 연간 1100여만달러이고 세금을 내지않고 사용하는 군사시설비는 연간 1억3800만달러에 달합니다.

미국이 1995년부터 1997년사이에 주한미군유지를 위한 간접비로 얻어낸 이득만도 무려 67억6200만달러에 달하죠. 결국 미국은 해마다 수십억달러를 주한미군유지비의 명목으로 빼앗아가고 있어요. 미국은 이렇게 걷어들인 유지비를 주한미군무력을 증강하고 군사장비를 현대화하며 군사기지와 시설을 보강하는 등 한반도에서의 대결과 긴장격화, 새전쟁도발책동에 돌리고 있죠. 미국이 1989년부터 2000년까지 주한미군연합방위증강사업이라는 구실로 공중공격훈련장꾸리기 등 100여개 군사대상강화에 10억2500만달러를 탕진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사회자 : 미국은 침략자, 약탈자일뿐 아니라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증대시키며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전쟁의 화근이 아닙니까.

유진명 : 옳습니다. 미국은 지난 세기 6.25전쟁을 일으켜 우리 민족에게 한차례의 전쟁참화를 덮씌우고도 부족해 이 땅에 근4만여명의 미군과 1000여개의 핵무기를 비롯한 군사장비들과 대량살육무기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전쟁화약고로, 핵전초기지로 전변시켰어요. 그리고 이북을 반대하는 군사도발과 대규모 북침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이면서 이북을 침략하기 위한 기회만 노려왔죠. 1968년 1월 프에블로호사건과 1969년 4월 대형간첩비행기 ≪EC121≫사건, 1976년 8월 판문점사건, 1994년 12월 헬기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군사도발과 팀스피리트한미합동전쟁연습, 을지포커스렌즈, 독수리를 비롯한 각종 북침전쟁연습만 봐도 미국이 이북을 침략하기 위해 얼마나 광분해왔는가를 잘 알 수 있게 하죠.

북침전쟁을 위한 미국의 군사적 도발건수는 휴전후 1999년에 이르기까지 총15만여건에 달하고 북침전쟁연습은 큰 규모의 것만 해도 무려 1만여건에 이르고 여기에 동원된 병력은 연 2000만명에 달합니다. 특히 미국은 제2북침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27-98≫을 짜놓고 각종 합동전쟁연습들의 규모와 강도, 횟수를 대폭 늘리고 있죠. 미국은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60만명의 미 지상군과 5내지 7개의 항공모함편단, 200척의 함선, 1200대의 전투기를 들이밀 것이라고 공식발표했어요. 이건 미국이 한반도에서 제2의 북침전쟁을 기어이 도발하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회자 :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은 지난해 1월에 집권한 부시정권에 의해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경매파들로 꾸려진 부시행정부는 집권 첫날부터 이북을 제1주적으로 선포하고 있지도 않는 이북의 핵위협, 미사일위협, 대량살상무기위협을 떠들면서 이북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일삼는 한편 북침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유진명 :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는군요.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 부시는 이북을 ≪악의 축≫이라는 망언을 연발하면서 주한미군의 전투력을 증강하고 막대한 전쟁장비를 강매하고 있어요. 더 욱이 엄중한 것은 부시집단이 이북에 대해 전면적인 핵무기사용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최근 지난 시기에는 볼 수 없었던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합동전쟁연습을 통합해 최대규모의 북침전쟁연습을 벌였어요. 이건 부시행정부가 저들의 침략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 민족을 멸살하기 위한 핵전쟁도 서슴없이 강행하려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자 : 제반 사실은 미국이야말로 우리 민족과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침략자, 약탈자이며 전쟁의 화근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략자, 약탈자, 전쟁의 화근인 미군이 이 땅에 아직까지 둥지를 틀고 주인행세를 하면서 우리 민중에게 온갖 고통과 재난, 불행을 덮씌우고 있으니 어디 될일입니까. 각계 국민들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국의 책동에 경각심을 높이며 침략과 약탈, 전쟁의 화근인 미국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성전에 적극 나서야 할겁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유진명 : 감사합니다.

사회자 : 우리 민중, 우리 민족중에 미국, 미군에 의해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하겠죠. 찢여 죽여도 가슴속 원한을 씻을 수 없는데 미군유지비까지 꼬박꼬박 섬겨바치고 있으니 참으로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고 민족의 수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거족적인 반미투쟁으로 미군을 이 땅에서 쫓아내고 미국의 식민지 통치를 끝장내야 하겠죠.



황폐화되는 땅을 두고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10일~12일



이번에는 경기 환경운동단체에서 일보시는 김진아씨의 글 ≪황폐화되는 땅을 두고≫를 신은경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는 산좋고 물좋아 금수강산이라 불리워왔다. 어디를 가나 천하절경이며 어디를 둘러봐도 경치가 빼어난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고 자자손손 가꾸고 지켜가야 할 우리의 강산이며 민족의 유산이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는 양키침략자들에 의해 민족의 재부인 우리의 귀중한 강토가 자기의 아름다움을 잃고 병들어 가고 있다.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경기의정서에서 맞은편 **산 중턱을 바라보노라면 절로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향보산 중턱 절벽에는 가로 세로가 10미터 크기의 원색으로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부대의 마크가 흉물스레 그려져 있다.

**에 있는 수락산일대의 크고 작은 바위들에도 미군부대의 마크와 명자낙서들이 지저분해 아름다운 주변 경관을 심히 훼손시키고 있다.

비단 여기뿐이 아니다. 주한미군은 저들이 둥지 틀고 있는 120여개의 미군기지들에서 이 땅의 경관을 마구 헤치다 못해 온 강토를 아예 황폐화시키고 있다. 그처럼 깨끗하고 티한점 없던 우리의 강들에는 주한미군에 의해 독극물이 무시로 흐르고 있고 땅속 깊은 곳에는 지하수물들도 유독성물질에 심히 오염되어 있다. 가을이면 탐스러운 벼이삭을 아름이 넘게 안겨주던 기름진 우리의 땅도 미군에 의한 온갖 폐유방출로 꺼멓게 병들었다.

산은 어떤가. 울창한 숲을 이룬 나무들로 풍치수려했던 우리의 산이 가는 곳마다 주한미군의 폭격과 포격으로 볼상 사납게 파헤쳐졌고 옛자취를 찾아볼 수 없이 번들산이 되어 버렸다.

정말 주한미군의 무지막지한 군화발과 무한궤도에 짓뭉개져 우리의 강토는 몸살을 앓으며 불모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 땅이 어떤 땅이냐. 나뿐 아니라 나의 아들, 나의 손자들이 대대손손 가꾸며 살아가야 할 귀중한 우리의 강토이다. 그런데 바다 건너와 남의 땅을 총칼로 강점한 미군에 의해 귀중하고도 소중한 민족유산들이 파괴되고 온 강토가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이 땅. 지금 미국이 이 땅을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교두보, 핵무기저장고로, 전쟁연습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양키침략자들에게 있어서 ≪한국≫은 저들의 쓰레기매립장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더이상 그렇게는 될 수 없다. 우리 민중은 동족인 겨레를 겨냥한 미국의 북침전쟁연습에 이 땅이 파헤쳐지고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다.

횡포무도한 주한미군에 의해 이 땅의 강산이 파괴되는 것을 더이상 허용할 수 없다. 대대로 이 땅에서 살아왔고 또 내가 살고 나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우리의 강토, 우리의 민족유산이 기에 이를 지키기 위한 반미반전투쟁에 나서야 한다.

더이상 피묻은 미군의 군화발밑에서 우리의 강토가 몸부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민족유산이 더이상 양키들에 의해 욕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한미군완전철폐의 머리띠를 매고 반미투쟁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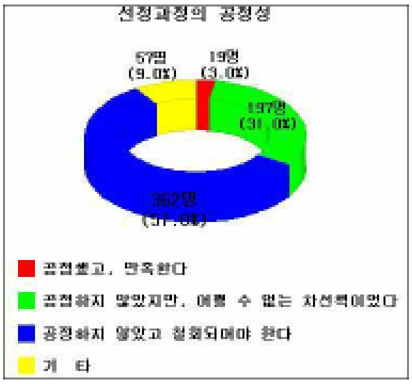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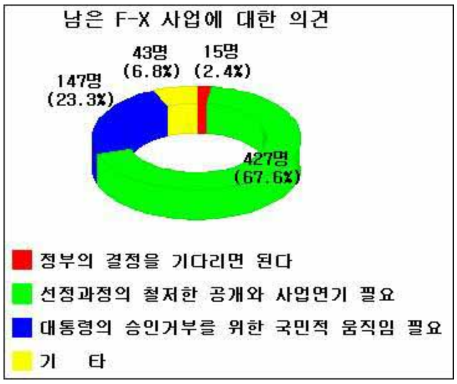
F15≪불공정≫,≪철회해야≫ 88%

FX사업관련 공군사관학교 등 충북지역대학생 대상 설문조사

≪불공정하다!≫≪선정과정 철저히 공개하고 연기하라!≫

이는 약 5조 8천 억원(선정 후, 운영비용까지 합하면 십수조원)이 투입되고, 4월 중순 2차 선정결과 발표와 대통령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는 차세대전투기(F-X, Fighter-X) 사업 과정에 대하여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다.





공군사관학교, 청주대, 청주교대, 충북대, 충주대, ≪한국≫교원대학교 등 충북지역 6개 대학의 63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와 같은 여론 실태가 파악되었다.

설문지는≪선정과정의 공정성≫,≪남은 F-X 사업 과정≫, ≪F-X도입의 시기성≫,≪가장 중요한 F-X 선정기준≫,≪선호하는 전투기 기종≫ 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선정과정의 공정성≫(635명 응답)에 대한 설문에서는≪공정했다≫ 19명(3%),≪공정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었다≫ 197명(31%),≪공정하지 않았고, 철회되어야 한다≫ 362명(57%), 기타 57(9%)명의 답변을 보였다. 기타 답변에서≪서러울 뿐이다≫,≪우리 정부는 어쩔 수 없는 미국 시다바리다≫, ≪눈칫밥 먹는 비참함≫,≪모른다≫ 등의 의견이 주를 이룬 것까지 합하여 90%를 초과하는 대학생들이 F-X 선정과정에 반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은 F-X 선정과정≫(632명 응답)에 대해서는≪잘 진행되고 있으니 결정을 기다리면 된다≫ (15명 2.4%),≪…선정과정에 대한 철저한 공개와 사업연기가 필요하다≫ (427명 67.5%),≪대통령의 승인 거부 요청을 위해 범국민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147명 23.2%), 기타 (43명 6.8%)의 답변이 나왔다.

이와 같은 여론은 차세대전투기 사업의 철저한 공개 및 연기와 범국민적인 반대 운동이 일어나야 함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기타에는≪우리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힘만이 살아남는 방법이다≫,≪F-15로 결정하더라도 많은 것은 미국으로부터 얻어와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공군사관생도 대상 설문조사

이번 F-X사업에서 선정되는 전투기를 타고 조종하게 될 공군사관 생도들의 답변만 모아놓고 보자.

≪선정되어야 할 전투기≫에 대한 설문에서≪라팔(프랑스 다소)≫에 81%의 생도가 답하였다.

≪선정과정의 공정성≫에대한 설문에서는≪공정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었다≫,≪공정하지 않았고 철회되어야 한다≫에 각각 56%, 6%가 대답했다. 설문에 응한 과반수 이상의 공사 생도들이 이번 선정과정의 불공정성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리고≪남은 F-X 선정과정≫에 대해서는≪선정과정에 대한 공개와 사업연기 필요≫와≪대통령의 승인 거부 요청≫에 위 문항과 같은 56%, 6% 보였다.

이와 같은 설문 양상은 일반 대학생들보다는 높지 않지만 공군사관생도 역시 F-X 사업의 공정성에 대해서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공군사관생도의≪이 사안(F-X 사업) 대한 내부 지침에 따라 공사생도의 입장에서 말하기는 어렵고, 하나의 국민의 입장에서 설문에 응하는 것이다≫라는 말과 같이 대부분이 공사생도의 신분에서 설문에 응하기를 거부하였다.

설문에 응한 몇 대학생은≪그 돈으로 등록금이나 대줘라≫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이번 선정과정의 공정성의 회의를 품는 대학생들의 의견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차세대전투기 구입 비용 5조 8천억원은 올해 국가 예산 111조원에 비하면 5%를 상회한다. 향후 운영 비용까지 합하면 이는 전체 교육예산보다 많은 것은 물론, 교육예산의 약 10%에 그치는 전국 대학교육 예산의 10배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인 셈이다.

차세대전투기 선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오광진 간사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국방부는 납세자의 알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F-X 평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금 그 누가 생각해도, 그 누가 평가하고 판단해도 선정 되서는 안 되는 기종이 사실상 확정되었다. 부조리한 정부 사업에 납세자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서 대학생뿐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박종희 기자

2002/04/12 유뉴스



≪FX 기종 신중히 결정하라≫ 65.9%

≪시사저널≫≪예비역 공군 장교≫ 긴급 여론조사

국방부가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1차 평가에서 사실상 미국 보잉사의 F15 전투기를 선정하기로 내정한 데 대해 수요군인 공군 관계자의 60% 이상이 불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앞으로 남은 2단계 평가에서 한.미 관계를 중시하는 정책적 판단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9.0%에 이르렀다. 차기 전투기 사업 관리 방향도 조기 결정(30.0%)하기보다는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 제5 세대급 전투기를 도입하거나 차기 정권으로 이양하는 등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65.9%)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시사저널≫이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3~5일 예비역 공군 소령에서부터 대장에 이르기까지 장교.장성 출신 2백20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이다. 이번 조사는 10여 년에 걸쳐 추진된 FX 사업의 최종 기종 결정을 앞두고 전투기를 직접 조종해본 최고 전문가들을 상대로 실시한 사상 첫 조사이다.

≪장교들 F15 반대할 것≫ 60.9%

이번 조사 결과는≪공군은 4개 후보 기종 중 어떤 기종을 선정해도 환영한다≫는 국방부의 공식 발표와 배치된다. 또 공군은 전력 공백을 우려해 무조건 조기 결정하자는 입장이라는 국방부 발표와도 거리가 멀다. 공군은 오히려≪조기에 결정하지 말고 제대로 결정하자≫는 입장에 가까웠다. 아울러 전투기 선정 과정에서 공군이 소외된 데 대해 예비역 공군들은 적지 않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투기 조종사나 정비사 경력자가 대부분인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42. 3%)가 이번에 국방부가 사실상 F15로 기종을 결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평가했다. 그 다음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응답(29.5%)이었고,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28.2%였다. 잘못된 결정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구형 비행기를 선정해 항공산업 발전을 기약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과 정치 논리에 좌우되었다는 점을 가장 많이(각각 32.3%) 지적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공군의 의견이 미흡하게 반영되었다(26.9%)는 응답이 많았다. 일부 공군 수뇌부 및 국방부의 주장과 달리 공군 출신 다수는 이번 FX 사업 기종 선정 과정에서 정작 전투기를 운용할 공군의 여론은 무시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현역 공군이 보일 반응에 대해서도 만족할 것(36.8%)이라는 평가보다 불만족스러워할 것(60.9%)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현역 공군 장교들이 F15에 불만을 품는 이유로는, 기술 이전이 미흡해 핵심 기술 확보가 곤란하다(50.7%)는 점을 으뜸으로 꼽았다. 그 다음은≪임무 수행과 군운용 면에서 불만족스런 기종이다≫(23.1%),≪수명주기.비용 면에서 비경제적인 기종이다≫(23%) 순이었다.

국방부는 1단계에서 경합한 F15와 라팔 두 기종의 점수 평가가 3% 포인트 이내(라팔이 1.1% 포인트 근소 우세)이기 때문에 한.미 연합작전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인 2단계 평가를 거쳐 기종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사실상 F15로 확정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같은 2차 평가 방식 때문이다.

한미 연합작전을 고려한다는 2차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공군 장교 출신들은 적지 않은 불만을 드러냈다. 정치 논리가 개입될 소지가 있으므로 2단계 평가 방식에 반대한다(24.1%)거나 1단계 평가 결과가 충분히 반영된 평가가 되어야 한다(35.5)는 응답이 높게 나온 것이다. 반면 2단계에서는 순전히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33.2%였다.

예비역 공군들은 한마디로 FX사업 기종을 F15로 조기 확정(30.0%)하기보다 좀더 시간을 갖고서 천천히 결정(30.5%)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했고,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 제5 세대급 전투기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29.5%로 높게 나왔다. 조기 기종 결정으로 공군 전력에 차질을 없애겠다는 국방부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공군 여론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최종 기종을 F15로 강행 결정하면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나, 공군 내부에 분란과 후유증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한.미 동맹 관리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결정≫(46.4%)이라는 응답 못지 않게≪공군의 해외 협상과 시험 평가 결과를 부정하는 잘못된 결정≫(48.6%)이라는 응답도 많았다.

F15 선택하면 공군 양분된다

이런 공군 안팎의 여론에 대해 예비역 공군 중령인 김성전씨(48.아시아나 조종사)는≪이번에 F15로 결정하면 10년 전 KFP 사업에 이어서 ≪한국≫ 공군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셈이다. 자칫하면 공군이 두 편으로 갈릴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예비역 공군 장교들은 조주형 대령이 지난 3월≪기종 평가 과정에서 국방부 간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요지로 양심 선언을 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소신에 의한 순수한 행동(43.2%)이었다는 의견이, 동기는 옳았지만 방법은 틀렸다(30.0%)는 의견보다 많았다. 진실성과 동기에 의문이 간다는 응답은 11.8%였다. 현재 구속 수감되어 있는 조대령은 공군과 공군 출신 장교 집단 내에서는 명예로운 장교로 인식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군사 평론가 김종대씨는≪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수요군인 공군의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기종 확정을 서둘러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정희상 기자
2002/04/18 시사저널 제651호





F-X사업, 감사원도 책임져야

279개 사회단체, F-X 특별감사 청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없이 F-X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은 국방부만이 아니라 감사원의 책무이기도 하다.≫

27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F-X외압의혹 진상규명 및 F-15K 내정철회 공동행동≫(이하 F-X공동행동)은 12일 오전 11시 특별감사를 청구하며 감사원에 단체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F-X공동행동은 감사청구사항으로 ▲F-X 외압의혹 ▲평가기준, 배점방식 변경에 대한 의혹 ▲1단계 평가내용의 적정성과 공정성 여부 ▲F-15K 도입시 예상되는 운영유지비 상승 및 추가비용에 대한 국방부 해명의 진위여부 ▲F-X관련 예상되는 추가비용의 규모와 그 조달방법의 적정성 등의 규명을 요구했다.

이날 F-X공동행동은 특별감사를 청구하며 지난 3일부터 진행해왔던 범국민 가두서명과 사이버서명을 통해 확보한 43,442명의 국민서명과 관련증빙서류로 국방부 외압을 폭로한 조주형 대령의 1,2차 녹취록과 4대 의혹 48개 질의서로 되어있는 F-X사업의 의혹자료를 함께 제출해 F-X사업 의혹규명 의지를 분명히 했다.

F-X공동행동은 단체감사청구서에서 밝힌 감사청구 이유를 통해≪국민의 혈세 5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비밀에 둘러싸인 채 국방부 몇몇 관계자들의 손에 좌지우지 될 상황에 처해있다≫고 주장하고≪2단계 평가가 예정되어있는 4월 중순이전에 감사원의 철저한 직무감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특별감사청구 대표단으로 참석했던 김종일 자통협 사무처장은≪감사원이 지난 3일 자통협에서 제기한 국민감사청구에 이어 10일도 안돼 4만여명의 국민서명을 제출하는 것을 보고 놀라는 눈치였다≫며≪감사원 내부에서 감사여부와 방법을 놓고 논의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F-X공동행동은 오늘 감사원 특별감사청구 외에도 자통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방부 민원실앞에서의 농성과 1인시위, F-15K 내정철회 1천인 선언운동을 통한 신문광고 게재 등을 통해 F-X사업 반대활동의 흐름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렇듯 F-X사업 2단계 평가를 앞두고 국민들의 반대여론과 시민사회단체들의 F-X사업 전면재검토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으나 국방부는 F-X사업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없이 2단계 평가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어서 국방부가 국민여론에 귀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동렬 기자
2002/04/12 통일뉴스

≪강요에 의한 무기도입 불가≫

사제단, F-15K 내정철회 서명운동 시작

지난 15일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대표 김진룡, 김제요촌성당 주임신부)이 F-15K 내정 철회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사제단 김진룡 대표는≪공군시험평가 결과 3위로 나타난 전투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핵심기술이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택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약 6조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만큼 평가결과와 내역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국방부가 묵살하고 있다≫며≪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보다 미국강요에 의한 고물무기도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사제단은 서명운동을 통해 F-15K 내정의 철회와 2차 평가사업의 중단, F-X 1단계 평가 세부내역의 공개, F-X사업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및 감사원 특감의 실시, F-X 외압을 폭로한 조주형 대령을 국방위원회 증인으로 채택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진룡 대표는≪F-15K 전투기 1대 가격이 약 1억달러(약 1천 3백억원)에 달해 쌀 86만 7천가마로 결식아동 30만명을 140일간 점심식사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차세대전투기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국정조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기 위해 천주교에서 이런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제단의 전준형 사무국장은≪이번 서명운동을 계기로 국방부의 편의적 밀실정치를 중단시키고 무기와 전쟁, 미국의 강요보다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평화를 실현할 계기를 찾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F-X(차세대전투기)사업은 국방부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전투기 40대를 구입하기 위해 4조 295억원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4개 기종 후보 중에 미국 보잉사의 F-15K가 사실상 확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공군 핵심실무장교였던 조 대령과 김 대령을 기무사에 구금시켜 물의를 빚었던 사업이다.

서미숙 기자
2002/04/16 주간인권신문≪평화와인권≫ 제288호

국방부, FX 기종선정 예정대로 강행

19일 2차 선정 결과 발표 예정-시민단체들 강력 반발

국방부가 김동신 국방장관을 대상으로 한 최규선의 로비의혹에도 불구하고 16일 차기전투기(FX) 2차 기종선정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날 함께 발표될 차기전투기의 엔진선택도 새로운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획득사업 관련자들은 최근 민감한 여론을 의식해 FX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인터뷰나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국방부는 그러나 여론이나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면돌파≫ 하기로 내부 합의를 본 것으로 국방부 주변에서는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검찰이 최규선의 군상대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한 차례 큰 파장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보잉사도 최근의 로비 의혹 제기에 당황해 하는 분위기다. 보잉사는 16일 발빠르게 10대 중앙일간지 및 경제신문에 자사전투기인 F15K의 우수성과, 그동안 문제가 된 부품 수급문제나 절충교역 등에 대한 자세한 해명을 담은 광고를 게재했다.

이같은 광고는 15일 최규선 로비 의혹이 제기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로비 의혹 제기와 무관치 않은 대응으로 해석되고 있다.

로비 의혹 제기에 국방부와 보잉사 크게 당황

국방부 획득실의 한 관계자는 19일 ≪현재로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19일 예정대로 발표가 그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종결정을 위한 최종평가회의에 들어간 관계자들이 19일에 결과를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착엔진도 같은 날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국방부는 최규선 미래도시환경 대표가 김동신 국방장관을 대상으로 FX 로비 의혹을 펼친 게 아니냐는 최근의 의혹 제기에 크게 당황해 하는 분위기다.

이같은 의혹은 최규선 대표가 그동안 김장관을 몇차례 만났으며, 여기에 김대중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씨도 관여했다는 언론보도가 나가면서 급속히 증폭되고 있다.

김동신 국방장관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15일 국회 국방위 답변을 통해 ≪국방장관이 되기 전에 2~3차례, 국방장관이 된 후에는 장관 관저에서 최씨를 한차례를 만난 적은 있으나 FX에 대해선 한마디도 나눈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자칫 하면 실험용 엔진 달고 날아다녀야 할 판

국방부가 19일 예정대로 차기전투기로 F-15K를 선택할 경우에도 여기에 장착될 엔진을 둘러싼 추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이 기종에 장착이 가능한 엔진으로는 미국 제네럴일렉트릭(GE)사의 F110-GE-129와 프랏앤휘트니(P&W)사의 F100-PW-229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국방부는 구매가격을 낮추기 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GE사 엔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현재까지 실전에 배치된 미 공군의 F-15 전투기에 장착된 엔진이 모두 P&W사 제품이라는 데 있다. 반면 국내언론에 장착이 유력한 것으로 보도된 GE사의 엔진은 실전배치경험이 전무한 제품이다. GE사 엔진은 구형기체에 테스트만 마친 실험용 엔진이다. 따라서 GE사 엔진이 선택될 경우 한미간의 엔진 종류가 달라 그동안 국방부가 주장해 온 유사시 미 공군의 협조도 어려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의 이태호 실장은 국방부가 기종선정 강행에 대해 ≪FX사업에 최규선비리까지 연루된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선정 강행보다는 우선 조대령 문제나 최규선 의혹을 투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만약 이번 의혹에 직접 관련이 있는 국방부장관이 총대를 메고 선정을 강행한다면 시민단체들은 6월의 대통령 재가를 반대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기 전투기 선정은 오는 19일의 제2차 기종 선정을 거쳐 6월 김대중 대통령의 재가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손봉석 기자

2002/04/16 프레시안

F-X사업은 ≪미국 퍼주기≫

F-X공동행동, 2차 범국민대회 열어

≪지금까지 미국 무기를 사들여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F-15K를 선정하는 것은 ≪미국 퍼주기≫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F-X 외압의혹 진상규명 및 F-15K내정 철회 공동행동≫(이하 F-X 공동행동) 주최로 17일 오전 11시 용산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열린 ≪F-X 사업 외압의혹 진상규명과 F-15K 내정 철회 촉구 2차 범국민대회≫에서 김종철 민주노동당 용산지구당 준비위원장은 국방부의 대미예속적인 정책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철 준비위원장은 ≪얼마전 돌아가신 최옥란 열사는 26만원의 생계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았는데 이것은 F-X사업 예산의 50만분의 1도 안된다≫며 ≪진정한 안보는 살상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평안하게 하고 평화의 지를 전세계에 알리는 데 있다≫고 F-X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홍근수 자통협 상임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먼저 얼마전 김해에 추락한 비행기 사고의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이야기를 시작한 후 ≪공교롭게도 이번 사고 비행기의 제작사가 보잉사였다≫며 ≪우리의 젊은 공군 조종사들이 F-15K를 타다가 아까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 아니겠냐≫고 F-15K 도입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홍근수 상임대표는 ≪국민 80%이상이 반대하고, 정작 타고 다니는 공군장교들까지 반대하자 구속해버리는 국방부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고 주장한 뒤 ≪일설에 미국이 햇볕정책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F-15K구매를 강요했다는 말이 있는데 F-15K를 도입하면 남북화해는 고사하고 한반도 통일도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범국민대회는 자통협,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등 278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F-X공동행동이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한 것으로 최근 언론에서 검찰수사중인 최규선씨의 국방장관 로비보도가 더해진 상황에서 참가자들은 ≪국방부가 F-X사업을 둘러싼 무수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발언을 통해 ≪F-X사업이 국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부 미국을 추종하는 군인들에 의해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한 뒤 ≪5조 8천억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들여 추진하는 F-X사업의 무수한 의혹에 대해 국회와 감사원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국정조사와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이태호 정책실장은 ≪대통령의 친인척비리를 캐내는데 혈안이 되어있는 조·중·동마저도 미국과 관련된 F-X사업 로비의혹에 대해서는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국회와 감사원, 언론이 침묵한다 하더라도 F-X사업 의혹규명과 연기를 위한 국민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F-X사업 반대의지를 분명히 했다.

참가자들은 ▲F-X외압 의혹 진상규명과 F-15K내정 철회 ▲국정조사권과 감사권 발동 ▲성역없는 F-15K 로비 의혹 수사 ▲F-X사업 연기와 전면 재검토 등의 요구조건이 담긴 결의문을 낭독한 후 F-15K내정 철회를 요구하는 42833명의 국민서명을 국방부 민원실에 제출했다.

한편, 국방부는 시민사회단체들의 F-X사업에 대한 거센 반발과, 최근 대통령 친인척의 로비의혹에도 불구하고 오는 19일 2단계 평가결과를 발표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장동렬 기자
2002/04/17 통일뉴스

미국은≪美≫ 아닌 단지≪米≫일뿐

해태제과소액주주, 미 국가명 변경운동

네티즌들의 미국제품불매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 제과회사 소액주주운동본부에서 반미운동차원으로 미국의 한자표기를≪美≫(아름다울 미)자에서≪米≫(쌀 미)자로 바꾸자는 운동이 일고 있어 화제다.

해태제과 소액주주 운동본부(대표 염경우, 운동본부)는≪해태제과나 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우량기업들이 미국에 헐값으로 매각되는 현실에서≪미국 국가명 한자표기 바꾸기운동≫이 미국에 대한 근본인식개선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과제라 여겨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운동본부 염 경우 대표는≪일본도 미국한자표기 시 米(쌀 미)자를 사용하여 그저 쌀이 많은 나라라 부르고 있다≫며≪더욱이 우리는 동계 올림픽, FX 사업자 선정, 노근리 문제, 국내 우량 기업의 미국 헐값매각 등 우리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나라를 아무 생각 없이≪아름다운 나라≫로 부르고 있는 것은 사대주의 발상이며 안타까운 현실일 뿐이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향후 운동본부는(http://www.htjuju.com)는≪미국국가명 한자표기 바꾸기운동≫을 전 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킬 것이며 이를 위해 청와대, 국회, 언론사 기관 등에 동참을 요구하는 공문발송하며 대한민국네티즌연대를 비롯한 네티즌 단체와 연대활동도 계획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태 소액주주모임은 소액주주의 권익과 당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작은 뜻들을 모아 자발적으로 만든 사이트로 기업이 건전한 기업경영과 책임경영을 추구하는 역할을 한다.

백영순 기자
2002/04/12 유뉴스

식을 줄 모르는≪미국제품 불매운동≫

≪반미운동본부≫소속 네티즌, 신촌서 2차 불매운동



3월 명동집회에 이어 두 번째로 거리시위를 가진 반미운동본부(http://cafe.daum.net/HEYFUCKINGUSA) 소속 네티즌들은 13일(토) 신촌일대에서 미국제품 불매운동을 선전했다.

거리홍보와≪불매운동≫ 관련한 퍼포먼스를 진행한 이날 집회에는 약 50여명의 소속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한민국네티즌연합측이 연대단체로 참가하기도 했다.

네티즌 단체의 온 오프라인 시위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힌 안효준(반미운동본부 서울대표, 직장인)씨는≪최근 문화방송의 한 프로그램에서 네티즌들에 관한 내용을 담았는데 이 운동을 폄하하고 왜곡되게 보도해 회원들이 항의하고 있다≫며 거리시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문화방송은 자사프로그램인≪생방송 화제집중≫ 3월 11일자로 네티즌들의 불매운동을 소재로 한≪우리도 할말 있어요≫편을 방영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 측에서는≪불매운동활동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도하는 등 왜곡 편파보도를 했다≫고 게시판을 통해 항의하고 있으며 문화방송 측의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있다.

백영순 기자
2002/04/15 유뉴스

한나라당 또 대북지원사업 시비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11일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한나라당패거리들은 9일에 있은 국회본회의에서 대북지원사업을 재검토해야한다느니 뭐니하고 떠들어댔습니다.

한나라당패거리들의 이같은 망발은 남북관계를 동족관념이 아니라 대결관념에로 몰아가려는데 그 저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한나라당패거리들은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 교류가 진행될 때 북에 끌려다닌다느니 북에 너무 많이 퍼준다느니 뭐니하면서 남북관계개선에 훼방을 놓으면서 앞장에 섰던 것입니다.



한나라당패거리들의 이같은 책동은 남북관계개선을 바라고 있는 온 겨레의 강력한 규탄을 받고 있습니다.

한나라당패거리들은 무엇보다도 ******남북관계개선에 제동을 거는 행위***계속 못된 짓만 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민족내부에서 상부상조하는 것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미풍양식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남의 슬픔을 자기의 슬픔으로 여기고 함께 슬픔을 나눴고 이웃간에 성심성의껏 도우면서 단란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이러한 미풍양속은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북에서는 광복후 전기와 쌀이 부족해 고생하고 있는 이남땅에 전기와 쌀을 보내주었습니다. 특히 이북에서는 84년 수해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쌀 5만석, 천 50만미터, 시멘트 10만톤, 많은 의약품들을 보내주었는데 이것은 1800만달러에 해당하는 거대한 액수입니다. 이것은 이북에서 쌀과 시멘트, 천이 쓰고 남아서가 아니라 재해로 고통받는 이남 동포들을 돕기 위해 성심성의껏 마련해서 보내준 것이였습니다.

이 얼마나 동포애 넘치는 후원이었습니까. 은혜는 은혜로 갚는 것이 하나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패거리들은 무엇이 그다지도 못마땅한지 대북지원사업까지 반대하고 있으니 그들의 안중에는 동족관념이 조금도 없다는 걸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북에 너무 많이 퍼준다느니 뭐니 하면서 대북지원사업을 반대하고 있지만 사실 북에 퍼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많이 퍼주었습니다. 나라의 귀중한 농토와 대지를 북침을 위한 미군기지로 제공했고 해마다 수십억달러에 해당한 미군유지비를 섬겨 바치고 있으며 우리 여성들을 성노리개로 만들었습니다.



한나라당패거리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대북지원사업문제만 가지고 시비하고 있는 건 반북반공대결의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제반 사실은 이회창을 비롯한 한나라당패거리들이 집권하면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교류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통일도 이룩할 수 없다는 걸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각계 민중은 남북관계개선의 걸림돌, 통일의 방해자인 이회창을 비롯한 한나라당패거리들을 정계에서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 한나라당패거리들이 청와대에 입주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한나라당패거리들은 국민의 지지도가 날로 떨어진데 대해 그리고 국민들의 심판의 눈길에 대해 똑바로 보고 모두 정계에서 지체없이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회창, 또 남북관계개선 제동 거는 망발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13일~14일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이회창은 한나라당의 경선후보합동토론회에서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이루고 통일로까지 가자면 북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해야한다느니 ≪상호주의≫와 ≪검증≫이 필요하다느니 뭐니하고 떠들어댔습니다. 이것은 북을 ≪개혁개방≫에로 유도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로 통일하자는 것이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차단하기 위한 용납못할 반민족, 반통일적 작태라 하겠습니다.

이회창이 북을 ≪개혁개방≫에로 유도해야한다는 넋두리를 늘어놓은 것은 물과 불사이의 합의를 못했다는 것만큼이나 어리석고 우둔한 짓이라고 봅니다.

어떤 위협과 유혹에도 끄떡없이 사회주의강성대국을 향해 승승장구하는 이북의 우세한 현실을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고 미국의 간첩위성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운 휴전선 너머로 북을 직접 쳐다보고 있는 이회창의 경우에는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북에서는 이회창이 바라는 어떤 변화란 언제가도 볼 수 없을 것이고 있다면 오직 이회창도 계산할 수 없는 사회주의의 힘찬 전진과 승리만이 있을 것입니다.

이회창이 입버릇처럼 떠드는 ≪상호주의≫와 ≪검증≫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반통일분열주의책동을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문제는 결코 남과 북이 등가교환에 의해 해결할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의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민족공동의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해결해야 할 숭고한 애국위업입니다. 이것을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아야 한다는 등가교환의 장사꾼논리에 맞추려는 것은 죄악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회창이 제창하는 상호주의는 철두철미 반민족적인 논리, 대결의 논리입니다.

이회창이 떠드는 ≪검증≫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북에서는 지난 84년 이남에서 수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을 때 동포애와 인도주의차원에서 많은 쌀과 시멘트, 천, 의약품들을 보내주었지만 ≪검증≫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회창은 북에 별로 주는 것도 없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검증≫에 대해 떠들며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 것은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교류를 전면 차단해 보려는데 있는 것입니다.



까마귀 하루에 열두번 울어도 ****소리뿐이라고 이회창에게도 반북반통일대결을 고취하는 극악한 언동밖에 나올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회창이 한나라당의 경선후보합동토론회에 나타나 국민의 지지도를 얻어보려고 책동했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 손으로 자기 눈을 찌르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북간의 대화와 접촉,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어 통일의 문이 열릴 것을 바라고 있는 각계 민중은 지금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하고 통일도 요원해진다며 이회창이 경선후보포기와 함께 정계에서 즉시 퇴진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회창은 대세의 흐름과 민심을 직시하고 대통령이 되어보려는 허황한 개꿈에서 깨어나 국민의 요구대로 정계에서 퇴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호화빌라 실소유주는 이회창?

함승희 · 이재정 의원 ≪15억 원에 구입 차명관리≫



이회창 대세론의 발목을 잡았던 호화빌라 문제가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오를 것인가.

함승희 ·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상임위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호화빌라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함승희 의원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서울 가회동 빌라는 이 총재의 부인 한인옥 씨가 직접 구입해 차명으로 관리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 의원은 이날 ≪이 전 총재의 가회동 빌라는 한인옥 씨가 고급 주택거래업체인 신우주택을 통해 15억 원에 매입한 뒤 차명으로 관리해왔다≫며 ≪이 빌라에 대한 이 전 총재의 그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함 의원은 이어 ≪만약 이 전 총재의 주장대로 사돈 명의의 집을 빌려 사용한 것이라면 검찰은 당연히 증여세 포탈 여부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의원은 함 의원의 주장에서 한발 더 나갔다. 이 의원은 16일 국회 예결위에서 ≪이 전 총재가 가회동 빌라의 실소유주란 주장이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다≫며 ≪고급빌라 중개업체인 ≪신우≫에 이 전 총재 부부가 빌라 구입을 의뢰, 14억 원에 한 채를 구입하고 중개자에게 ≪비밀을 지켜 달라≫고 요구한 뒤 3천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줬다고 한다≫고 밝혔다.

함 의원과 이 의원이 주장하는 빌라 매입금액(15억 원과 14억 원)은 다르지만 이회창 후보가 가회동 경남빌라를 직접 구입했다는 점은 동일하다. 이는 그동안 ≪사돈이 빌려줘서 살고 있다≫는 이 후보의 해명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

이에 대해 이회창 후보측은 ≪터무니없는 음해 작태≫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병석 대변인은 ≪가회동 빌라는 이미 밝힌 대로 이 후보의 사돈 소유임에도 함 의원이 이런 식의 음해작전을 한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는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며 ≪대통령 세 아들 게이트가 터지고 경찰간부가 해외로 도망가는 등 권력형 비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비열한 물타기수법으로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핵심측근인 김무성 의원은 ≪이 후보의 사돈인 최기선 씨가 작년 3월 해당 세무서로부터 빌라구입자금 출처에 대해 2개월 정도 조사를 받았으며, 정당한 자금으로 빌라를 구입했다는 서류가 있는 만큼 최 씨가 외국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이 서류와 구입계약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빌라 구입시기도 IMF 사태 직후인 98년 1월로 당시 시세는 8억 원으로 15억 원에 구입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함 의원 등의 주장은 여권에서 이 후보를 음해하기 위해 준비중인 12가지 중 하나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 가회동 경남빌라 202호와 302호를 사용해왔다. 이 후보는 302호는 자신의 가족이 거주해왔으며 202호는 외국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게스트 하우스≫로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302호에 대해 ≪사돈이 빌려줘서 살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여기서 ≪사돈≫이란 이 후보의 사위인 최명석 변호사의 부친인 최기선 씨를 가리킨다.

하지만 함승희 · 이재정 의원의 ≪직접 구입, 차명관리≫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후보는 국민 앞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검사출신인 함 의원은 ≪제보를 받은 것≫이라며 ≪이 전 총재 직전 소유주의 자금(매매대금)을 역추적해보면 자금의 성격과 출처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영식 기자
2002/04/17 오마이뉴스

《한총련 합법화》관련 대학언론위원회 4회 기자포럼



한총련 합법화 관련 공청회, 기자회견이 속속 진행되는 가운데 11일(목) 프레스센터에서는《한총련 합법화 필요한가》란 주제로 4회 대학기자포럼이 진행됐다.

한국기자협회 대학언론위원회(대언위)에서 주최한 이날 포럼은 한총련 이적규정의 원인에서부터 합법화움직임까지, 그리고 한총련에 대한 기존 언론의 보도 시각과 대학신문사들의 보도행태 등 다양한 견해가 논의되었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장세훈(대언위 운영위원장)씨는《검찰과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들을 섭외하려고 했으나 불참의사를 밝혔다》며《위법적인 단체로 낙인된 한총련을 계도해야할 사회적 책임이 지닌 사람들인 만큼 직접 참석해 토론해 줬으면 했는데 유감스럽다》고 전한 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대책위) 집행국장 강위원씨는《대책위는 한총련의 운동노선에 동의했던 사람들의 자족적인 모임이 아닌 우리사회의 정치사상의 자유와 인권의 문제에 동의하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됐다》고 밝히며《대책위는 학생운동과 검경찰사이에서 중재와 논의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이 자리에 함께 했다는 조남현(자유시민연대 대변인)씨는《구체적인 행위가 아닌 한총련 구성원이라고 해서 모두 구속, 수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후《전대협에 이어 특정정파가 장악해 있는 한총련 속에서는 대학생다운 자유로운 사고가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현재 시민단체의 성장으로 학생운동은 그 필요성이 없다며 새로운 노선모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보수단체진영의 대표격으로 나온 조대변인은《한총련의 통일운동은 친북성이 강하며 이런 운동은 실제 남북관계나 한반도 통일에 기여한 것은 없다》고 단정하며 이런 시각이 보수진영들의 한목소리라고 전했다.

또 한겨레 조준상 기자는 한총련에 대한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이른바《믿거나말거나》식이었던 것이 현실이라며《실제 대학생들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대학문화나 취업으로 옮긴 상황에서 학생운동은 소외되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 계속문제가 되고 있는 북측주장과 유사한 한총련 노선에 대한 문제제기는《반쪽짜리 이북바로알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직언론인으로서 한총련에 대한 보도를 담당하게 된다면 정확한 사실에 기인해 보도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대학신문은 96년, 97년을 거치면서 한총련의 정당성을 보도해왔다》고 전한 전현철(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의장, 항공대신문사 편집국장)씨는《이적규정으로 인해 학생회활동에 관심을 갖지 않는 대학생들이 많고 이는 결국 학생들의 정치의식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한총련 대표로 나온 윤경회(한총련 대변인, 홍익대총학생회장), 김재연(10기 한총련의장 후보)씨는 문제시 되고있는 강령개정 등을 선보이며 향후 국민과 250만 대학생들과 함께 합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내비쳤다.

지정 토론이 끝나고 참석자 토론으로 넘어간 뒤 동국대 영자신문사 수습기자의《통일이후 한총련이 원하는 체제가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란 질문으로 인해 회의장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경회씨가《북측의 연방제와 남측의 연합제를 공통분모로 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다》고 설명하자《궁극적인 지향이 뭔가》란 재질의를 해온 것.

이에 대해 한총련에서《남북측이 상호 합의해서 내올 것이다》는 애매한 답변을 하자 조남현씨는 북측은 현재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는 체제다고 전제한 뒤《향후 한반도 통일은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체제로 되어야하고 개인적으로 통일보다는 평화적인 분단관리체제 도입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패널 석에서는《한총련의 구성원이라고 해서, 한총련이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이적규정의 굴레를 씌울 수는 없다》는 내용에 동의하며 합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한총련에게 당부했다.

한편, 올해로 2기를 맡는 한국기자협회 산하 대학언론위원회(대학언론위)는 대학 내 언론매체(국자신문, 영자신문, 교지, 방송국)에서 활동하는 대학언론인과 신문방송학과 학생 및 대학 언론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단체다. 대학기자포럼은 대학언론위가 주최하는 토론회로 주로 시사적인 문제를 대학언론인들의 시각으로 논의하는 자리다. 지난해 월간조선 사장 조갑제, 정치인 김근태씨를 토론자로 섭외하기도 했다.

백영순 기자
2002/04/12 유뉴스

정보위,≪국민 인권 테러 시도≫

시민사회단체, 규탄 기자회견 가져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진정 국민의 인권을 테러하려는 것인가!≫

12일, 국회 정보위원회(정보위)에서 테러방지법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알려지자 95개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공동투쟁)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앞 국민은행 앞마당에서 긴급 기자회견과 규탄집회를 가졌다.

홍근수 자통협 상임대표는 대회사를 통해≪월드컵을 위해 안전장치를 다해 놓은 상태에서 테러방지법안을 국회에서 여야가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테러방지법안 정보위 상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진관(불교인권위) 스님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거듭 밝혔듯이≪월드컵을 위한 여러 준비는 이미 다 마친 상태≫일 뿐만 아니라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개별적으로 접촉한 다수 국회의원들은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데 여야 지도부에 의해 은근슬쩍 통과시키려는 상황에 대해 경악한다≫며 민주당과 한나라당 등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투쟁은≪테러를 빙자한 국정원 살리기 법률≫에 불과한 테러방지법을 한시법으로 제정하는 것도,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정도로 제정하는 것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광렬(인권실천 시민연대) 간사도≪그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법안을 일부 수정을 하기도 했지만 테러 개념의 모호성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해결될 수 없다≫며 테러방지법 그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임기란(민가협) 전 상임의장은 규탄연설에 나서≪이 법안이 정보위에서 통과되면 그들은 역사에 반역행위를 한 것≫이라며≪여야를 불문하고 나쁜 법은 통이외에도 보건의료 노조, 민주노동당 대표의 규탄연설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규탄 기자회견과 집회가 진행되는 도중 국회 정보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공동투쟁은 이날 예정돼 있던 국회 항의방문과 기자회견문 전달을 취소했다.

하지만 공동투쟁은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투쟁의 강도를 높일 계획이며, 1차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15~18일까지 국회 앞 단식 농성 투쟁을 시작으로 오는 18일 영등포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보위 무산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에 의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테러방지법안 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정부내에서도 법안에 대한 의견통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정부 부처간 의견통일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야당 의원들은 오늘 회의에 불참할 방침≫이라고 전하고 있다.



송정미 기자
2002/04/12 통일뉴스

국민인권 유린할 테러방지법, 가라!

시민사회단체, 테러방지법 저지 단식농성 돌입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이 문제가 이슈화 될 전망이다.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공동투쟁)은 15일 오후 국회앞에서 테러방지법 폐기를 촉구하며 릴레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또 전국민중연대(민중연대)도 낮 12시 같은 장소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투쟁을 결의했다.

공동투쟁은 테러방지법이 국민인권 유린으로 인해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에서는 공공의 여론을 수렴해야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에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동투쟁이 벌이는 국회 앞 릴레이 단식농성은 1차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오늘부터 오는 18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한다.

단식농성 첫날인 오늘은 박유순(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과 이광렬(인권실천시민연대) 팀장이 결합하고 15일은 신수경(새사회연대) 정책위원 등 공동투쟁 소속 단체회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투쟁의 단식농성 돌입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민중연대 주최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다.

박석운(민중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는 오종렬(전국연합) 상임의장의 여는말로 시작됐다.

오종렬 상임의장은≪테러방지법이 제정된다면 우리는 거대한 감옥에 갇히게 된다≫며≪인권과 민주주의, 생존의 목소리, 그리고 인간세상을 살리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막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수호(전교조) 위원장도 규탄연설에 나서 테러방지법은≪칼날이 비수가 되어 다가오는 것을 의미한다≫며≪모든 민중들과 함께 정권과 보수층의 음모를 확실하게 저지할 때까지 열심히 투쟁하자≫고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또,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그간의 민주화 과정을 통해 얻은 작은 성과마저도 앗아가려 한다≫며 국정원과 민주당을 비난하는 내용의 규탄연설을 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이 테러방지법 화형식을 가져 시민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민가협 김순심씨의 결의문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박유순 대외협력국장에 의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가진 결의대회와 단식농성 외에도 18일 영등포역에서 단식농성 보고대회를 겸한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또 1차 단식농성을 통해 추이를 지켜보면서 장기적인 투쟁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렬 기자
2002/04/15 통일뉴스

노사평화협력제안을 해부해본다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10일~12일



봄철에 들어와 관계당국은 경제도약을 위한 노사평화협력에 관해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에 명줄을 걸고 있는 그들은 올해 경제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노사간의 합심이라고 하면서 건전한 노사관계를 다짐하는 인사회를 연다, 신노사문화를 정착시킨다, 노사간의 평화협력을 제안한다하며 연일 분주탕을 피우고 있다. 심지어 그들은 언론까지 발동하여 평화협력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되면 노동자들의 생활향상과 부의 공정분배실현에서 기상천외의 기적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광고하고 있으나 그것은 언어도단이다. 애당초 약육강식의 법칙이 작용하는 부익부빈익빈의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와 기업주간의 협력과 참여의 관계란 존재할 수조차 없다. 노동자의 피땀의 댓가로 살찌는 것은 자본의 고유한 속성이다. 이윤추구를 위해 노동자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약탈하는 것을 생존방식으로 삼고 있는 악덕업주들은 이 땅에서 실업대군이 늘어나는 상황을 악용하여 각종 악독한 방법으로 고용노동자들을 착취하면서 이윤을 짜내고 있다.

지금 이 땅의 노동자들은 초보적인 노동안전시설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은 열악한 사업장들에서 세계 최장시간의 노예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기아임금에 항시적인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노동자의 존엄있는 이름이 그대로 현대판 노예의 상징으로, 가난의 대명사로, 사회적인 천대와 멸시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사회가 바로 오늘의 한국이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희생의 댓가로 살찌는 악덕업주와 생존을 위해 그들에게 피와 땀을 빨리우는 노동자가 서로 화합하며 살아가라는 것은 이리와 양이 한 우리 속에서 서로 화목하게 살라는 것과 같은 궤변이다. 더욱이 관계당국이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고 노동자기본권마저도 여지없이 유린말살하고 있는 여건에서 노사평화협력이란 어불성설이다. 역대적으로 권력과 자본은 단짝이 되어 노동자의 고혈을 착취해왔다. 관계당국은 노동자들이 일체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노동악법들을 만들어놓고 그에 어긋나면 가차없이 탄압해왔다.

그들은 악덕업주들에게 온갖 특혜를 주면서 노동자들에게는 고통전담만을 강요한다. 뿐 아니라 그들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적 요구마저 불법으로 매도해 공권력을 발동한 탄압을 가차없이 일삼고 있다. 결국 가진자들 위주의 경제시책, 반노동자적인 정책만을 일삼는 관계당국이 그 무슨 평화협력에 관해 걸고드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강변인 것이다.

관계당국이 떠들어대고 있는 노사간의 평화협력이란 이 땅에 노동자들을 미국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구조조정의 희생물로 고스란히 내맡기기 위한 유혹의 올가미에 지나지 않는다. 4년전 이 땅에 고의적으로 경제위기를 불러온 미국은 저들이 주도하는 아이엠에프를 내세워 대대적인 구조조종을 강요했다. 미국이 강요하는 구조조정은 삽시에 수백만명의 노동자들을 생계터전에서 밀어내는 정리해고의 광풍으로 무섭게 몰아치고 이 땅에 사상최대의 실업대란을 일으켰다. 수백만명을 넘어선 완전실업자와 700만이 넘는 비정규직을 비롯한 이 땅의 실업대군은 바로 미국의 강도적이고 교활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종에 의해 산생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도처에는 실업대군이 휩쓸고 가진 것이란 맨주먹뿐인 노동자들은 무리로 굶어죽고 자살의 길을 택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 노동자의 희생에서 희열을 느끼며 지난해 식민지한국에서의 구조조정, 정리해고가 성과가 컸다고 하면서 올해도 계속 강도높게 진행돼야 한다고 더욱 오만하게 침탈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관계당국이 고창하는 노사간의 평화협력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아메리카양키들의 전횡에 반항하지 말고 묵묵히 순종만 하라는 사대매국적, 반노동자적 궤변이다.

지금 관계당국이 도저히 실현불가능한 노사평화협력을 집요하게 들고 나온 것은 그 어느해보다 강도높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자들의 봄철투쟁진출을 사전에 막고 월드컵과 양대선거 등을 무난히 치루자는데로부터 나온 잔악한 저의의 발상이다.

그들은 노사간의 평화협력이라는 회유기만으로 노동운동권안에 분열과 와해를 조장시키는 한편 여론을 오도해서 탄압의 빌미를 만들어 강경탄압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진출을 차단하고 나아가서 노동운동을 말살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관계당국의 이같은 비열한 책동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만약 오늘의 이 엄중한 사태가 그대로 허용된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몇푼의 돈을 위해 살아가는 자본의 영원한 임금노예로 전락되고 말것이며 노동운동은 좌초됨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어떤 회유기만도, 그 어떤 강권탄압도 자기 힘을 자각하고 자기 운명개척의 길에 나선 노동대중을 굴복시킬 수 없다.

봄철은 우리 노동자대중의 단결된 힘을 과시하는 투쟁의 계절이다. 우리는 봄철투쟁에서 노동자들의 단결된 위력으로 기만적인 노사평화협력의 강행을 좌절시키고 생존권요구를 관철해야 한다. 당면해서 봄철투쟁을 생존권투쟁에만 그치지 말고 미제의 신자유주의구조조정정책과 북침전쟁책동을 저지분쇄하기 위한 반미반전투쟁으로 확고히 지향시키고 여기에 총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

우리 노동대중은 이미 투쟁을 통해 자기 힘에 대한 확신과 내일에 대한 낙관을 가지고 하나로 뭉쳐 싸우면 승리한다는 자신심을 갖고 있다.

우리 노동자들이 싸워서 잃을 것은 식민지압제의 착취와 쇠사슬뿐이고 얻을 것은 인간다운 삶과 근로민중이 주인된 새 생활, 새 세상이다.

1300만 노동대중은 우리의 생존, 우리의 권리, 우리의 자유를 찾기 위해 노동해방가를 부르며 힘찬 반미반전의 대합성으로 대중투쟁의 종소리를 높이 울리자.

시민, 노동운동 연대로≪발전산업 민영화≫ 대응해야

민주노총, 집행부 사퇴이후 발전산업 민영화 대책 토론회 개최
시민사회단체, 학계대표 초청≪민영화, 노조원탄압 대책방안≫ 논의



지난 3일 민주노총 투쟁본부대표자회의에서 2일 타결된 발전노조 합의안이 폐기되고 집행부전원이 책임 사퇴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민주노총 주최로≪최근의 민주노총 사태에 대한 설명과 발전소 민영화 유보와 공론화를 위한 대책마련 각계 단체 간담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은 15일 오후 2시경 서울 명동 향린 교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발전소 파업기간동안 각계성명발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온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그동안의 경과를 평가하고 사태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민주노총 이수호 임시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발전노조 동지들에게 아픔을 준 것에 대해 유감과 사과를 전한다≫고 밝히고 ≪민주노총이 심대한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참석자들에게 이번 사태를 민영화 저지의 기회로 삼기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총의 경과보고에 이어 시민사회학계 각 단체 대표들의 의견이 발표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민주노총의 노사정 합의에 대해 그동안 함께 해온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그동안 시혜적인 입장에서 발전사태를 관망해온 시민단체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조율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연대의 틀을 마련하고 의사소통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은≪4.2일 민주노총의 교섭이 타결될 때 각 시민단체 대표들은 발전소민영화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밤샘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불일치한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민영화를 자기 문제화하지 않은 시민단체의 성찰이 필요하며, 원 위치에서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교협 김윤자 교수도≪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간의 상황인식과 방침의 공유가 되지 않은 문제를 개혁진영연대의 어려움으로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민영화문제는 시민사회단체가 늦게 합류해 발전노조의 고립된 싸움이었으며 현재 각계각층의 정치적 접점이 줄어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폭넓은 고민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사회진보연대 이현대 조직국장은≪민주노총이 동고동락하는 단체에 대해 의견주체로 판단하지 않고 교섭으로 모든 상황을 종료하려 했다≫고 민교협 노중기 교수는≪조합원을 설득시키지 못할 타협이라면 타결하지 말았어야 했다≫ 고 각각 비판했으며 노중기 교수는 구조적으로 의사수렴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대안으로 꼽았다.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과 시민사회의 자성의 목소리에 이어 정부의 공공산업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제기됐다.

민교협 김상곤 교수는≪민영화문제는 발전노조를 넘어서 국민적 이슈로 민주노총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라고 밝히고≪민주노총에 대한 성토를 넘어서 민영화로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계에서 자성적 비판으로 교수, 연구자, 관련 공기업 정책 담당자 20여명으로 구성된 공공부문 연구 기획단이 16일 모임을 앞두고 있다고 밝히고 4월내로 토론회를 열어 실천적 이론과 현장에서의 정책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연합 명호 간사는 연대와 성찰 사회포럼에서 논의되었던 친환경적 전력산업구조개편논의를 확대하고 환경단체들이 연대해 지속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은 민영화에 대해 시민단체 속에서 논의를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어내야 하며 정부의 민영화에 대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소를 비롯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와 함께 폭넓은 의견수렴과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는 참석자 모두가 뜻을 함께 했으며 범국민연대의 활동을 통해 논의를 확대해 나가기로 잠정 결론 지었다.

한편 발전회사에 의해 자행되는 발전노조 탄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발전노조 탄압 철회와 조직개편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대응책을 강구했다.

영등포 산선 박진석 목사는≪징계 최소화를 위해 수없이 합의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협상타결 뒤 조직와해만 남았다≫며≪이런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도≪조합원들의 불이익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경실련의 이광택 교수 역시≪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침을 세워야 하고 시민사회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단체 대표들이 민영화 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론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기존의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에 반대하는 범국민연대에 민교협 .교수노조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연합이 합류해 논의의 틀을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범국민연대는 대안모색을 위해 18일 오전 민변에서의 임시 모임을 시작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김윤희 기자
시민의 신문

시그네틱스 여성조합원 알몸수색, 44개 사회단체 구로 경찰서장 사퇴요구

≪자해 할까봐 알몸 수색했다≫, 생리중인 여성 조합원에게도≪열외 없다≫



≪정밀 신체검사는 죄의 경중에 따라 판단하지만 자해우려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할 수도 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자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재옥 구로 경찰서장의 말이었다. 당시 정밀 신체검사를 받았던 시그네틱스 김ㅇㅇ 조직차장은 구로 경찰서장의 말을 듣고 끝내 참았던 분통을 터트렸다. ≪저희는 세 살, 다섯 살 아이들의 엄마로 호송차에 오르면서도 가족들 저녁을 걱정하던 엄마들이었다. 그런 우리가 자해라고?≫ 방금 전 까지도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눈물을 흘리던 김 차장이었다.

지난 4월 2일 오후 2시경 시그네틱스 노동조합은 영등포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산업은행의 영풍그룹에 대한 부당 대출을 항의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 집회는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한 적법한 집회였다. 그러나 산업은행 직원으로 보이는 듯한 사람들이 집회현장을 촬영하였고 집회에 참가한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은 집회 현장 사진이 오용 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산업은행 관계자에게≪적법한 집회인데 사진을 왜 찍느냐?≫라고 항의하면서 무단 촬영한 사진의 필름을 내어놓으라고 하였다.

산업은행 관계자가 필름을 주겠다고 하고선 건물안으로 들어가 40여분간 나오지 않자 25명의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은 은행 건물 옆의 작은 문을 통해 은행안으로 들어가 필름을 줄 것을 요구하며 연좌 농성을 진행 하였다. 그러나 오후 5시경 갑자기 경찰이 들이 닥쳐 25명의 여성 노동자들을 연행해 구로, 영등포, 양천, 강서 경찰서 등 4곳에 분산시켰다.

문제는 구로 경찰서였다. 구로 경찰서에 연행된 7명의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에 따르면≪간단한 조서를 작성한 후 나올 수 있을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로 경찰서 측에서는≪조서작성이 끝난 후에도 집에 보내 줄 수 없다≫더니 24시경 이들 노동자들에게 유치장 입감 절차를 밟기 시작하였다.

입감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경찰은 신체검사실에서 이들에 대한 몸수색을 실시하였고 신체검사를 하던 여경은≪끈이 달린 것은 모두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몸 구석구석을 만져가며 검사를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돌아서서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로 앉았다 일어서라는 명령을 내렸다. 당시 한 조합원은 자신이 생리중 이었고 경찰에게 생리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생리중이라는 여성조합원에게 되돌아 온 대답은≪열외 없다≫는 말과≪누구든지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7명의 여성 노동자들은 당시 상황에 대해≪명령에 강요당해 일단 시키는 대로 하였지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굴욕감, 수치심, 분노는 참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렇게 해서 새벽 1시경 신체검사가 끝나고 7명의 노동자들은 유치장에 모두 감금되었다. 잠시 후 30분 뒤에 구로 경찰서 측은 이들을 유치장 밖으로 불러내 각서를 한 장씩 쓰라고 한 후 새벽 2시경 경찰서에서 전부 내 보냈다. 30분 동안 유치장 감금을 위해 살인 등을 저지른 흉악범들에게나 하는 정밀 신체검사를 한 것이었다.

시그네틱스 노동 조합과 44개 사회단체는 4월 11일 오전 11시, 구로 경찰서 앞에서≪불법 알몸수색 규탄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로 경찰서장을 만나 항의서한을 전달하고≪1주일의 시간을 줄 테니 자진 사퇴하고 관련 수사관들을 파면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구로경찰서 서장은≪정밀 신체검사는 죄의 경중에 따라 판단하지만 자해우려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다≫며≪보고 받기로는 자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해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찾아간 대표단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동당 김혜경 부대표는≪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인권에 관해 중요하게 생각 해야 한다≫며≪이 문제는 비단 시그네틱스 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에 있는 전체 여성의 인권문제. 여성의 알몸 수색이라는 반 인권적 행위≫라 설명하고 구로경찰서장의 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재웅 본부장은≪인권의 시대라는 21세기에도 이런 식의 성폭력이 난무한다는 것에 강력히 대응 할 것≫이라며≪경찰이 노동자들에 대한 편협된 공권력을 집행하는 것도 큰 문제≫라 말했다.

한편 이들은 구로경찰서 항의 방문을 마치고 오후 2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구로경찰서의 신체수색은 담당 경찰공무원들이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피해자들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행해 졌음이 명백하다≫며≪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 천부적 인권을 짓밟는 야만적인 행위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법이 정한 적절한 조치를 통해 피해자들의 인권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이 민주적인 법치국가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2/04/13

참세상뉴스

주5일근무제 관련《노동법개악》에 반발 거세

여성계-생리휴가 주휴 무급화는 여성의 건강권과 노동권 무시하는 처사
노동계-임금은 삭감하고 노동시간은 늘리는 악법





정부가 이번 229회 임시국회기간에 주5일제 근무와 관련 생리휴가와 주휴 무급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민주당 의원입법안을 통과하기로 함에 따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2월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입법은 휴일휴가 축소.탄력근로제 확대. 생리휴가 .주휴무급화의 노동법개선안과 9년에 걸친 주 5일 근무의 단계별 도입을 담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주 5일 근무 관련 노동법개선안이 임금삭감과 노동조건의 후퇴를 담고 있는 개악안이며 15%를 위한 85%의 희생이라고 비판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생리휴가와 주휴무급화에 대해 서울여성노동조합은≪여성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13일 오후 서울 인사동에서≪노동법 개악 철회 집회≫를 개최하는 등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여성노동조합은≪잘해야 5년이 후에나 성사될 주 5일 근무제 때문에 당장 주휴수당과 생리수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하고 최근의 정부의 공공산업 민영화 방침과 관련해 ≪민영화가 되면공공요금이 인상될 것이고 물가는 치솟는데 주휴수당. 생리수당이 없어져 여성근로자의 월급은 더 적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시행하려는 개정안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2007년 7월 이후에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으로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이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여성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영세상업 서비스 업종은 2007년 이후에도 주5일 근무를 실시하지 않는데, 정부는 노동법 개정으로 당장 주휴수당과 생리수당을 없애겠다는 것.

정부 방침에 따르면 지금까지 주 6일 근무에 7일분의 임금을 받던 것이 주5일 근무로 5일분의 임금을 받고 한 달이면 8일분의 임금이 사라지게 된다. 또한 휴일휴가를 큰 폭으로 줄이고 생리휴가와 주휴를 무급화하고 초과근로 할증률까지 낮추면 임금이 줄어들 뿐 아니라 주 5일이 되어도 연간 노동시간은 줄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임금삭감과 노동조건 후퇴의 개악안이라고 비판하고 주5일근무제 도입과정에서 전체 노동자의 85%가 넘는 1천 1백만명이 300인 미만 업체 중소영세 노동자는 최소 5년안에 주5일 근무혜택을 볼 수 없고 전체 노동자의 45%인 500만명의 10인 미만 업체 노동자는 2010년에 가서야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개정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오는 16~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쳐 24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투쟁계획을 확정해 전면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서를 통해 법안이 시행되면 3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자녀는 2005년부터 토요일을 혼자 집에서 보내게 되며 부모의 직장에 대한 차별이 자녀들에게 미치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파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중소 .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희생 없는 주5일 근무 도입을 위해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윤희 기자
시민의 신문

울산, ≪노동자 정치의 메카≫로 떠오르나

시장 선거 등 ≪노동자 후보≫ 대거 출마 예고
지자체 선거 앞둔 경선에 51명 후보자 각축

노동자들의 도시, 울산이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꿈틀거리고 있다.

울산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이 광역시장과 단체장을 비롯해 시의원과 구의원 등 다수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지역이다. 지난 98년 6·4 지방선거에서 민주노총과 국민승리21이 공동으로 후보를 출마시켜 구청장 2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의원과 구의원을 배출한 저력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과 기대가 크다.

특히 이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민주노동당 울산시지부가 각각 지방선거 출마 희망 후보자 51명에 대한 예비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확정할 방침이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울산지역은 노동자 밀집지역으로 선거권이 주어지는 민주노총 조합원 5만8492명과 민주노동당 당원 1261명(민주노총 조합원과 중복 당원 2000여명 제외)을 합해 총 6만여명이 참여하는 한판 선거 축제가 기획돼 있다. 17일 민주노총 울산본부 선거를 시작으로 22일 최종 후보를 확정하는 울산 예비경선에 지금 진보진영의 눈과 귀가 쏠려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민주노동당은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광역시장 당선, 북동구 구청장 당선, 시의원6석, 군구의원 다수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를 실현하는 전초전에 참석한 후보자들은 모두 51명. 이중 시장 후보를 포함한 광역단체장 후보 9명. 시의원 15명, 구의원 27명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시장 선거에 이외에도 관심을 끄는 지역은 지난 98년 6·4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을 배출한 북구와 동구.

북구에서는 조승수(39) 현 구청장과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을 역임한 이상범(45) 후보가 격돌하고 있다. 최연소 청장으로서 구 행정을 무리 없이 운영한 조승수 후보와 현대자동차 노조 출신이라는 점을 활용하고 있는 이상범 후보간에 치열한 득표전이 벌어지고 있다. 각 후보 모두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

동구에서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갑용(44) 후보와 현대중공업노조 부위원장을 역임한 조규대(54) 후보가 맞붙었다. 이갑용 후보는 애초 출마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가 등록마감 직전 현대중공업 노조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출마했다는 후문이다. 조규대 후보가 울산광역시의원을 지내기는 했지만 이갑용 후보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라는 점이 아무래도 조합원들에게 다가가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있다.

예비경선투표를 앞두고 민주노총 울산본부에서 발행된 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노동운동의 메카≫ 울산을 ≪노동자 정치의 메카≫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울산 노동자들의 소망을 응축적으로 표현한 문구이다. 과연 이 소망이 현실화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서울로 전해지는 말들은 별로 유쾌하지 않는 소식뿐이었다.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 활동가 들려준 이야기다.

≪6만여명이 참여하는 경선치고는 분위기가 전혀 뜨지 않고 있어요. 투표하는 것 모르는 조합원이 수두룩합니다. 이래 가지고 투표율이 50% 넘을지 모르겠어요. 2000년 4·13 총선후유증 때문인지 시장 후보간의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2000년 4·13의 후유증,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이 진보진영 내부의 상식 밖의 분열로 인해 무너졌던 기억. 여전히 그 앙금이 남아 있다는 건 분명 유쾌하지 않은 소식이었다.

아무래도 이번 울산시장 예비 경선의 승패는 선거인수 2만3808명을 가진 현대자동차 노조와 1만9044명을 보유한 현대중공업노조 조합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장 조합원들은 선거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17일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만난 조합원 김아무개 씨는 조합원 총회투표에 대해 묻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뭐 유세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저는 남구에 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선거를 하긴 하나 보지요.≫

민주노총 울산본부 입장에서도 이번 예비경선투표가 총회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선거인 수 중 과반수가 넘어야 투표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조합원들 투표를 독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투표율이 얼마나 올라갈지는 미지수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울산 예비 경선에 쏠리는 외부적 관심에 비해 내부적 관심은 적은 편이다. 그 원인을 많은 사람들은 진보진영 내부의 갈등에서 찾는다. 그 갈등이 경선 일정을 한 없이 늦추게 만들었고, 선거운동 제한으로 경선 답지 않은 경선을 만들었다는 것.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98년 6·4 지방선거 때처럼 ≪정리해고≫등 노동자들의 내부결속을 추동해낼 수 있는 쟁점이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경선 결과에 불복하는 ≪대형사고≫는 없겠지만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예비경선 결과를 축으로 진보진영이 단합하지 않는다면 98년 지방선거 때와 같은 ≪바람≫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울산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한 노동운동가는 향후 양진영이 예비경선투표 결과를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느냐가 6·13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이 선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경우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열망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서로 물어뜯고 싸우면 노동자들은 돌아섭니다.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보진영이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뒷처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노동자들이 발벗고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을 겁니다.≫

지난 2000년 4·13 총선 결과를 두고 울산에 있는 진보진영 내부에서는 ≪4·13 총선에서 윤두환이 껌을 주웠다≫는 자조섞인 말이 유행했다. 민주노동당이 차지할 의석이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에게 어부지리로 돌아간 것을 빗댄 이야기다.

희망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또 다시 흩어질 것인가. 울산은 지금 ≪노동자정치의 메카≫를 향한 중요한 시험대에 서 있다.

박수원 기자
2002/04/18 오마이뉴스

미국은 한반도평화와 통일의 암적 존재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9일~10일



이번엔 ≪미국은 한반도평화와 통일의 암적 존재≫ 이런 제목으로 김현규씨 모시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지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그건 전적으로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의해 초래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 이런 화제로 얘길 나눴으면 합니다.
김현규 : 아시다시피 지난해 1월에 집권한 부시는 첫날부터 이북을 ≪제1주적≫으로 선포하고 있지도 않는 이북의 미사일위협을 떠들면서 대북강경압살정책을 일삼았습니다.
강경매파들로 꾸려진 부시행정부에 의해 6.15공동선언이후 좋게 발전하던 남북사이의 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지고 협력과 교류, 왕래가 사실상 무산과 두절의 시련을 겪고 있고 한반도정세는 전쟁전야의 초긴장상태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파괴하고 긴장을 격화시킴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강점과 지배구실을 새롭게 마련해 한반도를 기어이 전쟁의 발화점으로 만들려는 부시행정부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책동에 의해 초래된 것입니다.
사회자 : 그렇죠. 부시행정부는 이 뿐만 아니라 선임정권시기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던 북미관계개선을 완전히 뒤집지 않았습니까.
김현규 : 그렇습니다. 선임정권과 이북사이에는 적대관계와 교전관계를 완화하고 관계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한 일련의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갈래의 북미협상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에 북미관계개선에 긍정적 변화들이 일어나고 한반도의 안전과 완화의 분위기가 전개되게 됐습니다.
또 북미사이에는 북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고 미국대통령의 평양방문이 일정에 오르는 것과 같은 전변도 이룩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는 선임정부가 해놓은 이같은 일을 한순간에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들은 북미기본합의문에 대한 전면검토와 파기문제까지 들고 나오면서 북미관계개선과 관련한 일련의 긍정적인 변화들을 백지화했습니다.
사회자 : 부시호전집단은 있지도 않은 이북의 미사일위협을 떠들면서 한반도와 그 주변에 침략무력을 증강하면서 북침전쟁준비를 더욱 완성했을 뿐 아니라 미사일방어체제수립을 강행, 추진했

습니다. 특히 9.11사건이후 미국의 반북고립압살책동의 도수는 더욱 높아졌다고 보는데요.

김현규 : 반테러의 미명하에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 미국은 이북에 있지도 않는 핵문제와 미사일문제, 상용무기문제를 걸고들다 못해 ≪악의 축≫론까지 펴면서 아프가니스탄전쟁을 이북에로 확대할 기도마저 드러내놓았습니다. 최근에는 ≪핵태세 검토≫라는 비밀보고서까지 작성하고 이북을 반대하는 핵공격계획까지 꾸몄습니다.

사회자 : 부시행정부는 반북적대시정책으로 한반도정세를 긴장시키는 한편 한국정부의 내정에 노골적으로 간섭해 나서면서 남북관계발전에 훼방을 놓고 있잖아요.

김현규 : 부시가 남북관계진전을 미국의 요구에 따라 조절하며 대북정책의 추진과정을 정치, 군사협상은 물론 정부차원의 대북지원까지 포함하여 단계마다 미국의 승인밑에 할 것을 한국정부에 강박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회창과 같은 친미보수세력을 돌격대로 내세워 ≪대북퍼주기론≫과 ≪상호주의론≫을 떠들게 하면서 남북사이의 협력과 교류, 왕래도 훼방을 놀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그뿐만 아니라 부시행정부는 남북사이의 대화와 접촉이 일정에 오를 때마다 한반도정세를 긴장시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했잖아요.

김현규 :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과 11월에 남북간에는 여러 갈래의 회담과 교류, 이산가족고향방문단교환문제 등이 일정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미국은 ≪반테러≫의 명목밑에 1개 대대의 공군무력과 수많은 전쟁장비들을 한국에 추가배치하고 한반도와 그 주변에 배치된 모든 미군무력이 완전 전투태세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 당국자들로 하여금 이북을 걸고 전군과 전경찰에 비상경계조치를 취하도록 조종했습니다. 그런가하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다음번 공격대상이 이북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을 공개적으로 내돌리면서 한반도정세를 긴장시켰습니다.

이런 것으로 하여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비롯한 회담들이 결렬되고 4차 이산가족고향방문단과 태권도시범단교환도 무산되게 되었습니다.

잡지 ≪민≫ 1호가 ≪이번에 한미연합군에 비상경계령이 발동되고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게 된 것 때문에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장관급회담이 난항을 겪었고 결국 결렬되었다. 이번 비상경계령발동사태에서 드러난 것은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책동의 주범이 부시정권이라는 사실이다.≫라고 폭로한 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사회자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으려는 부시행정부의 책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이 땅에서 벌여놓은 대규모 한미합동북침전쟁연습이 그것을 웅변해주고 있죠.



김현규 : 미국은 매해 연례행사처럼 별도로 벌여오던 대규모 한미합동전쟁연습들인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전쟁연습을 합동해 지난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근 70만명의 미군과 국군을 동원해 광란적으로 벌였습니다.

더욱이 이 북침전쟁연습이 미국이 이북을 핵공격대상국으로 지명한 것과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인해 더욱 주목되었습니다. 외신들은 이 전쟁연습에 대해 팀스피리트훈련을 사실상 부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한반도정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하면서 커다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번 전쟁연습이 북침예비전쟁, 핵시험전쟁이라는 건 이미 세상에 공인된 사실이죠.

사회자 : 지금 부시행정부의 무분별한 반북적대시정책과 전쟁소동으로 말미암아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엄중히 위협당하고 남북사이의 화해와 단합, 6.15공동선언이행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제반 사실은 부시행정부의 반북적대시정책과 전쟁소동, 한국에 대한 지배와 간섭책동을 저지파탄시키지 않고서는 남북간의 화해와 단합,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 한반도통일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반부시 반미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려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이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각계 국민들은 이 땅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부시행정부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반미투쟁에 더욱 힘차게 나섬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암적 존재를 제거하는데 적극 기여해야 할겁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사회자 : 미국은 한반도에 통일기운이 짙어갈 때마다 북침전쟁연습을 벌이고 대북강경책을 쓰면서 정세를 긴장시켜서 남북관계를 대결국면으로 몰아가곤 했습니다. 미국의 간섭과 반통일책동을 저지시키지 않는 한 조국통일은 언제가도 이룰 수 없다고 할겁니다.

전민중적인 반미반부시항전으로 이 땅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미국의 식민지지배를 끝장내는 것만이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길로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겠죠.

민족통일대토론회는 민족민주운동에게 무엇을 남겼는가(발췌)

한 호 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2001년 6월 25일

(2) 53년만에 우리 민족끼리 다시 만난 전민족적 정치회합

6.15 공동선언 발표 이전에는 막연하게 생각하였던 민족통일대토론회가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의 현장에서 민족민주운동세력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보았는가? 감동과 흥분을 느끼었을 뿐인가. 그렇지 않다. 남·북·해외의 사회단체 대표들은 한 자리에서 만남으로써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직접 체험하였다.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 민족민주운동세력이 그 역사의 현장에서 확인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 가지다.

첫째, 민족통일대토론회의 정치적 의의다. 그 토론회는 2000년 6월의 평양회담과 6.15 공동선언에 의해서 마련되었다는 사실이다. 만일 평양회담과 6.15 공동선언이 없었다면 민족통일대토론회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 토론회는 6.15 공동선언이 전민족적 차원에서 커다란 실천력과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뚜렷이 입증하였다. 그 토론회는 앞으로 한(조선)민족이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추진하게 될 일련의 전민족적 정치회합의 문을 열고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의의를 가진다.

둘째, 민족통일대토론회의 민족사적 의의다. 그 토론회는 1948년 4월의 연석회의가 후대에게 남겨놓은 역사적 과업을 현 정세의 요구에 맞게 계승하였다는 데서 민족사적 의의를 가진다. 그 토론회가 계승한 역사적 과업은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민족끼리≫ 만나서 능히 단합할 수 있고 또 마땅히 단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만나서 힘을 합해야 우리 민족의 문제, 곧 제국주의세력과 친미예속세력을 타파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민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1948년의 연석회의에서 발표한 문서 ≪전조선동포에게 격함≫은 ≪우리 조국강토에서 외국군대를 철거하고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 우리 민족끼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라!≫고 호소하였으며, 이번에 민족통일대토론회에서 발표한 ≪공동보도문≫은 ≪민족통일대토론회 참가자들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것은 자주통일의 근본담보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6.15 공동선언의 제1항을 전민족적인 차원에서 다시 천명한 것이다.

셋째, 민족민주운동세력은 민족통일대토론회에서 한(조선)민족에게 제기되어 있는 민족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민족통일대토론회에서 토론한 민족문제란 무엇인가? 그 토론회장에 내걸렸던 구호에서 알 수 있듯이, 그 토론회에서 다루었던 민족문제의 본질은 민족자주, 조국통일, 화해협력이라는 세 가지 구호로 집약된다. 이 세 가지 구호의 대척점에는 제국주의, 분단체제, 민족분열주의라는 적대적 개념이 도사리고 있다. 민족통일대토론회에서 민족자주라는 구호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족자주의 과업으로 제시되었다면, 화해협력이라는 구호는 민족분열주의를 반대하는 민족화해의 과업으로, 조국통일이라는 구호는 민족자주와 민족화해에 의하여, 그것을 통하여 실현되는 역사적 과업으로 각각 제시되었다. 그 토론회장에 내걸린 세 가지 구호는 6.15 공동선언의 내용을 집약한 구호였다.

한 마디로 말하여, 민족통일대토론회는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난 전민족적인 정치회합이었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하여 생겨나는 민족의 힘을 나라 안팎에 과시한 역사적인 회합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흔히 민족통일대토론회가 남과 북의 사회단체들이 만난 ≪토론회≫였다고 간단하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러한 평가는 피상적인 관찰에서 나온 오류이다. 그것은 비록 토론회의 형식을 빌려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전민족적인 정치회합이었다.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 까닭은, 그 회합이 3대 지역의 사회정치세력이 만난 전민족적인 회합이었으며, 동시에 3대 사회정치세력이 만난 정치회합이었기 때문이다.

첫째, 3대 지역의 사회정치세력이 만난 전민족적인 회합이라는 말은 남·북·해외 3개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정치세력이 만났다는 뜻이다. 1948년의 연석회의가 남과 북의 사회정치세력이 만나는 정치회합이었던 것에 비하여 2001년의 민족통일대토론회는 남·북·해외 3개 지역의 사회정치세력이 만나는 전민족적 정치회합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53년 동안 한(조선)민족의 내부구성이 더 복잡하게 전개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지금 해외 여러 지역에는 약 500만 명이 더 되는 해외동포사회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해외동포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정치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해외의 여러 사회단체들을 대표하는 20명이 이번 민족통일대토론회에 참가하였다.

둘째, 3대 사회정치세력이 만난 정치회합이라는 말은 북(조선)의 사회주의혁명세력, 남(한국)의 민족민주운동세력과 민족주의운동세력이 만났다는 뜻이다. 분단시대 초기였던 1948년의 연석회의가 사회주의혁명세력과 민족주의운동세력의 정치회합이었던 것에 비하여, 분단시대 말기인 2001년의 민족통일대토론회는 사회주의혁명세력, 민족민주운동세력, 민족주의운동세력의 3자 정치회합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1948년부터 지금까지 53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한(조선)민족 내부의 사상·이념적 지형이 좀더 복잡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그 사상·이념적 지형은 주체사상, 민족민주운동이념, 민족주의이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제국주의, 친미사대주의, 부르주아사상이 적대적 개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민족통일대토론회에 참가한 북(조선)의 사회주의혁명세력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그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조선로동당의 사회정치세력이며, 남(한국)의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자주·민주·통일의 강령으로 표현되는 민족민주운동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회정치세력이다. 그리고 남(한국)의 민족주의운동세력은 민족주의를 신봉하거나 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사회정치세력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민족민주운동세력과 민족주의운동세력을 구분하지 못하고 동일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특히 남(한국)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김구선생을 만나주시었다. (1948.4)

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좌파세력≫은 이 두 세력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또는 구분하지 못하고) 그저 민족주의운동세력이라고 통틀어 부르고 있는 데 그것은 커다란 잘못이다. 이 두 세력의 차이는 분명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은 민족민주운동세력 자신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민족민주운동세력은 한(조선)민족의 역사로부터 자기에게 부여된 지위, 역할, 임무가 민족주의운동세력의 지위, 역할, 임무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정세변화에 따라 동요하기 쉬운 민족주의운동세력을 견인할 수 있으며, 제국주의세력과 친미예속세력을 반대하는 투쟁 속에서 자신을 장성시킬 수 있으며, 그 불패의 역량으로 민족주의운동세력과 연대를 강화할 수 있다. 몇 가지 차이를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민족민주운동세력은 남(한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양대 계급운동세력인 노동계급운동과 농민계급운동의 역량을 중심으로 하여 자주·민주·통일의 강령을 구현하려는 정당과 사회단체가 망라된 사회정치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민족주의운동세력은 소자산계급적 성향의 사회단체, 종교단체, 시민운동단체의 역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민족주의운동세력은 단일한 지휘체계, 단결된 조직체계에 의하여 움직이는 세력이 아니다. 복잡하고 불규칙하게 흩어져 활동하고 있는 민족주의운동세력의 갈래를 크게 나누면 대략 좌파와 우파로 구분된다. 민족주의운동의 좌파는 남북 사이의 정치적 화해를 추구하는 세력이고 그 우파는 남북 사이의 비정치적 교류·협력을 추구하는 세력이다. 민족주의운동세력의 내부가 이처럼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는 주된 원인은 민족주의가 단일한 지휘체계, 단결된 조직체계를 꺼려하는 소자산계급의 이념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노동계급, 농민계급의 계급적 이해관계가 각각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데 반하여, 소자산계급의 계급적 이해관계는 매우 다양하고 분산적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일제 식민지 시기의 역사적 경험을 돌아보면, 자기의 계급적 성향과 그 한계 때문에 식민지 민중(노동계급과 농민계급)의 계급적 요구를 경시하거나 외면했던 민족주의운동세력은 점차 쇠퇴하였고 그 가운데 일부세력은 나중에 민족주의운동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반제민족해방운동으로 전환·포섭되었다.

둘째, 남(한국)의 민족민주운동세력과 북(조선)의 사회주의혁명세력은 서로 이념적 친화성을 지니고 있는 데 반하여, 남(한국)의 민족주의운동세력과 북(조선)의 사회주의혁명세력은 그러한 이념적 친화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이념적 친화성에 대해서 반통일세력은 ≪친북≫이니 ≪이적≫이니 떠들며 마치 난리가 터진 것처럼 소동을 피우고 있다. 민족민주운동세력과 사회주의혁명세력이 사상이 서로 다른 데도 이념적 친화성을 지니게 되는 원인은 그 두 세력이 제국주의세력과 친미예속세력을 반대·배격하는 민족적 단결에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념적 친화성은 그 두 세력이 민족대단결사상을 사상적 공통성으로 지니고 있다는 데서 확인된다. 남(한국)의 민족주의운동세력도 민족적 단결에 대해서 때로 말하고 있지만, 민족주의라는 이념 자체가 민족적 단결에 대한 이론적 체계와 내용이 빈약할 뿐 아니라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운동은 민족감정에 호소하거나 민족감정에 좌우되는 경향이 지배적이므로 민족주의운동세력도 민족민주운동세력과 마찬가지로 민족대단결사상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민족대단결사상은 민족자주의 과업과 민족화해의 과업을 모두 포괄하는 사상이다. 그러므로 한(조선)민족의 민족자주와 민족화해의 과업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민족대단결사상에 의해서 완수될 것이다. 민족대단결사상은 민족주의도 포괄하고 있다. 민족대단결사상은 민족반역세력을 제외한 모든 민족성원의 이익과 요구를 포괄하는 폭넓은 사상이며, 민족성원이라면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의 사상이다.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이념적 친화성이 민족대단결사상의 공통성에 있으므로 그것에 대해서 이른바 ≪친북≫이니 ≪이적≫이니 하는 공격과 배척을 들이대는 세력이야말로 민족분열주의세력으로 낙인찍혀야 한다.

셋째,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친미예속정권을 자주적 민주정권으로 교체하기 위한 전략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데 비해, 민족주의운동세력에게는 그러한 전략목표가 없다. 민족주의운동세력에게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전략목표가 없으므로 친미예속정권에 대한 투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정세가 불리하면 그 정권에 대한 태도가 타협이나 투항으로 흐르기 쉽다.

넷째, 민족민주운동세력과 민족주의운동세력은 다같이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있지만, 전자는 민중의 계급적 이익을 쟁취하기 위한 전략목표를 제시하고 제국주의의 지배와 수탈을 반대하는 민족자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데 비해 후자는 몰계급적인 반외세 민족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민족민주운동세력과 민족주의운동세력 사이에는 이처럼 여러 가지 차이가 가로놓여 있지만 북(조선)의 사회주의혁명세력을 만나기 위해 같은 배를 타고 북녘땅을 찾았고 민족자주, 화해협력, 조국통일의 기치 아래 마침내 3자 화해의 손을 잡았다. 민족통일대토론회는 이 3대 세력이 한 자리에 모임으로써 성사된 민족화해의 정치회합이었다.

(3) 민족통일대토론회가 민족민주운동에게 남겨준 과제

1948년의 연석회의가 남북의 정당과 사회단체 대표들이 거의 모두 참가한 정치회합이었다면, 2001년의 민족통일대토론회는 민주노동당만 자기의 대표를 참가시킨 가운데 주로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정치회합이었다. 그러므로 연석회의에서 토론한 내용, 채택한 문서와 민족통일대토론회에서 ≪6.15 공동선언과 민족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토론한 내용, 채택한 문서의 수준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석회의에서는 ≪조선 정치정세에 관한 결정서≫, ≪전 조선동포에게 격함,≫ ≪사회주의 쏘비에트 연방공화국 정부와 북미합중국 정부에 보내는 전 조선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요청서≫가 채택·발표되었고, 민족통일대토론회에서는 ≪6.15 공동선언 발표 1돌 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 공동보도문≫과 ≪일본당국의 역사왜곡책동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발표되었다. 문서를 채택·발표한 형식이 결의문이 아니라 보도문이었다는 사실에서도 연석회의와 민족통

일대토론회의 수준 차이가 엿보인다.

민족통일대토론회에서 토론한 내용과 채택한 문서는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종적 지향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반제투쟁노선과 연방제 통일을 지향하는 조국통일방안이 뚜렷이 제시되지 못했다. 전투적인 반제노선을 천명한 것이 아니라 외세는 한(조선)민족의 통일노력을 방해하지 말라는 정도의 온건한 내용을 발표하였을 뿐 아니라, 그 외세가 아메리카제국주의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지적하기도 힘들었다. 따라서 한(조선)민족이 수행해야 하는 최대의 당면과제인 주한미군을 철퇴하는 문제는 언급하지 못하였다. 또한 민족통일대토론회에서는 연방제 통일의 정당성과 실현방도에 관하여서도 언급하지 못하였다. 그 대신 조국통일, 또는 한(조선)반도의 평화통일이라는 포괄적 개념이 제시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은 민족통일대토론회가 연석회의와 비교하여 정치적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말해준다. 연석회의에서는 미·소 양군이 동시에 철퇴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민족분열주의세력의 단독선거 강행책동 및 단독정부 수립책동을 반대하고 전조선의 통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을 합의·결정했으며 그 결정을 당면과제로 내세우고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한 마디로 말하여, 제국주의세력과 친미예속세력에 대해서 연석회의는 비타협적인 투쟁을 결의한 정치회합으로 되었던 것에 비해 민족통일대토론회는 상대적으로 덜 투쟁적인 정치회합이었다. 민족통일대토론회에서 주한미군 철퇴문제와 연방제 통일문제가 언급되지 못한 까닭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라고 생각된다.

첫째, 미국 정부와 남(한국) 정부당국이 주한미군 철퇴와 연방제 통일을 반대하고 있는 조건에서 만일 민족통일대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 미국 정부와 남(한국) 정부당국은 앞으로 민족통일대토론회를 비롯한 남북 사회단체들의 모든 정치회합을 봉쇄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민족통일대토론회를 이번에 한 차례로 끝낸다면 모르지만, 북(조선)의 사회주의혁명세력이나 남(한국)의 민족민주운동세력이 민족주의운동세력과 함께 앞으로 3자 정치회합의 수준과 내용을 높여가면서 민족통일전선을 강화하려면 처음부터 주한미군 철퇴와 연방제 통일을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둘째, 남측에서 참가한 사회단체 대표들 가운데 민족주의운동세력에 소속된 성원들 거의 모두는 주한미군 철퇴와 연방제 통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반대하는 견해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민족통일대토론회에서 북(조선)의 사회주의혁명세력이나 남(한국)의 민족민주운동세력이 그러한 현실조건을 무시하고 민족주의운동세력에게 주한미군 철퇴와 연방제 통일을 합의하자고 요구할 수 없었다.

이러한 요인을 생각할 때, 앞으로 민족민주운동세력이 민족통일대토론회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가면서 그 수준을 어떻게 끌어올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민족통일대토론회가 민족민주운동에게 남겨준 중대한 과제는 민족자주의 위업과 연방제 통일의 위업을 민족주의운동세력과 합의하고 그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을 결의하는 높은 수준의 정치회합으로 차츰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민족민주운동은 이번에 민족통일대토론회의 경험을 통하여 그러한 과제와 발전전망을 지니게 되었다.

민족통일대토론회에 참가한 대표들은 옷차림만큼이나 각양각색이었다. 태어나 살고 있는 지역도 서로 다르고, 생활방식과 생활경험, 그리고 사상과 정견도 서로 다르고, 계급적 처지도 서로 달랐다. 언뜻 훑어보면 공통성이라고는 없을 것 같은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것은 역시 ≪민족≫이라는 사회적 집단의 일치성과 공동의 이해관계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민족이라는 사회적 집단을 이루고 있는 민족성원이라는 일치성 위에 서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민족분열주의세력의 분열고착화책동, 이질화책동에 의하여 오래 동안 잊고 지내왔던 민족의 동질성을 고스란히 되찾았다. 민족통일대토론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민족이라는 주제로 일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민족통일대토론회는 민족민주운동세력이 민족관을 정립하고 민족자주사상으로 무장하는 과제를 제기하였다.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정립해야 할 민족관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민족은 사회·역사적으로 형성·발전된 가장 공고한 사회적 집단이며, 근대국가를 조직·건설하는 역사발전의 주체라는 두 가지 명제로 정리될 수 있다.

민족관의 첫째 명제에 따르면, 민족이 사회·역사적으로 형성·발전되면서 공고한 사회적 집단으로 등장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것은 혈통문제와 언어문제라는 사실이다. 혈통과 언어를 일체화하고 단일화하는 기나긴 과정을 거쳐야 민족이라는 사회적 집단이 형성되는 것이다. 여기서 민족의 혈통이라는 개념은 생물학적으로 입증되는 종족 혈통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혈통이 서로 다른 여러 종족이 사회·역사적 과정에서 융합되어 형성된 개념이다.

민족관의 둘째 명제에 따르면, 19세기말에서 20세기에 들어서는 전환기에 동아시아 지역에 등장했던 근대국가들은 민족이라는 사회적 집단에 의하여 건설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근대국가는 중화민족에 의하여, 일본국은 야마도민족에 의하여, 몽골인민공화국은 몽골민족에 의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은 베트남민족에 의하여 각각 건설되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근대국가를 건설하는 역사적 임무는 전근대적 봉건국가를 근대국가로 교체하는 것과 더불어 민족이라는 공고한 사회적 집단의 힘으로 제국주의 세력이 강요한 식민지체제를 타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근대국가를 건설하는 임무는 반제민족해방운동의 임무와 일치되었다. 물론 동아시아에서 일본은 예외적으로 동아시아 여러 민족을 지배하고 수탈하는 제국주의화의 길로 나아갔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이에 비하여 유럽지역에서 근대국가를 건설하는 역사적 임무는 중세기의 낡은 봉건지배계급을 타도하는 데에 집중되었으며, 따라서 그 지역에서 근대국가를 건설하는 임무는 계급모순을 극복하는 사회혁명의 과제와 일치되었다. 동아시아에서는 민족이라는 사회적 집단이 구심력이 되어 근대국가를 건설했던 것에 비하여, 유럽에서는 계급이라는 사회적 집단이 구심력이 되어 근대국가를 건설했다. 그러므로 유럽의 계급중심적 근대국가 건설경험과 동아시아의 민족중심적 근대국가 건설경험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의 차이는 사회관, 국가관, 계급관의 차이를 수반한다. 동아시아와 유럽에서 근대국가를 건설한 경험과 건설의 원리는 그렇게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근대국가를 건설했던 유럽의 역사적 경험에는 동아시아의 역사적 경험에서 형성된 ≪민족≫이라는 사회·역사적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인에게 민족의 역사적 경험과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민족이라는 말 자체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유럽인의 지적 능력에 의하여 구성된 계급과 국가에 관한 모든 담론은, 그것이 부르주아적 담론이건 마르크스·레닌주의적 담론이건 간에 모두 계급중심적 근대국가 건설이라는 유럽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런 까닭에 계급과 국가에 관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혁명론을 남(한국)의 사회변혁이론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좌파세력≫의 시도는 몰역사적인 오류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동아시아에서 중화민족, 야마도민족, 몽골민족, 베트남민족은 근대국가를 건설하는 역사적 임무를 완수하였으나, 유독 한(조선)민족은 근대국가 건설의 임무를 아직 완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중화인민공화국이 아직 대만을 통합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들도 근대국가 건설의 임무를 아직 완수하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엄

밀하게 말하여 대만은 주권국가가 아니라 아직 통합되지 못한 중화인민공화국의 변방으로 분류되므로 중화민족은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으로 그 임무를 완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근대국가 건설이라는 역사적 과업의 견지에서 보면 한(조선)민족의 조국통일과업은 곧 민족분열을 극복한 근대국가, 곧 범민족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과업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한(조선)민족이 범민족통일국가를 아직 건설하지 못하고 있는 결정적인 원인은 제국주의세력에 의해서 형성되고 그 세력에 의해서 유지 · 관리되고 있는 분단체제가 근대국가를 건설하는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제국주의세력은 한(조선)반도를 분할하고 분단체제를 세움으로써 단일민족을 갈라놓았으며, 통일된 근대국가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지금까지 민족분열책동을 지속하고 있다.

한(조선)민족은 하나의 민족국가로 통합되지 못한 채 여러 종족으로 분산되어 존재했던 봉건국가의 전근대성을 극복하여 근대국가를 건설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범민족통일국가를 건설하려는 것이 아니다. 한(조선)민족은 원래 단일민족으로 살아오다가 제국주의세력의 식민지체제와 그 뒤를 이어 생겨난 제국주의세력의 분단체제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분열된 민족을 하나의 민족국가로 통합하는 특수한 방식으로 범민족통일국가를 건설하려는 것이다.

한(조선)민족이 통일된 근대국가를 건설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역사적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족분열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은 이미 지적하였다. 문제는 민족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 분단체제를 유지 · 관리하고 있는 제국주의세력의 민족분열책동을 반대하고 배격하는 것이다. 민족민주운동세력은 민족주의운동세력, 사회주의혁명세력과 손잡고 제국주의세력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민족관은 제국주의세력을 반대 · 배격하는 민족자주사상을 자기의 사상적 기초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민족통일대토론회는 민족민주운동세력이 민족관을 정립하고 민족자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둘째, 민족통일대토론회는 민족민주운동세력에게 친미예속세력을 타파하는 과제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 한(조선)민족의 현실에서 제국주의세력에게 종속적으로 결탁되어 있는 반역세력은 친미예속세력이며, 바로 그 친미예속세력이 민족자주와 민족화해를 가로막고 있는 민족분열주의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친미예속세력은 곧 반통일세력이다. 1948년의 연석회의에서 발표된 문서 ≪전 조선동포에게 격함≫은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의 국토를 양단하며 우리 조국을 또다시 새로운 식민지 예속물로 되게 하는 것을 도와주는 놈들을 민족 천추의 죄인으로 저주할 것이며, 자손만대의 반역자로 낙인할 것≫이라고 단죄한 바 있는 데, 오늘의 민족민주운동세력은 그 내용 그대로 친미예속세력을 ≪천추의 죄인≫으로 ≪자손만대의 반역자≫로 단죄하고 있다.

1948년의 연석회의에서 채택된 ≪조선 정치정세에 관한 결정서≫에서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그들과 야합한 민족반역자 친일파들의 음흉한 배족망국적 시도를 반대≫한다고 선언했던 내용은 53년이 지난 오늘도 그대로 유효하다. 친미예속세력을 타파하지 않고서는 민족분열을 극복하고 민족화해의 위업을 실현할 수 없다. 민족화해가 실현되지 못하면 6.15 공동성명에 제시된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을 실현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민족화해가 실현되면 그것이 곧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을 실현하는 것이며 6.15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통일방안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6.15 공동성명에서 제시된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을 실현하려면 친미예속세력을 타파해야 한다.

친미예속세력을 타파하기 위해서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것이다. 지금처럼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는 조건이라면 민족통일대토론회와 같은 전민족적 단합의 계기가 앞으로 계속 마련된다고 해도 남(한국)의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주한미군 철퇴와 연방제 통일에 관하여 자유롭게 자기의 의사를 밝히고 논의하기 힘들 것이며 정세변화에 따라 동요하기 쉬운 민족주의운동세력을 자주통일의 길로 견인하기도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어떻게 하여야 민족통일대토론회를 높은 수준의 전민족적 정치회합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은 과제이며, 민족민주운동의 장래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과제이다. 이 과제를 수행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민족통일대토론회 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현상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민족통일대토론회에 참가한 남측 인원은 약 450명이었다. 그 가운데 대표는 200명이었다. 대표와 참관인을 가르지 않고 450여 명 모두를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면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데, 민족민주운동단체에 소속된 성원들과 민족주의 성향의 단체에 소속된 성원들이다. 그 비율을 살펴보면, 민족민주운동단체 성원은 약 25퍼센트였고, 민족주의 성향의 단체에 속한 성원은 약 70퍼센트였다. 그 밖에 반공 · 반북 성향의 단체에 속한 성원은 약 5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다. 1948년의 연석회의에 참석한 남측 대표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약 58퍼센트, 그리고 민족주의운동세력이 약 42퍼센트였다. 1948년의 연석회의에 참가했던 민족민주운동세력은 다수집단이었던 것에 비하여, 2001년의 민족통일대토론회에 참가한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양적으로 소수집단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소수집단인 민족민주운동세력이 다수집단인 민족주의운동세력을 앞으로 어떻게 상대해야 하며 그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남(한국)의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서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북(조선)의 사회주의혁명세력과 남(한국)의 민족주의운동세력을 만나는 자리, 바로 그곳이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서야 할 자리이다. 민족민주운동세력이 그 만남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말은 중립적 회색공간에 안주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두 세력을 민족적 단결의 길에서 서로 연결시키는 자기의 고유한 정치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는 뜻이다.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서야 할 그 만남의 자리는 민족대단결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고난의 자리이며, 나라 안팎에서 준동하고 있는 민족분열주의세력의 온갖 방해책동을 제거하는 투쟁의 자리이다. 민족민주운동세력이 그 만남의 자리에서 자신의 몸을 일으켜 세울 때, 북(조선)의 사회주의혁명세력과 연대하는 투쟁을 전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남(한국)의 민족주의운동세력을 자주 · 민주 · 통일의 길로 이끌어 가는 민족통일전선운동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1948년의 연석회의에서 발표된 ≪결정서≫에서 ≪조선에서 외국군대를 즉시 철거하고 조선인민이 자기 손으로 통일적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수립할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했던 내용은 53년이 지난 오늘도 그대로 유효하다. 지금 민족민주운동세력은 통일정세를 관망하거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여 어물어물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제국주의세력을 반대하는 대중투쟁을 조직 · 추동하고 친미예속세력을 타격 · 제거하는 정치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피아의 역량관계를 잘 타산하고 그에 기초하여 영민한 전략과 전술을 내놓고 대담한 작전을 펼쳐야 한다. 지금처럼 통일정세가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시기야말로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자기의 재능과 열정을 남김 없이 바쳐 전선운동의 투쟁력과 조직력을 비상히 강화해야 할 때다.

영원한 태양절

-러시아 시인 산타노로보 레오나드 빠블로이치야-

1912년 4월 15일
역사에 아로새겨진 이날은
세기의 위인이신 **김일성**동지
주체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신
전설적인 날이어라

유구한 역사에서
인류가 맞이한 이날은
장엄한 태양의 해돋이로
온 누리가 밝아온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 날이어라

해마다 만민이 경사로 맞는 이 날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그리며
영광의 꽃다발 삼가 드리고
경모의 노래 삼가 드리는
영원한 태양의 명절이어라

이날에 시작되었어라
꽃피는 만경대의 일만경치와 더불어
동방조선의 새봄이
약동하는 세상만물과 함께
자주궤도의 새봄이

이날 있어 어둡던 조선에
조국광복의 서광이 비치고
희망의 붉은 노을 펼쳐졌어라
빛나는 이날이 있어
식민지 멍에에 짓눌렸던 민중들이
새 삶의 참된 주인이 되어
주체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리니

정녕 태양절, 이날이 있어
아름다운 조선의 강산에
민중의 염원이 활짝 꽃펴나고
선군의 총창 높이 치켜든
조선의 병사들
사회주의위업을 수호하여라

흠모의 노래
그리움의 노래
온 세상에 울려퍼지는 태양절
자주, 친선, 단결의 노래와 함께
영생불멸의 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끝없이 메아리치는 태양절이여

아! 언제나 인류의 마음속에
기리 빛나는 4월의 태양절
이 땅에 천만년 세월이 흘러도
세계는 맞이하고 또 맞이하리라
태양절, 영원한 인류의 명절이여!

주체91 4월 8일

사교육의 1번지라 일컬어지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모학원 강의실에서 4월 5일 아침 **김일성**주석님 칭송인쇄물들이 발견됐습니다.

엽서크기의 인쇄물 앞면에는 ≪**김일성**주석님은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라는 글발아래 환히 웃으시는 주석님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 있습니다.

뒷면에는 ≪태양은 영원합니다≫라는 표제의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김일성**주석님은 희세의 위인적 풍모로 민족과 시대를 이끄신 영원한 태양이시옵니다. 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 민족운명의 수호자,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 **김일성**주석님은 **김정일**장군님 계시어 오늘도 우리 민족과 함께 계시옵니다.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솟아 우리 앞길 밝혀주고 계시옵니다. 위대한 태양절 만세!≫

그것을 본 강사와 수강생들은 태양절을 맞으며 더욱 높아가는 우리 민중의 주석경모의 마음이 거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가 앞으로의 조국통일운동과제를 밝히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2002년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 통일일군전진대회 참가자들이 지난 3월 30일 ≪범청학련 남측본부관련 구속자석방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전남지역 대학생과 중고등학생 등 인터넷을 통해 조성된 광주전남 네티즌연합 회원 100여명은 지난 5일 오후 3시 조선대 후문 헌혈의 집앞에서 미국의 전투기강매에 대한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평양을 방문한 김연자씨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4월 **김정일**장군님의 접견을 받은데 대해 감회깊이 회고하면서 예술에 대한 깊은 조예를 지니고 계시는 장군님께서는 자기의 공연을 보아주시고 노래를 잘 부른다고 치하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날의 영광을 깊이 간직하고 형상수준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통일열망으로 가슴 불태워왔다면서 하루빨리 우리 조국이 통일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족의 가수로써 하나된 조국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다면서 **김정일**장군님을 다시 만나 뵈올 그날을 그리며 더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제20차 4월의 봄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가수 김연자씨가 6일 가요문화회관에서 첫 공연의 막을 올렸다고 평양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피해자들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영령추모전국대회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앞에서 열렸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7일 덴마크공산당(마르크스레닌주의)대표단이 주석님께 경의를 표시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태양절과 조선인민군창건 70돌에 즈음해 2일과 3일 루마니아공산당과 독일 공산당 청사들에서 기념집회가 진행됐습니다.

태양절에 즈음해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에서 3월 27일 잡지 ≪자주의 항로≫ 창간호를 발행했습니다.

주체91 4월 9일

범청학련 남측본부가 지난 2일 반통일세력의 탄압책동을 과감히 짓부수고 6.15공동선언실천, 반미반전운동의 선봉대가 될 것을 주장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미군부대이전계획과 관련해 경기도 이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반대운동에 나섰습니다.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부산지역청년학생연대가 지난 2일 ≪범청학련 구속자를 석방하고 보안법을 철폐하라, 6.15공동선언방해, 범청학련,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소속 학생 1천여명은 6일 오후 대구교대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등록금인상반대, 학생징계철회 등을 대구교대측에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과 서울 조선족교회 등 노동사회단체들은 지난 7일 서울 을지로5가 한 공원에서 외국인 노동자 등 8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정부의 불법체류자방지대책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각계 민중은 미국은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수라며 반미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하루 빨리 끝장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국연합소속의 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리 민족을 남북으로 갈라놓은 장본인일뿐 아니라 우리 나라의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는 철천지 원수이다. 그리고 이 땅을 반세기가 넘도록 강점하고 식민지통치를 실시하고 있는 침략자, 약탈자이다. 미국놈들 때문에 우리 겨레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다. 6.25전쟁시기 미군이 감행한 야수적인 양민대량살상만행은 미군이야말로 짐승보다도 못한 악당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특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부시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동족인 북에 대해 핵공격을 가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들며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북에 대한 핵공격 위협은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핵몽둥이를 휘둘러대며 세계를 지배해보려는 부시는 핵악당이다. 물불을 모르고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도발하려는 부시일당을 방치해두었다가는 핵참화를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민중은 민족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 반미반부시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야 한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한 주민은 미국은 우리 민족의 백년숙적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부시일당이 하는 짓을 보면 정말 분통이 터져오름을 금할 수 없다. 미군기지반환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오히려 새 땅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미국전투기들을 무조건 사라고 강박하고 있다. 또 이 땅에서 핵전쟁을 도발하려고 광분하고 있다. 정말 미국놈들이야말로 침략자, 약탈자, 전쟁광신자들이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미국에 대한 우리 겨레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듯 높고 강렬한 것이다. 우리는 반미반부시투쟁에 거족적으로 일어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미국놈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야 한다.≫

이회창필패론을 둘러싼 이회창, 최병렬 후보간의 공방이 점차 가열되고 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9돌 경축 중앙보고대회가 8일 평양의 가요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주체91 4월 10일

뜻깊은 태양절을 앞두고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는 ≪태양회≫회원들이 태양절맞이 순례여행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6일 부산을 떠난 그들은 화진포를 거쳐 서울과 포항 등 **김일성**주석님의 발

자취가 깃든 역사의 고향들에 대한 순례여행을 벌였습니다.

순례여행 소감에 대해 ≪태양회≫회원 김은하씨는 민족의 영원한 어버이이신 **김일성**주석님을 경모하는 마음이 우리를 떠밀어 순례여행에 나서게 됐다며 겨레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주석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토로했으며 회원 한범석씨는 주석님 다녀가셨던 뜻깊은 도시를 찾으니 우리 민중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은덕이 되새겨져 가슴 뜨거웠다며 조국광복과 민족의 통일을 위해 바치신 주석님의 위대한 한평생을 7천만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산지역 ≪태양회≫회원들의 이번 순례여행은 **김일성**주석님의 90회 생신을 뜻깊게 기념하려는 불타는 마음의 표출로 때이르게 찾아온 봄과 더불어 우리 민중의 가슴속에 아름다운 광명의 꽃, 충정의 꽃을 활짝 피우기로 했습니다.

한총련이 연합토지관리계획후속회담 결과를 규탄해 5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대책위원회, 범청학련관련 구속자석방대책위원회, 미상공회의소점거농성구속자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보안법폐지,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수요거리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내년도 일본 고교 교과서 최신일본사가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원들이 6일 생존권 고용안정보장을 외치며 한강대교 교각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였습니다.

한나라당 경선후보인 최병렬의원이 이회창을 반대하고 나서 한나라당내분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토니 블레어영국총리는 7일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뿐 아니라 이북을 비롯한 부시대통령이 ≪악의 축≫으로 주목한 국가들에 대한 행동도 구현할 것이라고 떠들었습니다.

태양절에 즈음해 재중동포들이 8일 중국 길림 등에서 기념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태양절에 즈음해 러시아연방 푸틴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왔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주체91 4월 11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새로 건설된 인민무력부선물관을 돌아보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4월 10일 제20차 4월의 봄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 온 일본에서 활동하는 이남가수 김연자일행을 접견하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민예총산하에서 활약하고 있는 연예인 강성모씨가 4월 11일 평양에서 제20차 4월의 봄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가수 김연자씨의 공연소식을 전하면서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연자씨는 지난해 **김일성**주석님의 탄신절을 맞아 방북해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 노래를 불러 대절찬을 받았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평양무대에서 이북 민중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김정일**장군님의 접견을 받는 영광까지 지녔다. 김연자씨야말로 복받은 대행운아이다. 우리 이남의 연예인들도 그녀처럼 평양 가서 이런 영광을 지녀봤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민심이 천심이라고 나는 우리 소원이 풀릴 날이 꼭 오리라고 생각한다. **김정일**장군님만을 믿고 통일운동에 혼신을 다바치겠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주한미군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여론조사단체인 ≪바른소리센터≫가 최근 각계층 성인남녀 1520명을 상대로 ≪미군주둔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데 따르면 응답자의 95.5%가 하루빨리 철수시켜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써 주한미군이 통일의 방해자, 북침전쟁의 온상, 각종 범죄의 화근이기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6.15공동선언을 통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하자고 합의한 조건에서 미군의 주둔명분이 더이상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머지 4.5%는 잘 모르겠다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문화일보가 지난 2월 중순 부시의 ≪악의 축≫망발과 관련해 각계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그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은 일본 고교 역사교과서인 최신일본사의 독도영유권기술 등과 관련해 규탄성명을 내고 일본의 역사왜곡시정을 촉구했습니다.

국회독도사랑의원모임은 성명을 통해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역사교과서들에 독도영유권주장 등 역사왜곡은 신군국주의의 만용에 사로잡힌 제2의 한국침략의도인 동시에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비난하고 즉각적인 시정과 사죄를 일본측에 촉구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민주당 노무현후보의 언론관련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언론실세의 언론관부터 정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나라당 이부영후보는 이회창, 최병렬후보측의 이른바 보수대연합론은 필패의 카드라며 이같은 행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차대전당시 일본군에 끌려가 희생된 전쟁피해여성문제해결을 위한 유엔의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교포신문 ≪민족시보≫가 한일투자협정을 거부할 것을 주장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을 맞으며 이북의 농업근로자들의 맹세모임이 10일 청산리에 모신 주석님의 동상앞에서 진행됐습니다.

주체91 4월 12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4월 11일 조선인민군 제834군부대를 시찰하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 중앙위원회가 7일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6일 성명을 내고 연합토지관리계획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경기남부지구대학총학생회연합은 8일 이회창을 비롯한 한나라당호전세력들이 꾸며낸 ≪대북기본노선≫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소속 회원 10여명은 11일 교육인적자원부를 방문해 일본교과서왜곡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의 한 인사가 이회창은 한나라당 경선후보를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극우익보수분자인 이회창이 대통령감투를 써보겠다고 경선에 나선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세에 처한 이회창은 보수대연합으로 정권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회창은 심지어 국민의 배척을 당한 자민련총재 김종필을 한나라당총재로 영입해 대선후보로 나서려고 하는데 정말 어리석은 망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국민은 망국적인 보수에 집착하려는 인물은 절대 반대한다. 새 세기에 맞게 진보와 자주, 통일지향적인 인물이 대권주자로 나설 것을 원하고 있고 또 그런 인물에 지지표를 찍을 것이다. 이회창으로 말하면 극우익적인 친미친일분자이고 6.15공동선언을 파괴하고 남북대결과 전쟁위험을 조성하면서 통일을 반대하는 극악한 민족반역자이다. 자기 자신도 모르고 대통령병에 걸려 돌아치는 이회창은 철면피하고 가련한 자이다. 이회창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한나라당 내부에서까지 이회창필패론이 대두하고 있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회창은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

통일연대의 한 관계자는 만일 이회창이 집권하면 전쟁이 터질 것이라며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회창과 같이 극악한 반공반북히스테리는 처음 본다면서 ≪이회창은 매우 위험한 인물이다. 부시의 대북강경정책을 지지하며 한반도에 핵전쟁위기를 몰아오려고 광분하는 이회창을 그냥 내버려둔다면 전민족이 핵참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충견노릇을 하는 이회창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을 맞으며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가 수여됐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에 즈음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이북 주재 외교단이 축하편지를 드렸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을 찾아 11일 해외동포들과 외국손님들, 항일혁명투쟁연고자들의 가족일행 등이 경모의 정을 표시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태양절에 즈음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11일 이북 주재 여러 나라 대사관문화 및 친선관계일군들이 주석님께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에 즈음해 사회주의조국에 온 조총련 남승우부의장은 10일 평양에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최근 조선노동당출판사에서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문헌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업을 계승완성할데 대하여≫를 출판했습니다.

주체91 4월 13일

지난 8일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재야인사 김지수씨가 평양방송을 통해 제20차 4월의 봄친선예술축전이 개최된다는 소식에 접해 동료들에게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세상에는 국제적인 축제들이 수없이 많지만 한나라 영수의 탄생일을 기념해서 해마다 세계 유명연예인들이 모여 노래부르고 춤추며 기쁨을 나누는 축제는 없었다. 이것은 **김일성**주석님께서 한평생 우리 민족과 세계 자주화위업을 위해 쌓으신 공적이 너무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이다. 위인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민중의 흠모의 열정도 배가되기 마련이다. 태양이 있어 자연의 봄이 있는 것처럼 **김일성**주석님께서 탄생하신 4월의 봄이 있어 인류의 봄노래, 위인칭송의 노래는 영원히 울려 퍼질 것이다.≫

김씨는 계속해서 세계가 경모하는 절세위인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모신 민족적 자긍심을 금할 수 없다며 주석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떠안고 받들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남북공동선언부산실천연대결성식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주최로 4일 부산에서 진행됐습니다.

상당수 노동조합이 2002년 임단협상에서 주5일근무제를 핵심요구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12일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열고 주5일근무제협상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일보가 부시의 ≪악의 축≫망언과 관련해 최근 각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이낙연민주당대변인은 11일 이회창의 ≪좌파적 정권≫발언과 관련해 이회창이 좌파를 ≪친북적 개념≫이라고 밝혔다면서 이는 색깔에 따른 양분법으로 정치와 사회를 재단하는 낡고 빛바랜 이회창의 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기념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요녕지구협회 보고회가 9일 중국 심양에 있는 철로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며 주석님께와 **김정일**영도자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조선인민군 육해공군장병들의 예식이 12일 금수산기념궁전광장에서 엄숙히 거행됐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을 찾아 12일 러시아연방공산당 제민주위원회대표단, 이란 조선친선협회대표단, 세계민주통일연맹 서기장, 제20차 4월의 봄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할 여러 나라 예술인들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을 맞으며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어버이주석님의 동상을 찾는 사람들의 수가 매일 수만명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에 즈음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이북을 방문하고 있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이사장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에 즈음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이북을 방문하고 있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이 선물을 드렸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에 즈음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이북 주재 여러 나라 대사관 문화 및 친선관계일군들이 축하편지를 드렸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에 즈음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캄보디아국왕, 기니대통령, 콩고대통령, 캄보디아인민당 위원장, 몽골 인민혁명당 위원장, 멕시코 노동당 당수가 각각 축전을 드렸습니다.

태양절에 즈음해 캄보디아왕국 노로돔시하누크국왕의 지시에 따라 왕궁 담당 부수상을 단장으로 하는 왕궁성대표단이 8일 자국 주재 이북대사관에 방문했습니다.

9일 러시아의 이고리 이바노프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라크를 반대해 일방적으로 힘을 행사하는 것은 아랍과 이슬람교 나라들을 비롯한 세계적 범위에서 부정적 반응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